

조기유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연구 I: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책임연구원 : 문경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임재훈(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 교수)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이아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일정 기간 외국에서 조기유학 한 후 귀국한 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 귀국청소년이 경험한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정체성을 조명해 봄으로써 조기유학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귀국청소년의 해외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경험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 귀국청소년의 국내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귀국청소년의 해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귀국청소년의 국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귀국청소년의 다문화 이해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귀국청소년의 사회적·문화적·국가적 정체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 조기유학 청소년이 체류국에 적응을 잘 한 경우는 부모의 다문화적 소양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가정배경의 청소년이었으며, 청소년 자신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인종과 친구관계를 쉽게 형성하는 경우였다.

- 귀국청소년의 국내 적응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능력이 귀국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국내 적응이 빨랐던 귀국청소년의 경우 해외 거주 당시 한국문화권 안에서 생활한 학생들이었다.
- 귀국청소년은 자신들이 한국에서만 성장한 또래 청소년과는 문화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귀국청소년의 미래의 생활 무대로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고,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꿈꾸고 있었다.
- 귀국청소년의 국가 정체성은 현지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현지의 한인 공동체와의 접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재외 한인 공동체 안에서 생활반경을 형성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한국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더 용이하였다.

4. 정책제언

- 귀국청소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조기유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조기유학과 관련된 자료를 사교육기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귀국학급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귀국청소년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귀국학급을 확대하고, 체류 기간과 체류 국가를 고려한 귀국학급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교육제도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수방법과 교육과정 상의 문제를 감안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 내용	8
3. 연구 방법	10
4. 연구의 필요성	13
5.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14
II. 이론적 배경	17
1.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19
2. 다문화인	22
3. 이부치의 폐쇄적 문화 공동체 모델	23
III. 연구방법	27
1. 연구 참여 학교와 학생 선정	29
2. 질적 데이터 수집 과정	30
3. 질적 데이터 분석 과정	30
IV. 분석 결과	33
1. 공통 주제 분석: 한국 학생들의 외국 학교 적응 과정	35
2. 외국 학교 적응에서의 성패 요인 분석	41
3. 공통 주제 분석: 한국 학교 적응 과정	41
4. 한국 학교 적응에서의 성패 요인	53
5. 공통 주제 분석: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	56
6. 문화적 및 국가적 정체성의 발달	62
V. 결론 및 정책제언	67
1. 결론	69
2. 정책제언	73
참고 문헌	76
부 록	79

표 목차

<표 I-1>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3
<표 I-2> 출국 학생의 학교 급별 현황	5
<표 I-3> 귀국 학생의 학교 급별 현황	5
<표 I-4> 초·중·고 귀국 학생 지역별 현황	6
<표 I-5> 2007년도 귀국학생 특별학급 현황	7

그림 목차

[그림 I-1] 3차년도 연구 계획 및 내용	11
[그림 II-1] 제3문화 모형	19
[그림 II-2] 이부치의 폐쇄적 문화 공동체 모형	24
[그림 II-3] 개방적 문화 공동체 모형	25
[그림 IV-1] 영어권 국가 지역 학교 학생의 문화 연계성	65
[그림 IV-2] 비영어권 국가 국제 학교 학생의 문화 연계성	65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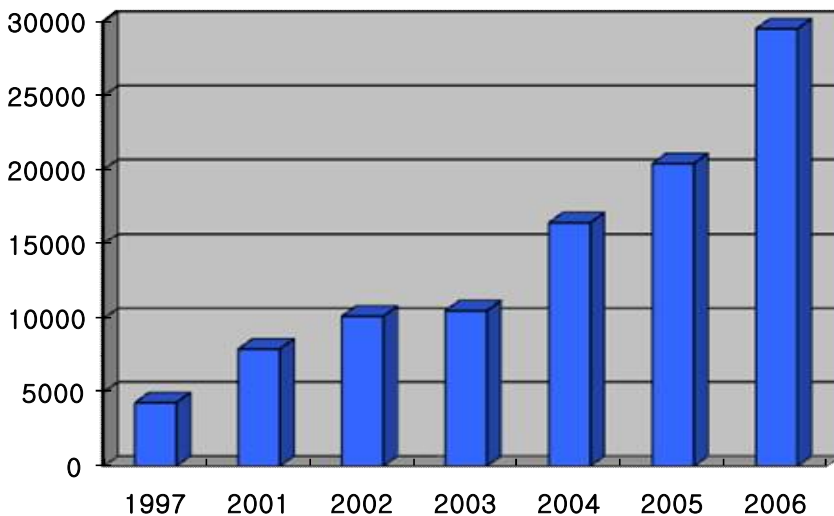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필요성
5.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간 교역이 급증하고 동시에 교육 및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으로 외교 및 일부 국제 교역 분야에만 한정되어 극소수에 머물렀던 해외 장기거주 한국인의 수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화의 바람을 타고 해외로 출국한 초·중·고등학생 수는 2007년에 총 43,415명에 이르렀는데 이들 중 5,892명은 해외 이주 사례이고 9,855명은 부모의 해외 파견 동행으로 출국한 경우였다 (<표 I -1> 참조). 나머지 27,668명은 순수하게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학생들의 수로 흔히들 ‘초·중·고등학교 조기유학생’으로 분류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표 I -1> 초·중·고 유학생 출국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6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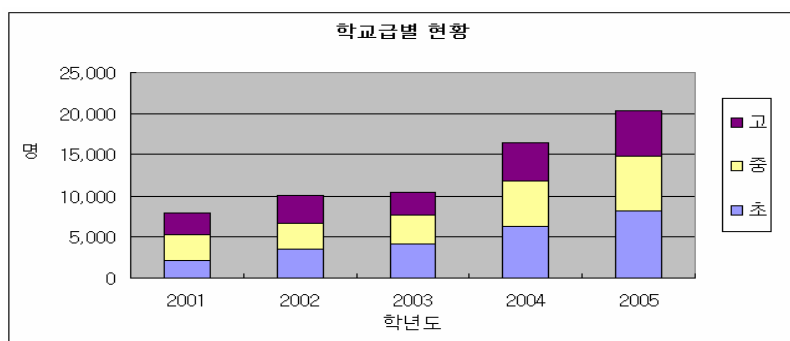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국의 초·중등학생들의 조기 해외 유학 현상은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1997년 3,274명이었던 해외 유학 목적 출국 초·중·고 학생의 수는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한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 2003년 10,498명을 기록하였다. 이 후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전년 대비 44.6%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6년도에는 총 29,511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 가장 최근의 집계인 2007년 통계 역시 전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인 27,668명으로 파악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특히 우리나라의 부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립학교들은 이러한 조기유학 현상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초·중·고생 가운데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 수는 2006학년도(2006년 3월~2007년 2월)에 2,942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들 초·중·고 출국학생들이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는 국가들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영어권의 나라들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최근 조기유학의 행선지로서 급부상하였다. 따라서 2007학년도 전체 초·중·고 출국자 수(해외이주, 부모 파견동행 포함)를 출국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4,006명이고 동남아가 7,421명, 중국 6,880명, 캐나다 5,453명, 호주 2,030명, 그라노 뉴질랜드 1,083명으로 한국 학생들이 퍼져 있는 지역들도 점점 더 다양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난 수년 사이에 조기유학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 급 학교 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해외유학 비율이 2003년 이후 급격히 상승, 2006년에는 전체의 조기유학생의 40%에 이르렀다(<표 I-2> 참조).

이렇게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 혹은 조기유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게다가 출국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당연히 이렇게 해외 장기 거주 및 수학 후 우리나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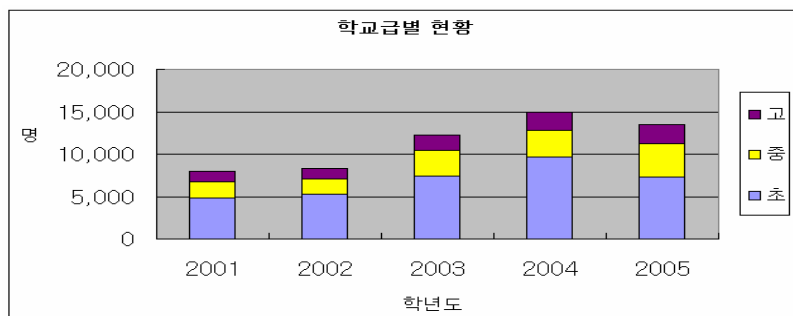
귀국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수도 급증하였다. 2006학년도에 해외에 장기 체류 후 귀국한 학생들의 수는 총 18,36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체류 기간은 2년 미만이 70%, 2년에서 3년 사이가 13%, 3에서 5년 사이가 10%, 그리고 5년 이상을 거주한 후 귀국한 경우도 7%에 달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국 및 귀국 학생들의 학교 급별 현황을 나타낸 아래의 두 표(<표 I-2>, <표 I-3>)를 비교해 보면 최근 2년 사이에 나타난 큰 변동폭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들의 경우는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다.

<표 I-2> 출국 학생의 학교 급별 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6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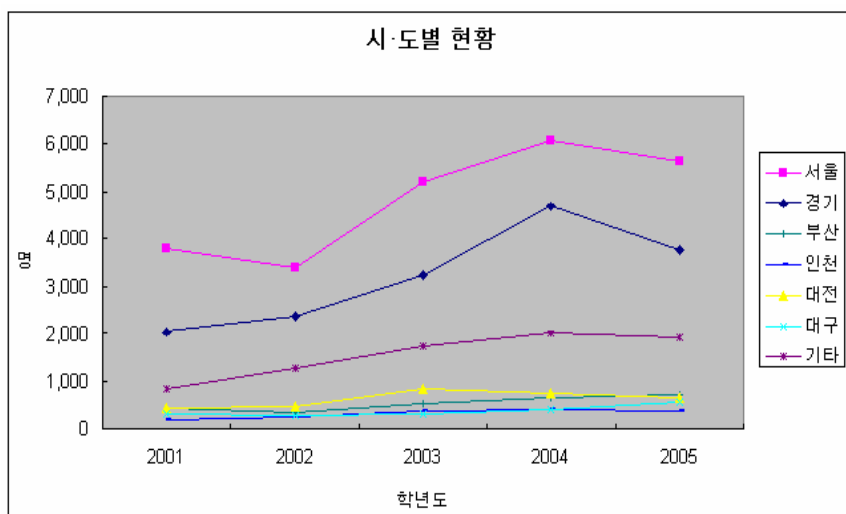
<표 I-3> 귀국 학생의 학교 급별 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6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교육개발원의 2006년도 집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도 해마다 약 13,044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다(<표 1-4> 참조). 그러나 귀국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국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립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표 1-5> 참조). 현재 서울 시내에서 귀국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두 곳 뿐이며 이들 귀국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조차도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에 있어서 적절한 지침이나 자료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표 1-4> 초·중·고 귀국 학생 지역별 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6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표 1 -5> 2007년도 귀국학생 특별학급 현황

구분	시·도	학교 명	학급 수	학생 수(명)
초등	서울	서울교대부속초	3	29
		당현초	2	17
		목원초	2	20
		서울사대부설초	6	56
		신천초	3	28
	부산	낙동초	1	7
		양정초	1	6
		와석초	1	7
		금양초	1	11
		광남초	3	23
	대전	대덕초	3	73
		전민초	2	35
	경기	안양 호원초	2	36
		부천 상도초	2	32
		고양 금계초	2	38
	합계	15교	34	418
중등	서울	덕수중	1	14
		연주중	1	13
	대전	대덕중	1	10
	합계	3교	3	37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2007). 조기유학바로알기.

2. 연구 내용

1) 귀국청소년의 정체감 형성: 보고서 1

귀국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공립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닌 뒤 귀국하여 한국의 공교육 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학했던 해외 학교 환경 및 적응 과정, 귀국 후 한국의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 상의 어려움과 적응 과정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귀국청소년의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정체성을 기존의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TCK)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분석하였다. 귀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및 학교 적응 과정은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현장의 학교나 교사들이 어떻게 귀국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 조기유학 종료자의 발달 궤적: 보고서 2

(1) 조기유학 종료자의 조기유학 유형과 실태 분석

청소년 조기유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유학의 동기, 조기유학 시 가족동반 여부 및 거주형태, 조기유학 시작시기와 기간, 유학경로, 학교 유형 등에 따라 청소년 조기유학을 유형화할 수 있다. 조기유학의 유형은 조기유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기유학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조기유학의 유형과 실태를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2) 조기유학의 결과 분석

본 연구는 조기유학을 청소년의 인생경로와 진로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며 조기유학의 결과를 표현하는 용어로 ‘성공과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로 한다.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는 ‘학업과 취업 등에서의 개인적 성취 여부, 조기유학의 목적달성 여부’뿐 아니라 조기유학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화’, ‘글로벌 역량의 습득 또는 문화정체성 확립 여부’, 가장 주관적 지표인 조기유학으로 얻어진 ‘행복감’ 등 다차원적으로 조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기유학 결과에 다차원적 고찰을 통해 조기유학의 성패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조기유학 결과 관련 변인 탐색

조기유학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와 관련된 변인들이 무엇인 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조기유학자의 동기 및 의지, 학업성적, 외국어 준비도 등 조기유학의 사전준비요인, 조기유학자의 인성 특성과 성숙도 등 개인적 요인, 학교유형과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등 학교관련 요인, 가족동반 여부, 유학 시기나 기간 등 유학유형 변인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면접조사결과를 토대로 조기유학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류하고 이러한 조기유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4) 조기유학 현황 분석

조기유학자의 학교와 유학원 사례 조사를 통해 조기유학 현황을 살펴본다. 유학학교의 특성과 외국인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 한국학생들의 학교생활 현황 및 적응상의 문제 등을 살펴본다. 현지 유학원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유학비용, 학생모집 규모, 조기유학생의 적응 문제 등 조기유학 현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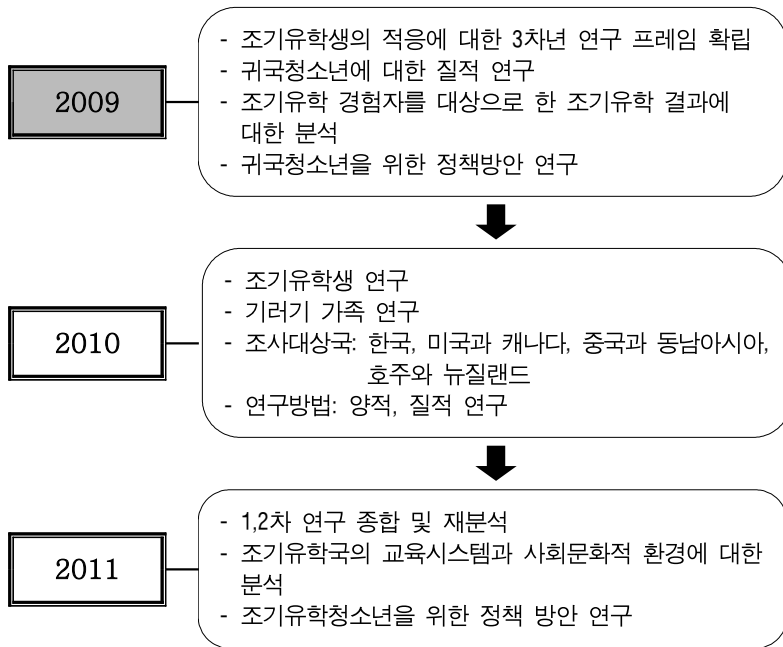
(5) 조기유학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청소년의 조기유학결과에 대한 분석, 조기유학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탐색한다.

3. 연구 방법

1) 3차년도 연구계획 및 내용

본 연구는 3차년도에 걸쳐 수행된다. 조기유학의 원인과 결과, 적응 과정 등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조기유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1차년도인 2009년에는 이미 조기유학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유학의 원인과 적응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2차년도인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북미지역과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의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된다. 연구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에는 그동안 1, 2차년도에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하고 재분석하여 조기유학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조기유학생들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진 각국의 교육시스템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조기유학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그림 1-1] 3차년도 연구 계획 및 내용

2) 1차년도 연구추진 방법

(1) 정책협의회: 조기유학과 관련된 정부의 해당 정책 담당관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정부에서 필요로 하고 정부에서 펼쳐야 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귀국청소년의 발달을 다방면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아동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 연구방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과 연구의 내용에 대해 논의 하였다.

(3) 현지 방문: 조기유학 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조기유학 종료자의 적응과 발달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외국의 조기유학 종료자

를 직접 만나봄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4) 워크숍: 귀국청소년과 조기유학종료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분석 방법을 논의하였다.

3) 1차년도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귀국청소년의 정체감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의 제3문화 청소년에 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태어나서 성장한 제1문화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접한 제2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에서 탄생한 제3의 문화 지대에서 성장했던 경험이 청소년의 제반 발달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문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헌들에서 시사하는 바를 참고로 하여 청소년시기에 여러 문화를 경험한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조기유학을 종료한 청소년들의 조기유학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기유학의 유형과 조기유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2) 조사 및 분석

① 조사대상자

귀국청소년의 적응의 문제와 역문화충격, 정체성에 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하였다.

가. 귀국청소년 조사: 귀국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보고서1)
귀국청소년의 적응의 문제와 역문화충격, 정체성에 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나. 조기유학 종료자와 어머니 면접조사: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과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2)

본 연구는 조기유학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 어머니들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은 조기유학을 마치고 국내외에 체류하고 있는 20대 청년과 그 어머니로 모두 18사례가 조사, 분석되었다.

다. 전문가 면접조사: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과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2)

본 연구는 조기유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유학지 고등학교, 유학원, 조기유학관련 사회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워크숍

조기유학의 실태 및 결과 적응관련 변인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조기유학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기유학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면접조사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4. 연구의 필요성: 보고서 1

지난 수년간 급격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교육영역 또한 교육내용이나 대상(학생)들이 날로 국제

화 되어가는 현상이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의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성장 시기의 상당 기간을 외국에서 보낸 아동·청소년들(Third Culture Kids/Trans-Culture Kids)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왔으며 이들 아동·청소년들이 개발한 국제적인 감각과 다문화적 이해 능력이 이들의 장래에 어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역시 다각도로 조명해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 및 조기 유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공립학교에서 수학하는 초·중학생들(returnees)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지닌 이중적인 학교 경험과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 성립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교육 연구들은 이들 귀국학생들(returnees)의 모국 사회 및 학교 적응과정이 각 사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Fry, 2007).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들 귀국 학생들이 어떤 적응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일선의 학교들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이들 귀국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5.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보고서 1

본 연구는 귀국 학생들이 한국 학교 적응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들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이들 귀국 학생들이 지닌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정체성을 조명해 보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여섯 개의 세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귀국 학생들의 해외 학교생활 중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경험이나 생각들은 어떤 것인가?
2. 귀국학생들의 국내 학교 적응 기간 중 공통으로 겪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학교 경험들은 무엇인가?

3. 귀국 학생들의 해외 학교 적응 과정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는 무엇인가?
4. 귀국 학생들의 국내 학교 적응 과정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는 무엇인가?
5. 귀국 학생들이 지닌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다문화적 이해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6. 귀국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문화적, 사회적, 혹은 국가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2. 다문화인
3. 이부치의 폐쇄적 문화 공동체 모델

II. 이론적 배경

1. 제3문화 아이들 (Third Culture Kids)

196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루쓰 힐 우심(Ruth Hill Useem)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미국의 사회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외국에서 중요 성장 시기를 보낸 학생들(Third culture kids/Trans-culture kids: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 독특한 청소년 집단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해 왔다 (Pollock & Van Reken, 2001). 제3문화 아이들(TCK: Third Culture Kids)이라는 명칭은 이 집단의 아이들이 부모·가정의 문화(제1문화)나 주재 국가의 문화(제2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제3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림 II-1] 참조).



[그림 II-1] 제3문화 모형(Pollock & Van Reken, 2009)

제3문화 아이들로(TCK) 구분되는 아이들은 두 가지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실제적, 직접적으로 교차하는 공간에서 성장 발달시기(9-16세)를 보낸다는 것과, 둘째 물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성장 발달 시기를 보낸 것이다. 영미 학자들은 이들 제3문화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명칭을 부

여했는데 ‘국경을 건너는 자(boarder crosser; Cottrell, 1999)’, ‘세계의 방랑자(global nomad; Carlson, 1990)’, ‘신세계 엘리트(new international elite; Goodman, 1992)’, ‘작은 국제대사(little ambassadors; Smith, 1991)’ 등이 그 예이다.

미국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제3문화의 청소년들은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 및 사회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과정을 거친 일반 청소년들과는 매우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되며 그 결과 같은 국적을 지닌 자국의 일반 청소년들보다 오히려 본인들의 국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제3문화 아이들과 더 깊은 삶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다 (Pollock & Van Reken, 2009).

Pollock과 Van Reken(2009)은 TCK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두 가지 환경 요소로서 자신들과는 신체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성장한다는 점과, 언젠가는 본국으로 귀환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현재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두 번째 환경 요인은 제3문화 아이들이 속한 가정들이 영구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한 이민 가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 또 Pollock과 Van Reken은 모든 TCK 가정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TCK 가정들이 갖고 있는 환경적 조건 중 TCK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 더 있다고 보았다. 그 첫 번째는 대부분 TCK 가정들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본국의 파견 주체나 주재국으로부터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본국 생활에 비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는 일상생활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소는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TCK의 경우(예: 선교사, 군인, 기업, 외교)에는 소속된 집단을 은연중에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어 집단에 근거한 자아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 집단의 문화적 규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탈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반항적인 청소년기의 도래가 늦어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영미 학자들에 의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TCK청소년들이 세계와

다문화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개발하기 때문에 장차 국제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Goodman, 1990). 그러나 반면 이들이 지닌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TCK학생들은 본국의 학교에 돌아왔을 때에 적응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il, Thompson, & Walker, 2004; Fry, 2007; Pollock & Van Reken, 2009).

최근 교통과 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인구의 이동과 정보의 교환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가 상호간의 경제적, 문화적 의존관계가 필수 불가결해 지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중요한 교육 목적으로 부상하면서 TCK 집단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기존의 영국이나 미국 출신 TCK를 중심으로 하던 연구가 이제는 다른 국적 출신의 TCK연구로 확장되어가는 추세이며 아주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은 TCK집단의 동질적인 경험 및 정체성 이외에도 국가 간의 다양성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각 나라의 문화적, 교육적 환경, 혹은 언어적 조건들이 이들 TCK나 청소년들의 본국 적응이나 성장 발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역시 학계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권의 TCK들에게는 해외 주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학업 발달이 본국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질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종종 보고되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비영어권 출신의 TCK들이 본국 귀환 시 학업적인 면에서 적응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보여 주고 있다(Fry, 2007; Pollock & Van Reken, 2009). 해외에 산재한 다양한 국적의 TCK들이 다니는 국제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어를 교수 학습 언어로 쓰고 있으며 학교 교육 과정 역시 영국이나 미국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영어권 국가의 TCK들이 본국 귀환 시에 경험하게 되는 학습의 공백은 우리나라 초·중·고 귀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이 해외에 나가 일정 기간을 수학 한 후 돌아온 귀국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이 출국 이전에 비해 학교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2. 다문화인

여러 인종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30 여 년간 개인이 지닌 다문화적인 능력(multi-cultural competency)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간의 교류가 급증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초월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trans-cultural awareness or transcultural competency)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지만 사실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인 Robert Park(1928)의 ‘주변인(marginal men)’ 개념에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Adler(1975)는 다문화인(multicultural men)이 가지는 자아정체성은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Adler는 다문화인의 주요 특성으로 세 가지를 기술하였는데 첫째는 정신적, 문화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점, 둘째는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의식적으로 이해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사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다문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이 언제나 평이하고 쉬운 것은 아니다. 서구의 교육학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교차되는 공간에서 성장 발달 시기를 보내는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영향에 노출됨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식의 형성에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 역시 보고하였다(Pearce, 1998). 특히 학교의 문화는 그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집단의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수 인종이나 소수 문화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의 가정 문화와는 다른 학교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을 하기 쉽다(Taylor 외, 2008).

Schaetti(1996)은 두 문화가 교차되는 공간에서 발달 시기를 보냄으로써 문화적 주변인으로 성장한 개인들이 질적으로 매우 다른 두 가지의 행동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고립된 주변인(encapsul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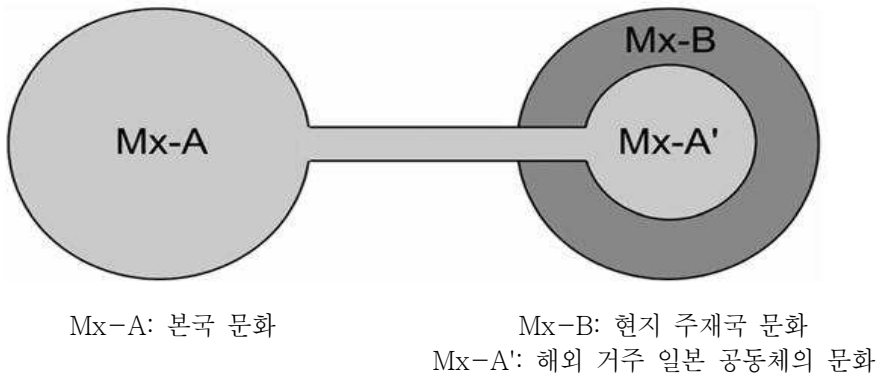
marginality)으로서 성장하는 것인데 이들은 주재국의 문화나 본국 문화에 대해 깊은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단절된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유형이다. 문화가 다른 해외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환경은 이미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고 따라서 문화적 혹은 언어적 주변인으로서의 성장 경험은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Schaetti(1996)는 서로 다른 문화에 노출되어 성장 시기를 거친 학생들이 다른 한 편으로는 건설적인 형태의 주변인(constructive marginality)으로 성장 발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 건설적인 주변인들은 주재국의 문화나 본국 문화 중 일정 측면에 대해 동질감을 개발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3. 이부치의 폐쇄적 문화 공동체 모델

지난 수년간 비영어권 TCK에 대한 연구 중 가장 활기를 띠었던 것은 일본 학생들에 대한 연구이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일본의 귀국 학생 연구는 귀국 후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실제로 이들 귀국 학생들이 거주했던 해외의 일본인 공동체와 본국 문화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와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았었다(Fry, 2007).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해외 거주 후 귀국한 일본 TCK 학생들에 대해 일반인의 시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을 일본의 정체성을 잃은 “반쪽 일본인”으로 보던 예전의 부정적 시각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이들이 일본 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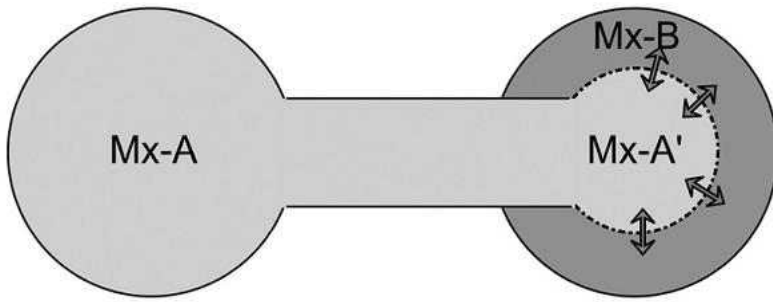
일본의 귀국학생(kaigaishijo 혹은 kikokushijo)을 연구해 온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이부치(1994)는 그동안 영미 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한 문화 교차적인 형태의 모형([그림 II-1] 참조)을 미국식 모형이라고 주장하고 해외에 주재하는 일본 가정들이 처해 있는 문화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새 모형을 제안하였다([그림 II-2] 참조). 이부치는 이

모형을 통해 해외 거주 일본인들이 본국의 문화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주재 국가의 문화와는 다른 ‘작은 일본 문화(miniature home culture)’를 현지에 형성, 상대적으로 분리된 문화적 경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림 II-2] 이부치의 폐쇄적 문화 공동체 모형 (Fry,2007, p. 143)

Fry(2007)는 이부치의 관점을 한 층 더 발전시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 폐쇄적 성격을 지녔던 해외의 소일본 문화공동체가 주재국가와의 문화 접촉이 계속 진행되면서 공동체 안팎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그 문화적 경계를 점점 더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좀 더 개방된 문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그림 II-3] 참조).



Mx-A: 본국 문화

Mx-B: 현지 주재국 문화

Mx-A': 해외 거주 일본 공동체의 문화

[그림 11-3] 개방적 문화 공동체 모형 (Fry, 2007, p. 145)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 학교와 학생 선정
2. 질적 데이터 수집 과정
3. 질적 데이터 분석 과정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면접조사자가 직접 연구 대상 학생들을 일대일로 면접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과거나 현재의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인터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따랐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질적 연구들이 소수 사례연구(case study)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연구 문제에는 근거 이론(Ground theory)의 방법론을 접목시킨 좀 더 체계적인 주제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1. 연구 참여 학교와 학생 선정

연구 과정의 초기에 면접조사자가 직접 귀국학생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내의 5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를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연락하였고 팩스를 통해 본 연구의 개요와 면접조사자의 약력을 학교 측에 전달하였다. 이들 중 4개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가 연구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왔고 면접조사자가 직접 이들 6개 학교를 방문하여 각 해당 학교의 교장 혹은 교감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받았다. 실제적인 참여 학생의 선별 과정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음의 두 과정 중 하나를 따랐다. 6개 참여 학교 중 4개 학교는 면접조사자가 직접 귀국학생 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만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학생들의 자격과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각 학급 안에서 가급적 다양한 학생들을 선별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머지 2개 학교에서는 면접조사자가 해당 학교의 교감 선생님과 회의를 통해 학생 선별 기준을 전달하였으며 면담 학생들의 이름과 기본 인적 사항, 각 학생의 면담 시간 역시 같은 경로를 통해 결정되었다. 초등학교 참여 학생들은 4-6학년 고학년 학생들로서 연령은 모두 만 10세 이상이었으며 중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양하게 선정되어 만 13-15세의 연령 분포를 보였다. 각 학교에서 약 5명에서 7명 사이의

학생이 선정되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연구에 쓰인 전체 표본은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11명,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1 참조).

2. 질적 데이터 수집 과정

참여 학생들의 개별 면접은 각 학교에서 선정한 시간에 내정된 교내 장소에서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학교의 상담교사가 입회한 중학교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 면접은 연구자와 해당 학생 두 사람만의 입회 하에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녹음기에 전체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었다. 면접조사자는 인터뷰 시작 전에 참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자로서 학생들이 가진 제반 권리를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각 학생과의 질적 인터뷰에 소요한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였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인터뷰가 초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길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참여 학생의 많은 수가 한국에 귀국한지 6개월 이내의 학생들이었기에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을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말 보다는 영어를 통해서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학생들은 인터뷰 자체를 영어로 진행하였다. 두 언어 사용 능력이 비슷하다고 보고한 학생들은 인터뷰 중간에 영어나 한국어로 전환해서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해 보도록 하였다. 언어의 전환이 대화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한국말이 더 편했던 학생들은 전체 인터뷰가 한국말로 진행되었다.

3. 질적 데이터 분석 과정

수집된 인터뷰 파일들은 모두 면접조사자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및 미국인 대학생 두 사람에

의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녹취록으로 만들어졌다. 이 후의 질적 데이터 분석은 한국인 대학생과 미국인 대학원생, 그리고 면접조사자를 포함한 연구팀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음의 두 분석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의 데이터 분석은 공통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 Ezzy, 2002)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앞서 제기한 연구 문제 1, 2, 5(일부), 6번은 사실상 이러한 공통 주제 분석을 통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었다(1. 귀국 학생들의 외국 학교생활 중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경험이나 생각들은 어떤 것인가?; 2. 귀국학생들의 한국 학교 적응 기간 중 공통으로 겪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학교 경험들은 무엇인가?; 5. 귀국 학생들이 지닌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6. 귀국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문화적, 언어적, 국가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수정된 양태의 근거 이론(Ground Theory; Charmaz, 2006)을 적용하였다. 근거 이론에서 제공하는 액시얼 코딩(Axial coding) 기법과 다양한 분석표(analytic tables)를 이용하여 연구문제 3번과 4번, 그리고 5번 문제의 일부가 요구하는 주요 요인들의 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3. 귀국 학생들의 외국 학교 적응 과정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는 무엇인가?; 4. 귀국 학생들의 외국 학교 적응 과정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는 무엇인가?; 5. 귀국 학생들의 다문화적 이해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비록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 문제 중의 하나가 귀국 학생들의 한국 학교 적응 과정을 살피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중점은 귀국 학생들의 교육 경험 전체(해외에서의 학교 교육 경험과 국내 학교 적응 과정) 및 그 결과물들(정체성과 다문화적 소양)을 그들이 처해 있었던 사회 문화적 환경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었다.¹⁾

1) 2000년 이후 조기 유학의 형태로 해외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이미 상당수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김혜순, 2009; 임재훈, 2005; 조은, 2004). 동시에 귀국학생들이 국내 학교 적응 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어려움들도 이윤선(2002), 조혜영 외(2004), 정재욱 & 주은선(2003), 그리고 최진숙(2007)의 연구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

IV. 분석결과

1. 공통 주제 분석 : 한국 학생들의 외국 학교 적응과정
2. 외국 학교 적응에서의 성패 요인 분석
3. 공통 주제 분석 : 한국 학교 적응 과정
4. 한국학교 적응에서의 성패 요인
5. 공통 주제 분석: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
6. 문화적 및 국가적 정체성의 발달

IV. 분석 결과

질적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앞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연구 문제에 따라 차례대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잠정적 형태의 근거 이론은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학생 이름을 비롯하여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모든 이름들(거주 지역, 학교 이름, 교사나 친구의 이름 등)은 분석 과정에서 가명으로 변경된 것이다.

1. 공통 주제 분석: 한국 학생들의 외국 학교 적응 과정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경험을 한 학생들을 연구 표본에 넣기 위해 참여 학생들의 해외 거주 국가를 다양하게 선정하였던 연구의 본래 의도와는 상반되게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영어권의 학교들에 재학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영어권 지역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였던 학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거주 국가의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 학교나 사립학교를 다닌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계 혹은 미국계의 국제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이들 해외 거주 학생들이 다녔던 영미계 국제 학교는 교수 학습 언어로서 영어가 쓰였고 학교에서의 교육내용이나 교수방식 역시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었다(예, 싱가포르나 프랑스에 살면서 미국의 문화를 배우거나 홍콩에 살면서 캐나다의 지리를 배우는 사례들). 따라서 비록 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하기는 했지만 실제 거주 국가의 언어나 문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 지리 등에 대한 이해는 거의 발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제3세계 국가에 거주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쓰지 않는 제1세계 국가에 장기간 거주한 학생의 경우에도 거주 국가의 공립·사립학교에 들어가기 보다는 영미 계통의 교육 과정을 쓰는 국제 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영어권의 나라(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거주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전체가 거주 국가의 공립학교 체제로 직접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영어권 국가에 거주한 학생들은 일상의 학교생활을 통해 거주 국가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았으며 따라서 현지 학생들과의 교우관계도 좀 더 다양하고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들의 수가 적은 지역에 거주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을 통해 거주 국가의 문화에 빠르게 동화되어갔던 현상을 보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해외에서의 거주 지역이 비영어권 국가였던 경우에 학생들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 가정의 삶 전체가 해당 지역의 한인공동체라는 큰 사회문화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그 지역 사회의 문화와는 차별적인 사회문화적 공간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변형된 형태의 한국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도의 차이는 다소 약하지만 영어권 나라에서 지역 학교에 다닌 학생들 역시 대부분 그 지역의 한인 공동체라는 사회, 문화적 공간 안에서 가정의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 점이 학생들의 학교 경험과 문화 적응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속된 한인 공동체가 주재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맺는 관계 및 문화적 접촉의 강도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 학생들이 외국 학교에 처음 가서 겪는 학교 적응 과정은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용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의 학교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사전에 아무 언어나 문화적인 준비 단계 없이 비영어권의 지역학교에 학생을 보낸 경우와, 학부모가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도심의 지역 학교를 보낸 경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어느 정도 다니고 난 뒤 외국으로 나간 학생들의 경우, 현지 외국 학교에서 교수 학습 언어로 쓰였던 영어 습득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언어 습득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에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에서 외국을 나갔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2-3년 정도의 영어보

충수업을 들었거나 정규반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영어보강반에서 상당 기간을 수학하여야 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국제 학교들은 아예 정규 학급과 완전히 분리된 ESL을 운영하고 있고 그 ESL 반에는 다수의 한국 학생이 수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 학교 출신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파악할 수 있다.

연구자: 그럼 그 중에 (국제 학교 안에)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됐어요?
(국제 학교 중에서) 가장 (한국 학생이) 많았다면은?

영아: 처음에 가면 ESL반이라고 못하는 애들 모아 놓는 데가 있는데요. 그 반에 가면 거의 반 이상이 한국사람 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 잘 해가지고 mainstream 반에 가면 거기는 거의 없어요. 한 한 명? 두 명?

연구자: ESL반을.. 영아는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보통 학생들은 얼마나 있었어요?

영아: 아마 다들 일 년 반 쯤? 저도 1년 반이었고요.²⁾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장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느꼈던 학습 과정에 대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다. 즉,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려웠지만 학교 공부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중간에 외국을 나갔던 학생들의 전반적인 설명이었다. 해외에서의 학교 공부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에서 학교생활을 한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특히 국제 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이 배운 교육과정 이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년 수준의 교수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외국

2) 영아는 분리적인 형태의 ESL 프로그램에서는 1년 반을 보냈고 이 후에 중간단계의 반인 EAL 프로그램(영어만 따로 배우고 나머지는 같이 배우는 형태)에서는 2년을 보낸 것으로 보고 하였다. 영어보강 교육과정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국제 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학생의 경우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영어권 지역에서 지역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거치는 ESL 기간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다.

학교에서의 적응 과정과 학과 공부가 상당히 수월하였다고 보고하는 이면에는 이들이 받은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국제 학교들은 ESL 학생들을 따로 반편성을 하여 정규 교육과정과는 다른 과정을 운영하며 이들 ESL 교육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내용을 줄이거나 낮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정(예, 과학 과목을 배우지 않음)이나 시험 양식의 수정 사례들(따로 ESL 학생들만을 위한 시험을 만들거나 시험에서의 선택 문항을 반으로 줄여줌)을 반복적으로 찾아 볼 수 있었다. 한인 학생들에게 별도의 쉬운 시험 문제를 내어 주던 미국의 지역 학교를 다닌 후 곧바로 제3국가의 캐나다계 국제 학교로 옮겨간 연주는 그래도 국제 학교의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로워요 미국학교 보다’고 회고하였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연주의 반응은 ‘아, 망했다. (연구자: 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 공부 잘 하잖아요’였다. 연주에게 있어서 외국 학교의 생활은 편안함으로, 한국 학교의 생활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졌다.

연구자: 어떤 학생이 여기에서 외국에 있는 학교에 막 갈려고 해요. ...

연주야, 내가 뭘 해야 되겠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연주: 마음의 준비.

연구자: 무슨 마음의 준비?

연주: 여기보다 편안하니까 막 relief (편안하게)해도 된다.

연구자: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요.

연주: 들어오지마.

연구자: 왜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연주: 평생을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세계 시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연구자: 그럼 연주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연주: 많이 받아요.

귀국학생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해외 학교에서의 교사 및 교우관계 적응 과정은 대체로 원만하였다. 교우 관계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경우는 유사한 처지의 한국인 TCK 친구들, 한국인 교포 학생들, 그리고 다른 인종의 현지 학생들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우관계 분포도를 보인 반면, 비영어권 지역의 국제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은 수가 같은 국제학교를 다니던 한국 학생이나 동양계 외국인 학생들과 중점적인 교우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일부 국제학교들에서 한국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개별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한국인 친구들 및 외국인 친구들과 동시에 교우관계를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였다. 중학생 참여자인 두호는 처음에 영어가 안 되는 것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학생들이 항상 같이 모여 생활하면서 다른 학생 집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갈등을 느꼈음을 토로하였다.

연구자: 000 국제학교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였어요?

두호: 의사소통이 안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국 애들하고...한국 애들이 외국 애들 하고 전혀 말을 안 하고, 애들이 온다 해도 씹고 그래서 외국 애들 하고 만날 기회도 없었고...

연구자: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두호: 우선 말이 안 되는 것하고 한국 애들은 자기...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국 애들끼리 같이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두호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두호: 네. 7학년인가 그 때부터 000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한국 애들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한국 애들이랑 너무 지내다 보니까 다른 culture 그런 게 배우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다른 집단의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국제 학교의 상황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일종의 관행적인 차별일 수

도 있다고 해석하는 학생도 있었다. 음악을 좋아해 학교밴드에 참여하면서 베트남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경우는 그런 점들을 지적하였다.

국제학교만큼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미국의 지역 학교도 인종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으며 소수 인종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했다고 토로하였다.

연구자: 미국 학교에서 나쁜 점을 하나 들라면?

연주: 흑인 애가 한명 있었는데 다른 애들이 좀 거리감 느끼고 그랬어요.

연구자: 그래서 그 애를 좀….

연주: 왕따 시키고 그랬어요. 나중에 전학 갔어요.

연구자: 그런 거 보고 어떤 생각했어요?

연주: 불쌍하다. 저도 아시안인데 백인끼리 놀고 그러는 거 보면 좀 그래요.

연구자: 그럼 백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하는 그런 거 봤어요?

연주: 네.

연구자: 그럴 땐 어떻게 생각했어요?

연주: 아시안들한테 뭐라 그러진 않는데요 지네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흑인하고는 별로 안 놀고.

이렇게 한인 학생들이 해외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소외감, 학생 집단 간의 알력, 그리고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분리 의식은 이들이 경험하는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성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였다.

2. 외국 학교 적응에서의 성패 요인 분석

외국학교에 들어간 연령에 따라 외국학교 적응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학교 적응과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거친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의 다문화적 소양이 가정 내에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해외 학교에 빨리 적응한 학생들은 부모들 역시 이중언어 구사자이거나 다문화적 소양을 상당히 갖추고 있었다. 이 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적응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하였다. 둘째, 학생 본인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타 한인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의 학생들과도 교우관계들을 쉽게 형성하는 경우였다. 또한 이들 학생들은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결정을 되돌아보는 반성적인 사고를 잘 개발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학교의 적응 과정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먼저 부모가 다문화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이어서 학교와 가정 사이에 상호 이해가 어려웠던 경우였다. 또한 가정 자체가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적인 생활을 한 경우에는 자녀들 역시 고립적이거나 제한적인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스스로 학교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3. 공통 주제 분석: 한국 학교 적응 과정

외국학교 적응과정에서 학업적인 면의 적응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과는 상반되게 다수의 연구 참여 학생들은 한국학교로 돌아 온 후 학업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해외 거주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따라서 한국에서 정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이 외국에서만 학교생활을 해 왔다가 귀국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아직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절대 부족하였는데 이들 귀국 학생을 일선에서 담당한 교사들 역시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서로 간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귀국 학생들은 최소한이나마 학교 초기 적응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내용을 이해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한 초등학생은 그 과정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연구자: 한국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었지?

하늘: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제 소속의 일반 학급으로 가는 거였어요(O학년 O반). 제가 (남들이 말하는) 단 한 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정말 지루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한국말 배우는 거였어요.

연구자: 한국말 배우는 거...

하늘: 한국말을 배운 뒤에는...이제는 저도 정말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제 학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제 마음을 열었구요.

Interviewer: And, since you came to Korean school and studied subjects in this school, what was the hardest part...to adjust?

하늘: The hardest part was adjusting to going to the homeroom. O학년 O반. And, I felt very, very, very bored. Because, I didn't understand a word that was said. So, the hardest part was learning Korean.

연구자: Learning Korean.

하늘: After I learned Korean it was...it's really easy now...for me to...I feel more open to the classes and stuff.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일상생활 언어로서 한국말을 쓰는 것과 한국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국어 실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해외 거주 기간 동안 가정이나 교우 관계에서 한국말을 많이 써 왔지만 현재 배우는 국어 과목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한 가지 흥

미로운 점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국어와 사회 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힌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결 같이 수학의 내용이 가장 따라가기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각 과목 교육과정 내용의 어려움 뿐 만이 아니라 교수방식의 차이점 역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영어권의 지역 학교들이나 영미 교육방식을 따르는 해외 국제학교들의 교수방식이 개별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존중하면서 학습프로젝트 중심의 학생중심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반면, 한국의 교육방식은 주요 지식전달을 중점으로 하는 교사중심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승연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미국 수업과, 익힘책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써야 하는 한국 수업 방식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는 미국의 교육 방식이 더 좋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을 학생이 선행학습하는 관행도 어려움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중학생인 연주는 자기가 다녔던 두 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교수학습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후자의 방식이 자신에게는 더 좋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자: 그럼 쉬웠던 과목이라면 무엇일까? 한국 학교에서 쉬웠던 부분은?

연주: 쉬웠던 부분요? 쉬웠던 건 없었는데요.

연구자: 그럼 다 어려웠단 말이지요? 그래요. 그럼 학과 공부는 어땠어요? 여기 한국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싱가포르 학교에서 배우던 것보다 어려운가요?

연주: 싱가포르요...전 시험 보는 거하고 외우는 것 이외에는 별로 다른 점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000국제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그래, 왜 그렇지?

연주: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개 다 암기해야 하고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학 같은 때,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해야 하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새로 공부할 것들이 그냥 그 때 그때 마다 생기구요. 연습지 주고요. 그리고 특별한 책을 쓰지 않으니깐요.

연구자: 아하,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는 특정한 교과서가 없었어요?

연주: 교과서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해당 학년 공부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연구자: Yeah. Then, what was the easiest subject? Or, easiest part in Korean school?

연주: The...um, the easiest part? I can't find the easiest part.

연구자: (laugh) Everything was hard? Okay. How about the subjects? Um, do you think the things that you are learning here are harder than what you used to learn in the Singapore school?

연주: Singapore? Um...I don't feel that much difference except for the tests and the memorizing. But, I believe that um...the the OOO was better.

연구자: Mm-hm. Eh...wh- why?

연주: Because, in Korea... 'cause mostly, you have to memorize and you have to know it. And, to do that, you have to study before school starts. Like, school break. And, most people do that. But, in Singapore, they just pop you up with new things. Um, they got um...sheets of paper. And, they don't have the specific book.

연구자: Ooh. Then, they don't really have any textbooks?

연주: They do have textbooks, but for that school you don't have to really get ready for that grade.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의 학교나 사회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든다는 점을 좋은 점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경우 ‘학교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혹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점인데 ‘너무 많이’ 혹은 ‘지나치게 많이’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혹은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동시에 나쁜 점도 된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배우는 것들이 ‘수준이 높을’ 뿐더러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신도 더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게 된다는 점을 귀국학생들은 한국 학교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국학교 같은 경우의 좋은 점은 한국 학생들이 대체로 공부를 할 땐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서는 아니더라도 할 땐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귀국학생들은 한국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 학교에서의 교사학생 관계가 매우 엄격하고 한국의 선생님들이 그다지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 학생은 처음 한국 학교에 와서 교편을 들고 다니는 남자 담임선생님을 아주 무서워했었는데 얼마 후에서야 그 무서운 교편이 때리는 데 쓰는 도구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킬 때 쓰는 것임을 알고 안심을 했다고 고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학생들 중 초등학생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들을 제외하면 한국 학교의 선생님들이 친절한 면에서는 해외 학교의 선생님과 별 다른 점이 없었다고 보았다. 초등학생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거나 교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 초등학생들은 한국의 교사와 미국 학교에서의 교사들이 다 ‘비슷하게 친절하다’ 혹은 ‘국제학교 한국학교 다 똑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의 선생님이 더 좋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학생 명현이 역시 미국 학교의 교사와 한국 학교의 선생님 모두 친절하지만 특히 한국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을 가리라고 지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명현: 미국에서는요, 좋은 점들이라고 하면 애들이 착해요. 그래서 개들

이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구요. 그러나 여기 한국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여전히 친절하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우리건강을 생
각해 주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건강을 생각해서 무엇이 좋
은 음식이고 무엇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인지 가르쳐 주세요.

명현: Um...in America, there... the good things are... The kids are
nice. And, they like... um... The teachers are also nice, too.
But, in the Korean schools..... the teachers are also nice,
too. But, they think of your health and so they like... since
they think of your health, they help you like... ‘What’s good
to eat’, and ‘What’s not good to eat’.

초등학교 귀국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엄격하고 부정적인 한국 학교 교사의
이미지는 학생들이 직접 겪은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겪게 될 것이라는 미래
에 대한 예측으로 표출되었다. 예를 들어 재형이는 담임선생님의 교편이
때로 쓰이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난 뒤에도 학교나 선생님이 바뀌면 체벌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자기에게는 미국의 학교
들이 더 좋다는 의견을 낸 뒤 그 이유로 재형이는 중학교에서 시작될 체벌
을 설명하였다.

재형: 저는 미국 학교가 더 좋은데요 왜냐면 미국은 학교에서 체벌이 없
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때리잖아요...

연구자: 체벌...선생님이?

재형: 학교에 늦으면 선생님이 때려요. 왜냐면 곧 중학교 갈 건데요. 만
약 학교에 늦으면 거기 선생님이 막대기로 확 때릴 거예요. 미국에
서는 늦어도 선생님이 그냥 ‘괜찮아, 다음에 늦지 않으면 돼’ 하거
나 ‘지각하지 말아라’ 하죠. 그리고 출결 목록에 지각했다고 적어
버리죠.

제형: I like American schools more better because... American doesn't have hitting in schools. (Interviewer: Mm-hm). But, Korea does. (interviewer: And...)

연구자: Hitting... by the teacher?

제형: Being hit by the teacher because your late. 'Cause, soon as you go to middle school... if you're late for school, the teacher will smack you with sticks. And, America, when you're late, the teacher just says, 'Okay. Next time don't'. Or, 'Don't be late' or on the... the list of... if you're here or not... just goes like tardy.

중학생들의 인터뷰에서는 체벌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체벌이 용인되는 학교 분위기에 대한 불만과 부당하게 '감정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자: 한국에 들어와서 특별히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영: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

연구자: 선생님들이 여기서 때려요?

아영: 네.

연구자: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한 번 맞아봤어요?

아영: 네.

연구자: 어느 수업에서?

아영: OO 수업에서.

체벌뿐만이 아니라 귀국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배려 부족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연아의 경우 자기와 같은 귀국학생들이 한국에서만 살아온 학생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는 선생님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연구자: 만약 선생님들이 너처럼 새로 학급에 들어오는 (귀국)학생들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물어 오면 무슨 얘기를 해 주겠어요?

연아: ‘다른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정말 괴롭거든요.

연구자: 왜 그렇지?

연아: 왜냐면 선생님들이 정말 그러시거든요. 비교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전 정말 그게 싫어요. 왜냐면 각 과목마다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개들하고 (한국에 있어온 학생들) 다르구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게...우리를 좀...우리가...바보처럼 느껴져요.

연구자: 그래...그럼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에서 막 온 학생들을 비교하면 그 학생들은 아마 바보처럼 느낄 수도 있겠구나.

연아: 바보요.

연구자: How about teachers? If teachers have students like you coming into their classroom, and a teacher asks... ‘How can I really help the students?’ Then, what will you suggest?

연아: I will suggest that um...don’t...don’t compare them with um, Korean students. That really gets frustrating.

연구자: Mm-hm. Why?

연아: Because, because they really do...so...and, they compare quite a lot. And, I really hate it because...because at each subject is different. So, our knowledge can be different from theirs. But...they...kind of think...we kind of feel...dumb.

연구자: Mm-hm. So, if teachers compare the students who just came from another country, those students may feel...dumb.

연아: Dumb.

장기적인 해외 거주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빠르게 진행되는 교사의 수업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다. 예를 들면 중학생인 대현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교사의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한국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토로하였다.

대현: 그리고 (한국 학교에 대해)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점은...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는 점...

연구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럼 대현이는 요즘 자기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느끼는 건가요?

대현: 예, 다른 애들에 비해서 공부를 더 하죠.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반에서 (배우는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요. 한국 선생님들이 너무 빨리 말하시니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한 40%나 알아들을까... 어떤 때 가장 잘 이해하면 한 70% 쯤 이해가 되구요. 그러나 대개는 40% 정도죠. 맞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현: And, what I don't like is um... to study... too much.

연구자: Study too much. Um, do you feel you have to study too much these days?

대현: Yeah, actually I have to study a lot compared to other... Koreans because it's hard for me to under... to really catch up in class. Because, Korean teachers, they speak too fast for me. (Interviewer: Mm-hm). So, I couldn't really understand them. (Interviewer: Mm-hm) Um... (clears throat). Uh, so I understand... around forty percent. (Interviewer: Mm-hm). sometimes... I understand... if it's the highest, around seventy percent. But, usually forty percent. (Interviewer: Mm-hm). Um... yeah, those are the hardest stuff.

언어적 장벽만이 아니라 교사 학생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도 대현이가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대현이가 학교를 다녔던 필리핀에서는 현지 선생님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학생들과 어울려 이야기하고 놀기도 하면서 서로 친근하게 지냈는데 한국 학교의 선생님들은 훨씬 더 형식적이어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현: 필리핀에서는 선생님들이 항상 자유로우세요. 제 말은...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놀기도 하구요. 그래서 전 필리핀에 있을 땐 항상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좀 거리가 있어요...

대현: Philippine, the teachers are always free. Uh... they could always talk to the students and they could always play with the students. So, I really get close to the teachers in Philippine. But, it's hard to get close in Korea. They're kind of... formal.

귀국학생들이 학교 적응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으로 토로한 것은 한국의 낯선 또래 문화에 적응하면서 한국의 학교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다. 당연히 귀국 학생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다녔던 해외 학교 학생들과 현재의 한국 학교 학생들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발견하였다.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자신들이 거주했었던 해외 학교와 한국의 학교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중학교 학생들을 또래 문화에 대해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초·중등을 막론하고 귀국학생들 모두가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욕이나 좋지 않은 말을 학교 안에서나 일상 대화에서 쓰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떠드는 것, 질

서를 지키지 않는 것, 거칠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따로 노는 문화 등을 단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대신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친형제 자매(fake sister)처럼 보살피주는 것 등 좀 더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점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귀국학생들 중 또래 문화 적응이나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은 초기에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학생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귀국 초등학생에 대한 주변 한국 학생들의 놀림 현상은 주로 그 귀국 학생이 한국말을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따라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귀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나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국 중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를 일상용어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또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중학교에 들어온 귀국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남과 다르거나 소위 ‘튀는’ 학생들을 ‘왕따’로 고립시키는 또래 문화를 알고 있는 중학생들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어발음을 한국식 영어(Korean English)로 고치기도 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중학생 두호는 한국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와 적극적인 학생을 싫어하는 또래 문화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

연구자: 한국에 왔을 때 두호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두호: 수업시간에 발표를 안 한다던지 나선다고 해야 되나? 나서서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 거. 독일에서는 나서서 선생님을 도와주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데요, 여기에선 그런 애들을 오히려 왕따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눈치를 살피면서 하는 게 제가 뭐를 하던 애들 눈치를 살피면서 해

야 되구요.

연구자: 여기선 그렇게 적극적인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죠? 특히 친구들이.

두호: 네.

연구자: 그 이외에 또 어려웠던 점들이 있어요?

두호: 고등학생들이 와서 어리다고 욕하는, 존댓말을 써야한다는 그 자체가 약간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선생님들한테도 반말하고 그랬으니까 약간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중학교 3학년들이 중학교 1학년들을 괴롭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귀국 학생들은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귀국 학생반이라는 어느 정도의 보호 공간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귀국 학생반이라는 이 특별한 학습 공간이 귀국 학생들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귀국학생들, 특히 귀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귀국반이라는 학습 공간에서 담임교사와 매우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해외 학교에서의 교사-학생 관계와 비교하여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다. 둘째,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 왔지만은 한국에 귀국한지 얼마 안 되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끼리 공통된 학습 공간 안에서 교우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상호 간에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이들 귀국학생들 간의 우호적인 교우 관계 형성은 학습을 넘어선 바깥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중학교 귀국 학생의 경우는 각 과목을 서로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 구조 때문에 귀국반이라 하더라도 교사-학생 간의 관계가 초등학교만큼 긴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학생 귀국학생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비판적이었고 다양한 교사들과 짜여진 수업 시간 안에서 단시간 교류를 갖다 보니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사례도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역시 귀국반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우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현재 귀국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까운 친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귀국반을 넘어서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는 귀국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2차 참여자의 경우에만 소수 발견되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귀국학생들의 상당수가 해외 학교 재학 당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교우관계를 지속시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중등을 막론하고 귀국학생들 중 다수가 가장 친한 친구로 같은 한국 학교, 혹은 같은 귀국반에 있는 친구를 이야기 하지 않고 현재 해외 거주 중인 외국 친구나 외국에 있는 한인 친구를 꼽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귀국학생반이 갖 한국에 돌아온 학생들에게 사회문화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 혜택을 고르게 입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한국어로 불가능했던 학생들은 귀국 학생반에 있다 하더라도 교사와 관계를 맺고 학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학생들은 비영어권의 나라에서 지역 학교를 다닌 후 귀국한 학생들이었다. 이 학생들은 영어나 한국어 어느 것도 의사소통에 쓸 수 없으면서 교사와의 관계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귀국 학생들과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데로 어려움을 겪었다.

4. 한국학교 적응에서의 성패 요인

귀국 학생들의 한국 학교 적응에서의 성패요인을 분석해 보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중산층 이상, 혹은 상류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귀국 학생들은 그보다 낮은 계층의 가정에서 온 학생들보다 한국 적응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한국 학교 적응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해외에 거주 당시 필요한 학습을 시켰으며, 한국에 온 이후에도 학생들의 학교 안팎 생활을 면밀하게 지도함으로써, 그들이 학교에서나 지

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갖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부모의 보호감독 능력이 학생의 적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귀국학생들 가운데 한국 학교 적응이 성공적이었던 학생들은 또 해외 한국 교포사회 안에서 문화적으로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해외 국제 학교에서 이미 상당수를 차지한 한국 학생들 집단 안에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정규 학교 이후에는 한국 형식의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으면서 한국과 유사한 교육 경험을 해외에서도 유지해 온 경우였다. 영어권 나라에 주재한 경우에는 현지의 크고 작은 한국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일상사나 지역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의 보존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일상적으로 구축해 간 경우가 많았다. 본국으로의 귀환을 예기하며 살아온 국제학교 출신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교육 적응이 고르게 좋은 편이었으나 영어권 지역 학교 출신은 그 적응 상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한국 학교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이나 가장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 모두가 영어권의 지역 학교 출신이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 학교 적응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귀국 학생의 가정 자체가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으로의 귀국이 그러한 가정의 어려움을 반영한 경우였다. 따라서 이들 귀국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귀국을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학습적 차이를 중재할 기회가 없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정들은 귀국 후에도 부모의 보호지도적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현상을 보였다. 부모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귀국 학생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영어권 국가의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여 그 지역의 공·사립 지역 학교를 장기간 다닌 후 귀국한 학생들이 국제 학교에 같은 기간 체류했던 학생들보다 한국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거주 지역의 한인 공동체 자체가 미미했거나 가정이 한인 공동체와 교류가 적었던 학생들은 본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도 당연히 낮았으며 한국 학교에서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도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귀국학생의 적응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해외 거주 당시 한국 문화권 안에서(Korean Bubble) 생활한 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더 적응을 빨리 하였으며 반대로 외국 현지 문화 환경에 가장 깊숙이 들어갔던(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성공적으로 거주 지역 현지 문화 체제에 적응한) 학생일수록 한국어 능력을 잃고 한국 문화에 동질감을 느끼거나 적응하려는 노력이나 능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귀국 초등학생의 한국 적응 과정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모가 경제적, 문화적 자본이 풍부한 경우 귀국자녀가 초기 한국 학교 적응 과정에서 지나친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기 때문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나 일상의 생활 전체가 아직 부모의 보호망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한국 문화에 노출되는 정도나 시기가 통제 조절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들 중산층 이상 그리고 상류층 귀국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이 해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거나 양자가 조금씩 장단점이 있다고 여기면서 한국의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대신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귀국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이러한 문화적 완충지대를 만들어 주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여전히 부모가 지닌 사회·경제·문화적 자본이 자녀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나 생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 중학생들 중 가장 성공적으로 한국학교 생활을 적응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분석해 보면 이 학생들이 한국 또래 문화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했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이 아직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에 갈려고 해요, 다음 달에. 그래서 명우한테 와서 내가 네가 있었던 그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잘 적응하고 이럴 수 있을까 충고 좀 해줘봐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명우: 일단 한국에 학교를 오려면 조용조용하다가 점점 친해져야 하잖아

요. 거기 애들은 적극적이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식으로 보면 대부분 수줍어하는 사람들 보다는 적극적이고 active 하고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적인 그런 학생들을 좋아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연구자: 그 반대로 그 쪽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 한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명우가 한국 학교에 적응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명우야 내가 한국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땐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명우: 일단은 외국학교랑 반대로 좀 수줍고 애들한테 좀... 잘 보여야 돼요. 되게 착해 보이고...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겸손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겸손해 보여야 되고, 친해지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애네들이랑 연락도 자주 하면서 같이 다니고 되게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애들은 조심하고.

자신이 예전에 다녔던 국제 학교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한국 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또래 문화의 차이점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맞추어 나간 명우는 결국 자기가 다니는 중학교는 귀국 학생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명우는 설령 친구들이 놀림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 거 없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가끔씩 농담으로 ‘재 한국말 못해’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친구들끼리 근데 그런 건 농담으로 하는 거지 특별히 차별하고 이런 건 없어요.’

5. 공통 주제 분석: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

앞 장에서도 언급한 자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학생들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집단은 영어권의 나라에 거주하면서 지역 학교를 다녔던 귀국 학생들, 두 번째는 비영어권 나라에 살면서 영미계의

국제 학교를 다닌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은 극소수이지만 비영어권에서 지역학교를 다닌 학생들이다. 첫 번째 집단, 즉 영어권의 나라에 거주하면서 지역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은 영어 습득과 함께 현지 문화에 급속히 편입 동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였다.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집단에 속한 귀국학생들은 출신 가정 배경 및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집단 내 편차가 심하고 따라서 한국 학교 적응 상태도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와 지역 사회 모두로부터 현지 문화와의 접촉을 이루었기 때문에([그림Ⅱ-3],[그림Ⅳ-1]참조) 두 번째 집단에 비해 빠르게 현지 문화로 동화 편입되어가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 학생들은 현지의 교우 관계도 다양한 편이었으며 한국인 교우 관계와 다른 인종의 교우 관계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양태를 보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이 집단에서 오히려 해외 거주 기간이 길었고 현지 학교를 오래 다녔던 학생들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 두 나라의 학교 문화에 대해 더 상대주의적 관점을 피력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은 해외 학교를 단기간 (3년 안팎) 다녀온 학생들보다 해외 학교의 단점을 좀 더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 학교의 좋은 점들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장기 거주했던 학생들은 한국의 학교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나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좋은 점으로 받아들였던 반면에 미국에서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학생들은 같은 현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였다. 아래에 인용된 명진과 현수의 한국 학교에 대한 평가는 같은 현상을 학생들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가를 잘 보여준다. 명진이는 4학년으로 미국에서 10년을 거주했던 학생이고 반면 현수는 미국에 3년을 거주한 후 돌아온 현재 5학년 학생이다.

연구자: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 미국 학교가 (한국 학교보다) 나쁜 점 많이지. 미국 학교에 대해서 나쁜 점 한 가지 그리고 한국 학교에서 나쁜 점 한 가지.

명진: 미국 학교에서 나쁜 점은요 거기는요...너무 쉽게 가르쳐주세요. 그

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영 안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똑똑해요. 그 게 한국 학교의 좋은 점이에요.

연구자: Yeah, [tell me] anything that you think is bad in American school. A bad thing in American schools and a bad thing in Korean schools.

명진: A thing that's bad in America is they like... teach very easily. So, like.... kids are like, just like doing nothing. But, in Korea they would do a lot of work. So, they're really smart. That's the good thing about Korean schools.

연구자: 한국 학교의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나쁜지 이야기해 볼까?

현수: 학교생활에서요?

연구자: 그래, 학교생활에서.

현수: 글썄요...미국에서는요...숙제를 많이, 많이 내줘요. 그러나 선생님들은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선생님들은 여전히 좋으신데 숙제는 좀 덜 주시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시켜요.

연구자: What you like, and, what you don't like, that kind of.

현수: In schooling?

연구자: Yeah, in schooling.

현수: Let's see. In the United States school they give a lot of, lot of homework. But, the teachers are nice. And, here... the teachers are nice as well, and they give less homework. But, they yell a lot at you. And, they make you work in school a lot more.

비영어권 국가에 주재한 두 번째 귀국학생의 집단의 경우는 현지 한인 공동체의 문화와 영미 중심의 학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뿐 실제 거주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는 거의 발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거주 국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해외 거주 한인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영미문화권으로 편입되어가는 현상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비영어권 지역의 한인 공동체는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거의 대부분의 한인 학생들이 그 영향권 안에서 학교 안팎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 학교교육 이후에 한국식의 과외나 학원 활동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거의 한국 사회가 유사하게 재현되는 비율이 첫 번째 집단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 학생들의 교우관계 역시 같은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다른 한인 학생들 혹은 아시안 계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인종이라는 벽을 넘어 교우 관계를 형성하려한 소수 학생의 경우엔 한국 학생들과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나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였다.

연구자: 그럼 두 학교 중 어느 학교가 힘들었다 혹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호: 제가 AAA가 사실 더 좋았는데요. BBB에서는 한국 애들이 워낙 많아서요, 한국 애들끼리만 다니게 돼 있어요. 외국 애들이랑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요. AAA오니까 한국 애들 수는 비슷한데, 제가 한국 애들이랑 많이 지내질 않아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습니다. 외국 애들 하고 많이 놀았어요.(중간에 인터뷰 언어가 국어에서 영어로 바뀌는 과정은 생략되었으며 아래 인터뷰 내용은 번역된 것임)

연구자: 그럼 두호가 AAA 학교로 옮긴 후 다른 한국 학생들과 좀 거리를 두려고 했을때-왜냐면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두호가 생각하기엔 그다지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지-, 두호 학교생활 하는 데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가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따로 다니려는 다른 한국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어렵다고) 느껴진 적은 없는지...

두호: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 애들(다른 한국인 학생들)이 별 상관하지 않더라구요. 그냥 그 애들은 저를 무시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같이 무시하고 그랬어요.

연구자: When you moved to AAA and you started to make distance from other Korean students—because you thought it was not really good for you for different reasons—, did you feel okay when you are in school? Because sometimes Koreans do not like other Koreans, you know, making such distance. Did you feel any kind of...

두호: At first, a little discomfort but when I got other friends, they don't really care. Koreans...they just ignored me. I ignored them, too, because I didn't like them personally.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다문화적 소양의 발달 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서로 다른 문화들과 생각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에 실존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문화 간의 비교나 평가를 해야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귀국학생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생활해 온 서로 다른 두 문화(혹은 세 문화) 사이의 차이점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예: 세준과 미희). 두 번째 단계는 발

3) 기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구 문헌에서 논의되어온 다문화적 소양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자신의 태도나 신념, 가치관, 생각 등이 문화가 다른 이들과 상호 작용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자기 반성적인 사고 능력, 둘째는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과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이나 능력이다(Pope & Reynold, 1997).

견된 두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단계로서 전체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그 중 한 부류는 한 문화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를 취했고(예: 지수와 대호) 다른 집단은 경험한 두 문화를 어느 정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였다(예: 명우와 명진). 즉 한국 학교와 해외 학교의 문화 둘을 어느 정도 동등한 선에 놓고 각각의 장단점은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두 문화에 대해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키운 소수의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 역시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다문화적 이해와 능력을 개발하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다(예: 주현과 지선).

본 연구 참여 중학생들 중 가장 성공적으로 한국 학교 생활을 적응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분석해 보면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반성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면서 겉의 행동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나 관점까지도 바꾸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아래에 인용된 지선이와 주현이의 이야기들은 귀국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생각을 돌아보면서 한국 학생들의 문화나 태도들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려는 관점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지선: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은요, 나대지 마라. 제가 미국에 6개월 있다가 왔을 때요 첫날 나쁜 첫인상(impression)을 준 적이 있는데 영어 시간에 너무 애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말해가지고 그래서 ‘I came from California’ 발음이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좋은 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욕을 먹었던 많이 좀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좀 자제하고 남한테 많이 양보하고 자기를 많이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게 여기서는 더 좋은 거 같아요.

연구자 : 주현이 학생이 이렇게 여러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지금 만약에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주현이한테 ‘주현아, 한국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잘 할 수 있을까, 한국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팁을 주잖아요? 어떤 팁을 주겠

어요?

주현: 일단 좀 더 음.. 융통성을 가지라고 해주고 싶어요. 너무 고지식하게 정의로운 걸 추구하지 말고. 한국사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착한 애들도 있지만 영악한 애들도 있고, 영악한 애들을 무조건 나쁜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 애들도 어른이 되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지식한, 융통성이 없어서 좀 안 좋은 애들한테 무조건 안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좋은 거 같고.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6. 문화적 및 국가적 정체성의 발달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해 알려진 것들을 일부 검증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학생들은 기존의 제3문화의 아이들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두 가지 점을 검증하였다. 첫째, 연령에 상관없이 귀국학생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일반 아이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자기 인식을 강하게 갖는다는 사실이다. 한국 학교에 적응을 매우 잘한 학생들조차도 일반 학생들과 자신들 사이에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과 문화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이 좋게 친구로 지낼 수는 있지만 결코 정체성을 공유하는 단계로까지는 이르기까지에는 어려움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는 이들 귀국학생들 중 많은 수가, 특히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가는 중학생의 경우에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 보다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이들 귀국학생들은 한 곳에서의 정착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아래 연주의 꿈에서도 나타나듯이 외교관,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 혹은 외국에서 직업을 잡아 사는 것 등이 이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이었다.

연구자: 연주는 자기가 커서 어디에 있을 거 같아요? 뭐 하고 있을 거 같아요?

연주: 어느 나라요?

연구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하고 싶어요?

연주: 외교관 되고 싶어요.

연구자: 왜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연주: 여행 하는걸 좋아하니까요. 여러 나라 가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의 귀국 학생들은 그 안에서도 세 가지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영어권 국가에 주재하였고 성공적으로 영어권의 학교 문화에 적응했다고 보여 지는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제3문화 아이들(TCK)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거나(예: 명진) 오히려 현지의 지배적인 문화에 가까운 정체성을 보였다(예: 지수). 반면 비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면서 국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경우 한국 문화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전형적인 제3문화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키운 경우와(예: 두호) ‘한국적’ 제3문화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아이들이(예: 주현, 명우) 있었다. 특히 ‘한국적’ 제3문화 아이로서 정체성을 발전시킨 학생들의 경우 국제 학교 안에서 서로 다른 학생 집단 간에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인종 분리 현상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했던 과정이 엿보였다.

주현: 몇 명 애들이 ESL 다닌다고 차별 하는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누가 차별했어요?

주현: 미국 애들은 차별 안하는데 다른 영어권 국가가 아닌 데서 왔는데 영어를 좀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더 놀렸던 거 같아요. 좀 무시하고 영어못한다고. 근데 또 괜찮은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명우: 외국학교는 약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느 면에선 조금씩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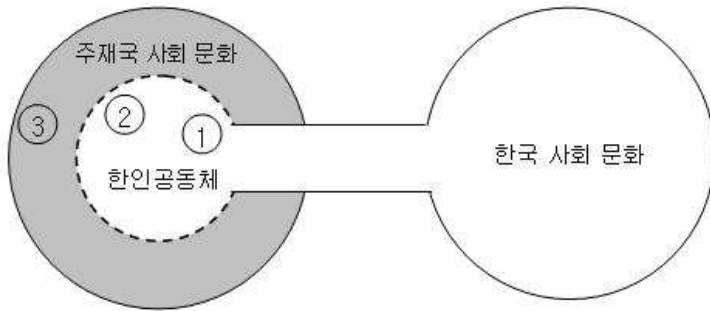
연구자: 어떤 차별이 있었어요?

명우: 인종차별이요. 그렇다고 백인 흑인이 아니라 파로 나뉘져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끼리 논다 그랬잖아요? 서양 애 들은 서양 애들끼리 놀아요. 베트남 애들은 베트남 애들끼리 놀고, 이렇게 나뉘져 버려서 그 부분에서 약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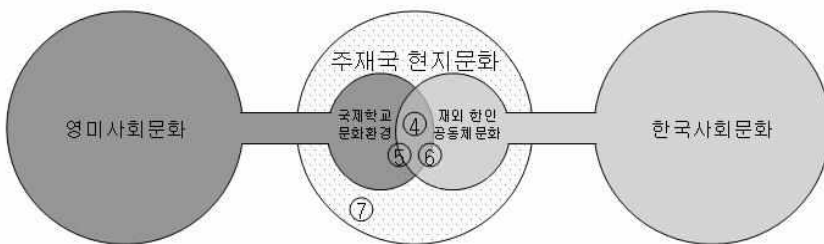
흥미롭게도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가장 강한 한국적인 정체성을 키우거나 보존한 학생들은 다문화 적응 과정의 양 끝 선상에 위치한 학생들이었다. 즉, 하나 이상의 문화 환경에 노출이 되어 기본적인 경험과 생각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문화적인 이해를 거의 발전시키지 못한 학생들이거나 아주 반대로 다문화적인 이해가 가장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반성적인 사고 역시 동시에 발전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 경우였다.

전반적으로 영어권의 나라에 거주했던 귀국 학생의 경우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현지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이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의 적응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Pearce, 1998).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동시에 발전시킨 경우는 한국 동포 사회가 상당히 큰 지역에서 그 한인 공동체 안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나 ([그림Ⅳ-1]에 표시된 ① 혹은 ②의 위치) 개별 가정 안에서 한국 문화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존재했던 경우였다. 그러나 반대로 영어권 지역에 살면서 지역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③의 경우와 같이 한인 문화 공동체로부터 빠져 나와 주재국 문화 속으로 동화되어가는 빈도도 높았다. 이는 거주 환경의 특성상 한인 공동체와 주재국의 사회문화 환경(학교환경 포함) 사이에 접촉면이 상당히 넓고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그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어권 지역에서 거주할 당시 이런 문화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귀국 학생들은 주어진 현지 문화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전시켰으므로 한국적 정체성을 찾아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그림 IV-1] 영어권 국가 지역 학교 학생의 문화 연계성



[그림 IV-2] 비영어권 국가 국제 학교 학생의 문화 연계성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현지 지역 학교를 다닌 경우 현지 문화에 연결된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이 개발되면서 한국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림 IV-2]에 나타난 ⑦은 그런 학생들의 문화적 위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앞 장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비영어권 국가의 국제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공동체라는 사회문화 공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⑦의 사례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④, ⑤, 혹은 ⑥이 표시된 문화적 공간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의 문화적 공간에 있었던 학생들은 ‘한국적’ 제3문화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는 반면, ⑤처럼

두 문화의 사이에 위치했던 학생들은 전형적인 제3문화 아이들로서 성장하는 기로에 있었다. ⑥의 경우는 해외의 국제학교에 다니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학교가 끼친 문화적 영향보다 한국 동포 사회의 문화 환경이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쳤던 학생들로 다문화인으로 성장하기에는 문화적 경험이 다소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제3문화 아이들 (Korean Third Culture Kids: KTCK)과 그들의 가정 대부분은 세계에 산재해 있는 한인 공동체라는 사회문화적 반경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한인 공동체가 결국은 학생들의 언어, 사회, 문화적인 발달의 터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Logan, Alba, & Zhang, 2002; Portes & Rumbaut, 2001). 많은 KTCK 가정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한인 가정들, 특히 다른 KTCK 가정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한인 공동체라는 문화적 반경을 벗어나지 않은 공간에서 해외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현지의 한인 공동체와 주재 국가의 사회문화적 환경 사이의 경계가 상당히 뚜렷해서 부모가 이미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재 국가의 문화(혹은 학교를 통해 들어오는 영미 문화)에 대해 상당한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기존의 한인 문화 공동체라는 반경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 KTCK 가정들은 서구 사회에서 거주하는 소수 인종 집단에게서 이미 나타난 분절화된 문화접촉현상(segmented assimilation)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Portes & Zhou, 1993). 서구의 학자들이 이미 발견하여 보고한 영국마을(British bubble) 혹은 미국마을(American bubble)의 현상, 그리고 이부치가 주장한 ‘작은 일본 공동체(Miniature Japan)’ 현상처럼 한국인들도 해외 각지에 독립적인 한국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재 국가와 직접적인 문화접촉면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부치의 폐쇄적 문화 공동체 모델([그림 II-2])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렇게 성립된 해외의 한인 문화 공동체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들이는 직접적인 통로를 구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한인 공동체 속에서 한국식의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 활동 등이 그대로 재현되고 현지 한국 학생들의 생활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영어

권 국가에 거주한 학생이나 가정의 경우는 현지 문화에 대한 접촉면이 좀 더 넓고 유동적이어서 개인의 위치에 따라 한국 문화 공동체나 한국 사회의 문화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의 한인 학생들이 한인 문화 공동체의 반경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이들 한인 문화 공동체는 KTCK 및 그들의 가정에게 한국과의 사회 문화적 유대감을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KTCK 학생들은 이 안정적인 사회문화적 소환경 속에서 다른 KTCK 학생들과 어울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우 및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어느 정도 한국과 연결된 문화적 정체성을 키울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종 간의 위계 구조가 뿌리 깊은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영미 문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부분 국제학교에서 소수 학생 집단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한국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적, 언어적 소외 경험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했을 경우 한인 문화 공동체라는 공간 안에서 유사한 처지의 한국인 TCK 친구들과 유대 관계를 통해 학교에서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소수 인종 집단의 위치를 가진 한인 학생들 간에 공유하는 강한 공동체의식은 때때로 이들에게 닥치는 사회적, 정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해외 한인 공동체가 가진 문화적 폐쇄성이 장기적으로 KTCK 학생들의 다문화적 성장을 지체시키거나 정체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주어진 한인 문화 공동체 안에서

4) 미국 내 소수 인종 학생들의 청소년기에 거치게 되는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 과정이 그들의 전인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널리 논의되어진 바 있다. 이것은 비단 한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흑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 인종의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Tatum, 2003).

일상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주재국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한국 학생들 간의 강한 언어적 정체성은 현실적으로 해외 학교에서 필수적인 언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시킬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한국에서 학교를 일정 정도 다니다가 해외로 나갔던 학생들의 경우 보통 2-3년간의 영어 적응 기간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습의 공백 기간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정규화된 교육과정을 일단 부여하고 난 뒤 선별 중심의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별 학생의 학습수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의 높이를 수시로 조절, 학생의 평가를 그에 맞추는 영미식 교육 제도에서 이들이 받은 국제학교 교육의 질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교수 학습 과정에서 경험한 언어의 장벽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의 학습량 감소는 이들에게 불가피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언어의 장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 학교에서 배운 학과목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교육 과정의 질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발견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제3문화 아이들(KTCK)이나 해외 장기 거주 이후 한국에 돌아 온 귀국학생 양 집단 모두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 결과가 가장 성공적으로 두 환경 모두에서 잘 적응한 것으로 보여 지는 학생들은 이미 상당히 선별된 가정환경, 즉 ‘다문화적·다언어적’ 가정들에서 배출된 학생들이었다(Ahn, 2008). 이들은 국제간의 교류나 이동이 잦은 연구 직종이나, 국제 이동이 필수적인 외교, 국제 통상 등의 부분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키운 자녀들이었다. 이들 가정들은 귀국 후 자녀들에게 선별된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충격을 완화했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한국적인 정체성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 귀국학생들 집단 가운데 한국 학교 적응이 가장 어려웠던 집단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약하거나 역이민의 사례로 귀국한 학생들이었다.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일상생활을 보호 감독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따라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자녀들이 겪는 문화적, 사회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학생들은 해외 거주 기간 중에 한국과 문화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한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언어 적응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해외 학교에서 가장 잘 적응했던 최상위권 학생들이 오히려 국내 적응에서 만족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에 이루어진 교육개발원의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을 떠날 당시에 가장 학업적으로 우수했던 학생들이 해외 학교에서도 가장 잘 적응했는데 귀국 후 한국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이들 집단이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은 앞 서 제시한 [그림 IV-1]에 ③으로 표시된 학생들 혹은 [그림 IV-2]에서 ⑦로 표시된 학생들 중의 일부로 주재국의 문화에 급속히 동화되어 그 안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킨 학생들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우수한 재원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한국 학교의 환경 속에서는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에 매우 어려운 학생들로 나타났다.

국제간의 깊이 있는 이해와 긴밀한 협력이 날로 중요해져 가는 21세기에 사회 성원 중의 일부가 다른 사회나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갖고 다문화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한국 학생들이 해외 학교에서 경험한 교육과정과 현재 한국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을 한국 교육 제도 안에 적절히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과정 그리고 교수 방법상의 문화적 차이를 감안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적인 정책과 행정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서울, 경기 지역에만 도해마다 일만명이 넘는 귀국 학생들이 들어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귀국 학생들을 위한 1-2년간의 적응 교육 과정 개발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 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국제 사회에 진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언어적, 문화적 능력을 가진 KTCK들이 바로 가장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집단임을 감안, 이들

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증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배려가 절실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 학생들의 해외 학교 적응, 귀국 후의 한국 학교 적응,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개발한 다문화적 소양과 문화적·국가적 정체성은 다양한 문화들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갈등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귀국학생 연구가 단순히 귀국한 학생들을 한국 학교나 또래 문화에 어떻게 잘 적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미시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날로 국제화, 다문화 되어가는 21세기에 차세대의 주역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 귀국학생들이 자신이 개발한 국제적, 다문화적 지식이나 경험을 단순히 개인의 발전이나 지역적인 계층 재생산의 목적으로만 쓰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조혜영 외, 2004; Yeoh, Huang, & Lam, 2005) 반성적인 사고나 좀 더 높은 차원의 가치 지향적인 사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Mitchell, 2003). 가치 지향적인 목적-국제적인 상호이해를 통한 세계평화나 정의의 실현 문제-이 부재하고 게다가 자신과 환경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들 한국의 제3문화 아이들이 장차 진정한 의미의 ‘건설적인 다문화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정책제언

1) 귀국청소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조기유학 현상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현상이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한 강조와 개인의 경쟁력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관심이 있는 한 외국에서 수학한 경험을 갖고자 하는 인구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귀국청소년의 적응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귀국청소년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글로벌화해가는 세계 흐름 속에서

외국에서의 문화를 경험한 청소년의 수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청소년의 향후 발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은 청소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조기유학 청소년과 귀국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유학 국가, 체류기간, 조기유학의 목적, 조기유학 시 체류한 장소, 조기 유학에 대한 만족도, 조기유학 목적의 달성도 등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조기유학 청소년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조기유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기유학에 대한 자료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

조기유학은 청소년 당사자에게나 학부모에게나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 학령기에 외국에서 수학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여러 가지 변수를 심사숙고한 후에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청소년이 조기유학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기유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 귀국 후에 부딪힐 수 있는 적응 상의 문제들, 귀국 후에 적응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들에 대하여 귀국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자료를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조기유학을 결정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주로 사교육 기관에서 조기유학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으므로, 학교로 그 수요를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 조기유학과 관련된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귀국학급의 확대 실시

조기유학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귀국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귀국청소년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귀국반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도 고

등학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교육과정과 외국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귀국청소년이 바로 일반학급으로 투입되는 것 보다는 일종의 완충기간을 보낼 수 있는 귀국학급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귀국청소년의 학업 수준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 교사의 영입이 시급하다. 귀국반은 체류국에 상관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주로 영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비영어권에서 체류한 후 귀국한 청소년의 경우는 귀국반에서 조차도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유학 기간별, 국가별로 세분화된 귀국반의 운영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조기유학 제대로 알기.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 김혜순(2009). 해외 귀국 청소년과 해외 유학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21, 78-108.
- 임재훈(2005). 미국 현지 조기 유학의 사례 분석. 26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정재욱, 주은선(2003). 해외 귀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질적 분석을 통한 귀국 중학생들의 경험 파악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29-351.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싱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2.
- 조혜영·최원기·이경상, Nancy Abelman.(2007).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기유학을 결정 하게 되는가?-미국 소도시 유학생의 사례. 청소년학연구, 115-143.
- 최진숙(2007). 초등단계에 영어 조기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청소년학연구, 14(4), 115~143.
- 한국교육개발원(2005). 조기 유학: 국민 의식과 실태. 2005 26차 KEDI교육정책포럼.
-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6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 Ahn, S. Y. (2008). *Early study abroad' Korean youth in a Midwestern city: Their ideas and experiences of education and the larger society of the U.S* A paper presented at the AAPS/EAPS symposium. The University of Urbana- Champaign, IL.
- Carlson, D. (1997). *Being a global nomad: The pros and cons*. Available at: <http://worldweave.com/procon.htm> (accessed November 15, 2009).
- Charmas,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Thousands Oaks, CA: Sage Publication.
- Cottrell, A. B. (1999). *Personal manifestations of childhood border crossings: Identity and personal traits of adult TCKs*. Paper presented at Phi Beta Delta 1999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 Ezzy, D. (2002).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London: Routledge.
- Fail,H., Thompson, J., & Walker, G. (2004). Belonging, identify, and third culture kid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3(3), 319-338. DOI: 10.1177/1475240904047358

- Fry, R. (2007). Perspective shifts and a theoretical model relating to kaigaishijo and kikokushijo, or third culture kids in a Japanese context.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6, 131-150.
- Goodman, R. (1990). *Japan's International Youth: The emergence of a new class of schoolchildre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Logan, J., Alba, R. & Zhang, Z.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99-322.
- Mitchell, K. (2003). Educating the national citizen in neoliberal times: From the multicultural self to the strategic cosmopolita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8(4), 387-403.
- Park, R. E. (1928). Human migration and the marginal m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 881-93.
- Pearce, R. (1998). Developing cultural identity, in M. Hayden and J. Thompson (eds) *International edu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 (pp. 44-62). London: Kogan Page.
- Pollock, D. C. & Van Reken, P. E. (2009).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among worlds*. Bost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 Pope, R. & Reynolds, A. (1997). Student affairs core competencies: Integrating multicultural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 266-277.
- Portes, A. & Rumbaut, R. (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 & Zhou, M. (1993).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530, 74-96.
- Schaetti, B. (1996). Phoenix rising: A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C. Smith (ed.) *Strangers at Home: Essays on the effects of living overseas and coming 'home' to a strange land* (pp. 177-88). New York: Aletheia.
- Tatum, B. D. (2003). *Why are all black kids sitting together in the cafeteria?: and other conversation about race*. Basic Books: New York.
- Tyler, K. M., Uqdah, A. L., Dillihunt, M. L., Beatty-Hazelbaker, R., Conner, T. Gadson, N., et al. (2008). Cultural discontinuity: Toward a quantitative investigation of a major hypothesis in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37(5), 280-297. DOI: 10.3102/0013189X08321459.
- Smith, C. D. (1991). *The absentee America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Useem, J. (1963). The community of man: a study in the third culture. *Centennial Review*, 7, 481-98.
- Yeoh, B., Huang, S., & Lam, T. (2005). Transnationalizing the Asian family: Imaginaries, intimacies and strategic intents. *Global Networks*, 5(4), 307-315.

부 록

1. 연구 참여 학생 목록
2. 귀국학생 인터뷰 녹취록

부록1. 연구 참여 학생 목록

이름	성	학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체류국	학교 유형
E1	남	4	회사원	주부	뉴질랜드	공립
E2	남	5	교수	패션 디자이너	미국	공립
E3	여	5	저널리스트	상점 직원	미국	공립
E4	남	5	교사	교사	캐나다	공립
E5	남	6	공학 기사	주부	미국	공립
E6	남	4	목사	주부	미국	공립
E7	여	5	회사원	주부	미국	공립
E8	여	6	회사원	교사	싱가포르	국제
E9	남	4	은행원	은행원	미국	공립, 사립
E10	여	4	N/A	N/A	중국	국제
E11	남	5	교수	주부	싱가포르	국제
E12	남	5	회사원	주부	독일	공립
E13	남	5	회사원	주부	미국	공립
E14	남	6	외교관	주부	뉴질랜드, 터키, 일본	국제
E15	남	4	은행원	작가	헝가리	국제
E16	여	5	회사원	주부	미국	공립
E17	여	4	의사	법조인	미국	공립
E18	여	5	사업가	사업가	일본	공립
E19	남	6	회사원	회사원	중국	공립
E20	여	5	치과의사	교수	미국	공립
E21	여	6	사업가	주부	미국	공립
E22	여	5	사업가	사업가	호주	공립
E23	남	5	회사원	주부	미국	공립

이름	성	학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체류국	학교 유형
M1	여	9	사업가	은행원	홍콩	공립, 국제
M2	여	9	은행원	주부	싱가포르, 베트남	국제
M3	남	9	회사원	주부	베트남	국제
M4	남	9	회사원	주부	독일	국제
M5	남	9	의사	교사	필리핀	공립
M6	여	7	의사	주부	미국	공립
M7	여	7	교수	교수	미국	공립
M8	여	7	저널리스트	주부	미국	공립
M9	여	7	공무원	주부	프랑스	공립, 국제
M10	남	7	사업가	주부	미국	공립
M11	남	7	회사원	주부	미국	공립

부록2. 귀국 학생 인터뷰 녹취록(1-8)

1) 김두호 (중학생)

연구자: 먼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두호: 네.

연구자: 미국에서 연구를 하러 잠깐 왔고 다음 주에 나갈거예요. 두호가 자기소개를 좀 해볼래요?

두호: 저는 김두호라고 하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말 쯤에 독일로 갔습니다. 5년 8개월 정도 있다가 이번 2009년 초에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연구자: 두호는 그쪽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한국말을 안 잊어버렸네요?

두호: 네.

연구자: 어떻게?

두호: 그냥 집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생활하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한국 애들 한 두 명 정도 친하게 지냈고요.

연구자: 두호가 가장 좋아하는 것 혹은 하기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 일까요?

두호: 하기 좋아하는 것이면 친구들과하고 말하던지 아니면 같이 농구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하고 같이 지내는 그 자체가 재밌어요.

연구자: 그럼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자체를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면 농구도 하는 것 같고. 또 뭐해요?

두호: 농구도 하고 또 같이 게임을 하고...

연구자: 그럼 두호가 싫어하는 것은?

두호: 떠오르는 건 없는데...

연구자: 가장 하기 싫은 것, 끝까지 미루고 안 하려고 하는 것.

두호: 글썄요.... 잘 생각이 안나요.

연구자: 두호가 독일에 갔다는 것 보면 부모님 가운데 아니면 가족 가운데

테서 독일에 계셨나봐요?

두호: 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연구자: 주재원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이셨어요 아니면..?

두호: 아니요. 회사직원.

연구자: 회사로 가셔서 5년 8개월이라면 상당히 오래 계셨네요. 한 지역에 계셨어요? 어디?

두호: 0000(도시이름)라고...

연구자: 그럼 어떤 종류의 회사에서 근무하세요?

두호: 0000.

연구자: 어머니는 일을 하세요?

두호: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연구자: 동생이나 형제들 있어요?

두호: 네. 남동생 한명.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연구자: 남동생은 성격이 좀 어때요?

두호: 그냥 귀여워요.

연구자: 두호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두호: 네.

연구자: 그럼 그 가족들 이외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나요?

두호: 네. 지금은 없어요.

연구자: 그럼 옛날엔 있었나요?

두호: 아니요. 원래 없었어요.

연구자: 그럼 이 가족들 가운데, 아빠, 엄마, 동생,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가족은 누구예요?

두호: 다 비슷한데, 꼭 한명을 얘기하자면 동생이요.

연구자: 동생이랑은 서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두호: 네.

연구자: 동생도 두호처럼 한국말 잘 해요?

두호: 저보다 약간 서툴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1학기 끝나자마자 바로 갔기 때문에 약간 서툴어요.

연구자: 예전에 독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2학년 말 까지 했었으면 그 기억이 좀 나요? 한국 학교에 대해서? 어느 학교 다녔었어요?

두호: OO초등학교라고. OO(지역이름)에.

연구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컸다던가, 이상한 선생님이 계셨다던가..

두호: 아니요. 선생님들 다 저한테 친절하셨던 것 같은데.

연구자: 학교도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두호: 네. 좋았어요.

연구자: 선생님이 독일의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독일에서는 여러 종류의 학교가 있거든요. 어떤 종류의 학교에 다녔어요?

두호: 국제학교요.

연구자: 그 국제학교 크기는 얼마나 됐나요?

두호: 천명에서 천삼백 명 정도? 그 학교가 OOOO(독일 도시 이름) 지역에서 작은 branch가 있어서요.

연구자: 캠퍼스가 두 개 있는 학교였어요?

두호: 네.

연구자: 보통 국제학교는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있죠?

두호: 근데 여기는... 제가 국제학교를 두 곳에 다녔어요. BBB라는 곳하고 AAA라는 곳인데요. 한 곳은 더 영국식으로 가르쳤구요.

연구자: 어느 쪽이?

두호: BBB. 그리고 AAA는 원래 미국 base... 그니까 이용한 거라서 미국 애들이 많았어요.

연구자: 하나는 영국식이고 하나는 미국 관례를 따랐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그걸 알았어요?

두호: BBB, 영국 식에서는 한반에 모여서요... 특별히 영국식이라고 그 런건 아닌데 한반에 모여서 한 반에서 계속 하는데요, AAA라는 곳에서는 똑같은 반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homeroom에서 다하는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요.

연구자: 그럼 어느 학교에 처음 있었어요?

두호: BBB.

연구자: BBB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두호: 4학년...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네요. 외국에선
6개월 일찍 시작하니까 4학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연구자: 몇 학년 까지 있었어요?

두호: 7학년 까지.

연구자: BBB에서?

두호: 네. 그 다음에 AAA에서 8학년부터 9학년까지.

연구자: 그럼 들어가서 학년을 낮추고 그러지 않았네요?

두호: 네.

연구자: 그런 case들이 자주 있는데

두호: BBB에서는 그냥 그대로 갔는데 AAA에서는 많은 제 또래 애들이
한 학년 낮춰서 들어갔습니다.

연구자: 근데 두호는 이쪽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때 학년을
낮추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두호: 그렇죠.

연구자: 그 학교가 상당히 큰 학교였는데 첫 번 째 학교가 천 명 정도
됐어요? 아니면 양쪽 다?

두호: BBB는 천명이 됐는데요 AAA는 워낙 많아서.

연구자: 더 컸어요?

두호: 네. 천 이백 명 정도? 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 왜 옮겼어요?

두호: 엄마가 그냥 옮기신 건데요. 사실 새로운 curriculum을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BBB는 시험위주여서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시험이 있어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BBB는 homework, 숙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런 거에서
더...

연구자: 그럼 AAA는 숙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스타일이었고, BBB

는 시험을 봐서 주로 했고, 숙제 같은 건...

두호: 숙제는 grade에 전혀 안 들어갔어요.

연구자: 엄마는 그럼 조금 다른 걸 해 봐라 해서 한 거예요?

두호: 네.

연구자: 영어도 배우는 게 조금 달랐나요?

두호: BBB에서는요 grammar, reading comprehension 하고 writing 하고
다 나눠서 (했고요) BBB에서는 그걸 이제 다 뭉쳐서 essay 쓰기
만 계속 했어요. BBB는 맨 처음에 있었을 때가 grammar... 이제
배우고 배운 걸 이제 AAA에서 써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구자: 그럼 두 학교 중 어느 학교가 힘들었다 혹은 좋았다 이런 생각
이 들었어요?

두호: 제가 AAA가 사실 더 좋았는데요. BBB에서는 한국 애들이 워낙
많아서요, 한국 애들끼리만 다니게 돼 있어요. 외국 애들이랑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요. AAA오니까 한 국애들 수는 비슷한데,
제가 한국 애들이랑 많이 지내질 않아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을려
고 했습니다. 외국 애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연구자: BBB에서 student composition이라고 하죠? Demographic이
어떻게 됐어요 보통? 한국 애들이 (많았어요)? 독일 애들도 있었
어요?

두호: 네. BBB는 이제 부자.. 국제학교니까 좀 부잣집 애들이. 독일 애들
은 보통 다 부잣집 애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보통 회사에서 다 지
원을 해주기 때문에 평범한 애들이 있고.

연구자: 나머지는 상사 주재원들이었다?

두호: 네.

연구자: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두호: 그냥 반반.

연구자: 독일 애들이 반 정도, 상사들 반 되고? 이 상사들 주재원들은 각
나라에서 왔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특별히 많았던 그룹이 있었
어요?

두호: 한국 애들이 좀 많았구요.

연구자: 한국 애들이 좀 많은 편에 속했어요?

두호: 네.

연구자: 몇 명 정도 됐어요?

두호: 반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 학년에는 열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됐었어요.

연구자: 그 학생들 그룹 중에서는 큰 그룹에 속했나보죠?

두호: 꽤 큰 그룹이죠.

연구자: 그 다음에는 다른 유럽 상사 주재원 애들이 있었을 것 같고..

두호: 유럽 안에서는 안 오더라고요. 스웨덴이라든지 그런데서 오는 애들 있는데 거의 다 인도, 중국.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 애들 꽤 있었습니니다. 주변 폴란드라든지 프랑스에서는 오는 애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연구자: AAA는 거기에 비해선 어땠어요?

두호: AAA는 제가듣기로는 독일 애들이 줄이고요, 외국 애들을 더.. 국제학교니까요. 이번에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 애들이 전체 학교에서 27%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오면서 20%로 낮추고, 독일 애들은 들어오려는 걸 막고 외국에서 오는 애들에게 자리를 주려고 하는.

연구자: 그럼 외국인들은 BBB하고 비슷하게 그런 거 었어요 아니면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두호: 미국인들이 제일 많았구요. 그리고는 다 비슷비슷 한 것 같아요.

연구자: 한국학교에 비하면 이 두 학교의 비슷한 점들이 있었어요? 지금 두호는 한국학교도 다녀보고 외국학교도 AAA, BBB 다녀보고. 그럼 그룹을 지어보라고 하면 어떤 것하고 어떤 것이 좀 닮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호: BBB하고 AAA.

연구자: 거기에서 한국 친구들이 좀 몰려다닌다고 했었죠? 두호도 처음에 그 친구들이랑 어울렸을 거고,

두호: 네.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연구자: 그럼 거기서도 ESL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두호: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영어하고 독일어 그 자체를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regular 이렇게 나눠가지고 애들 수준 별 이렇게 반을 나눴어요.

연구자: 그럼 처음에 beginner부터 시작해서? 그럼 한국에서 온 애들은 beginner반에 많이 있었겠네요. 그 반에는 한국학생들 수가 많았겠네요.

두호: 꽤 있었어요.

연구자: 반 이상 됐었어요?

두호: 반이 좀 작아서 한 반에 한 네 다섯 명 정도? 근데 거의 다 한국인들이었어요.

연구자: 올라갈수록 intermediate, advanced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올라가면서 한국인들 수가 좀 줄었어요?

두호: 아니요. 같이 올라갔으니까.

연구자: 근데 중간에 떠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두호: 네.

연구자: Regular반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영어가 자기 언어였던 애들 반으로 (나중엔) 들어가는 거죠? 그러는 과정이 얼마나 걸렸어요?

두호: 1년에 한번 씩 올라가서 3년 정도 걸렸어요.

연구자: 그럼 그 영어를 배우는 intermediate (English) 이런 건 그 과목만 그런 거 였어요 아니면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했어요?

두호: 영어는 advanced 여야지 과학하고 사회를 들을 수 있어요. 영어가 딸리면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advanced부터 사회랑 과학을 배울 수 있게 했구요.

연구자: 그럼 advanced 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두호: 한 2년 정도?

연구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독일어하고 영어를 배우는 데에 보냈겠네요.

두호: 네.

연구자: 영어에 시간을 더 많이 썼어요? 독일어에 시간을 더 많이 썼어요?

두호: 비슷비슷하게.

연구자: 어느 것이 더 어려웠어요?

두호: 독일어가 약간 더 어려웠어요.

연구자: 이 학교에 가서 AAA가서 그래도 힘든 점이 있겠지만 BBB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였어요?

두호: 의사소통이 안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국 애들하고… 한국 애들이 외국 애들하고 전혀 말을 안 하고, 애들이 온다 해도 썩고 그래서 외국 애들하고 만날 기회도 없었고…

연구자: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두호: 우선 말이 안 되는 것하고 한국 애들은 자기…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국 애들끼리 같이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두호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두호: 네. 7학년인가 그 때부터 AAA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한국 애들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한국 애들이랑 너무 지내다 보니까 다른 culture 그런 게 배우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외국인들이랑 같이 지내봐야 되겠다.

연구자: 두호는 영어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두호: 영어는 약간 더 편한데 그냥.

연구자: 선생님이 영어로 좀 물어볼게요. When you moved to AAA and you started to make distance from other Korean students--because you thought it was not really good for you for different reasons--, did you feel okay when you are in school? Because sometimes Koreans do not like other Koreans, you know, making such distance. Did you feel any kind of…

두호: At first, a little discomfort but when I got other friends,

they don't really care. Koreans... They just ignored me. I ignored them too because I didn't like them personally.

연구자: So, after you moved to AAA, you tried to make more friends with different backgrounds. Okay. Were there any Korean friends you were close to at AAA, as well?

두호: Yes. Umm... Just one.

연구자: Tell me about him.

두호: He was also kind of not in... He was between the foreign group and Korean group. He was pretty neutral. He was good to Koreans and he was good to other friends.

연구자: Were there any other Korean students like you who were trying to play with other foreign friends? Or were you the only one trying to do that?

두호: Yeah. Me and the other friend I mentioned.

연구자: When you returned to Korea, what was the hardest part?

두호: I was scared of being left out late because I am from somewhere else. I had to be careful because I heard the stories of other friends in issues because it is not reasonable.

연구자: But you came to this school. And especially this classroom has lots of students with the same background as yours. Did you find that kind of issue here?

두호: No, it was not issue at all.

연구자: What did you find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your international schools in Germany and this Korean school?

두호: In Korea, education—it is like a priority. I don't have much free time. But, in Germany my friends would go golfing and paragliding every weekend. They all have their hobbies and

they don't really care about school works, homework. But, here, you are pretty isolated. You can't do just whatever you want. Education comes first. Korean kids I think very... they are pretty limited.

연구자: Do you think that is problem here?

두호: Yes, I think it is problem.

연구자: 두호가 친했건 친하지 않았건 간에 나랑 생각이 비슷했다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다면?

두호: AAA로 갔을때 처음으로 사귀었던 애가 있는데 저랑 똑같이.. OOO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치관이 똑같다고 해야 되나?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도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애기 등을 토론식으로 말했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개가 저한테 저녁을 사줬는데요. 먹으면서 두 시간 동안 말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말해보고. 친구들하고 경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구요.

연구자: 이 친구는 독일 친구였어요?

두호: 반 독일, 반 스페인. 스페인어도 할 수 있고 영어, 독어, 불어, 4개 국어 할 수 있어요.

연구자: 한국에 왔을 때 두호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두호: 수업시간에 발표를 안 한다던지 나선다고 해야 되나? 나서서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 거. 독일에서는 나서서 선생님을 도와주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데요, 여기에선 그런 애들을 오히려 왕따시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눈치를 살피면서 하는 게... 제가 뭐를 하던 애들 눈치를 살피면서 해야 되구요.

연구자: 여기서 그렇게 적극적인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죠? 특히 친구들이.

두호: 네.

연구자: 그 이외에 또 어려웠던 점들이 있어요?

두호: 고등학생들이 와서 어리다고 욕하는 거,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그 자체가 약간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선생님들한테도 반말하고 그랬으니까 약간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중학교 3학년들이 중학교 1학년들을 괴롭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연구자: 다른 공부하는데는 크게 어려운 점을 없었어요?

두호: 국어하고 수학이 가장 어려웠죠. 수학이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어렵다고 인정하잖아요. 국어도 논술이라든지 그런 건 (어려웠구요). 독일에서 국어는 전혀 안했으니까요.

연구자: 그래도 두호는 그렇게 오래 있었던 친구들에 비해선 한국어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두호: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한국어로 꼭 일기 쓰라고 하셔서요. 오래 가진 않았어요 일기 쓰는 것도. 특히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셔서요, 한국 책.

연구자: 독일도 사실 수학교육과정이 쉬운 건 아닌데 아마 국제학교 쪽에 있어서...

두호: 약간 쉬워진 거죠.

연구자: 그럼 장래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기가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두호: 지금 생각한 게 대학교수거든요. 역사과에서.

연구자: 왜 그런 게 되고 싶을까요?

두호: 어렸을 땐 그냥 경찰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젠 공부하다 보니 제가 역사를 진짜 좋아하는 걸 알게 되서. 다른 과목들은 한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역사는 한번 듣고 나면 바로 이해가 되고 외워지거든요. 진짜 내가 역사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냥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잘하구요 그래서.

연구자: 역사책도 상당히 많이 읽고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어디서 살고 싶단가 그런 건?

두호: 독일 다시 돌아가서 작은 마을에 살고 싶어요.

연구자: 작은 마을에 교수로 살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두호: 왜냐하면 한국 와 보니까요, 독일에서도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요. 한국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대도시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차
량도 많고 그런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연구자: 형제가 있다고 했는데 남동생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호: 네. 독일은 아니지만 유럽 어딘가 가서 직업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나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연구자: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호: 부모님은 뭐 반대 의견은 없으시구요. 원하면 그렇게 해라고 하세요.

연구자: 만약에 여기에 두호친구가 독일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가시게 되어서, 두호한테 두호야 네가 있어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얘기를 해달라고 제언을 해
달라고 하면 suggestion을 해 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두호: 적극적으로 친구 많이 만들고. 거기서 문제점은 제가 보니까 거기
학원이 있거든요? 다 학원가고. Conference 가보면 선생님들이
한국 애들은 왜 수업시간에 조냐고 물어보세요. 조용해요 한국 애
들은. 다른 애들은 발표하는데 한국 애들은 조용히 있고 시험은 잘
보면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조용한데
항상 점수는 잘 받으니까. 졸고 있는데. 저는 학원(을) 독일에서
전혀 안 다녀 봤거든요. 한국 와서 처음 학원 다녀보고.

연구자: 독일 가서도 애들을 학원에 10시까지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셨
어요?

두호: 한국 수학하고 국어 논술 많이 안 까먹게 하려고 많이 보내더라구
요.

연구자: 본인은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했어요?

두호: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훨씬 줄어
들고.

연구자: 그럼 반대로 독일에 있는 친구가 두호처럼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두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두호야 네가 한국에 먼저 와서 지내 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적응을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해주겠어요?

두호: 반대로 조용히 지내고, 친구를 만드나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가장 나을 거 같아요. 적어도 초기에는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친구들 많아지면 그 때 자기 본능[본생각]을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연구자: 자녀를 독일로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두호: 학원 보내지 말고 거기서 독일 애들이 하는 것처럼 hobby를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걸 push해주고 네 그런 거.

2) 양명우 (중학생)

연구자: 명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명우: 전 베트남에서 왔고, 베트남에서 4년 살고 한국에 왔고. 베트남에 있을 때 CCC (지역 이름) international school 거기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 2년 하고 온 거죠.

연구자: 그럼 명우학생은 몇 학년 이예요?

명우: 지금 중3.

연구자: 명우에 대해서 재미있는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명우가 좋아하는 거 몇 가지하고 싫어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 몇 가지 만 얘기 해 볼까?

명우: 딱히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게 없는데...

연구자: 하기 좋아하는 거.

명우: 하기 좋아하는 건 노는 거. 쉬는 거. 싫어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 거. 나에 대해서.

연구자: 엄마가 잔소리 하는 거?

명우: 네. 근데 저희 집에선 잔소리 많이 안하죠. 자유롭게 이렇게.

연구자: 다른 집에 비해서 그런 거 같어요?

명우: 네.

연구자: 놀거나 쉴 때 주로 뭐해요?

명우: TV 보든가 노래를 듣든가 인터넷 들어가서 뭐 하죠.

연구자: 가족이 어떻게 돼요?

명우: 저 있고, 동생 있고, 부모님 있구요.

연구자: 동생이 여동생? 남동생?

명우: 중 2. 여동생.

연구자: 그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네?

명우: 네. 연년생이요.

연구자: 둘이 사이가 좋은 편이예요?

명우: 사이가 확 좋을 때 있고, 확 나쁠 때 있어요.

연구자: 지금 명우는 중학교 3학년이고 동생은 중학교 2학년이고. 그럼 비슷하게 같이 000 (도시이름) international school 다니고 그랬겠네요.

명우: 네.

연구자: 000 (도시이름)에 갔던 이유가?

명우: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일 때문에 파견 오신 거예요.

연구자: 그럼 회사일 때문에 4년간 파견을 나가셨어요? 아니면 더 먼저 나가셨다가 나중에 가족들이 간 거예요?

명우: 한 달 정도 차이가 났는데, 같이 갔죠 거의.

연구자: 아빠는 어떤 회사 다니시는지?

명우: DD (회사 이름).

연구자: 어머니는 직장이 있으셨어요?

명우: 없으셨어요. 주부하시고.

연구자: 한국에 있을 땐 어디서 살았어요?

명우: 저기 000동 00마을이요. 그래서 00초등학교 다니다가 거기서 5학년 때 000 (해외 거주도시이름)으로 가서 5학년, 6학년 과정 마치고 거기서 7학년, 8학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9학년 하다가...

연구자: International school은 kindergarten에서 12학년까지 다 있어요?

명우: 다 있어요. 저희 학교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보통 다른 학교들 보면은 우리 학교처럼 학급이 되게 많은데 저희 학교는 세 학급 밖에 없고 한 반 수가 스무명 정도 되니까.

연구자: 한 학년에 한 60명 정도 있었고 그러면 한 700명 정도 되는 학교였다고 봐야겠네요?

명우: 700명은 아니고 좀 더 많았죠. 유치원 애기들부터 12학년 까지 다 있었으니까.

연구자: 이 학교가 International school이었는데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이었어요?

명우: 대부분 다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주로 한국 애들이 약간 많았어요. 000 (도시이름) 시내가 한국인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게다가 요즘 000 (도시이름)이 한국에서 개발 들어오는 지역이 많아서 저처럼 부모님께서 파견 오셔서 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 외교 job 때문에 오는 애들도 있고. 단순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연구자: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얼마나 되고 베트남 어린이는 얼마나 되고?

명우: 제일 많은 게 한국 애랑 베트남 애거든요. 한국애가 15%예요. 베트남애가 거의 11%, 10%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있구요.

연구자: 주로 어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애들도 좀 있었나요?

명우: 네. 영국에서 온 애들도 있고 미국에서 온 애들도 있고 해요. 근데 대부분 유럽계, 서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럽계에서 많이 와요. 네덜란드랑 독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연구자: 학교 분위기는 어땠어요?

명우: 수업을 선생님이 반에 있고, 선생님의 개인 방이 있고 저희 학생들이 homeroom에 있다가 중학교 때는 수업을 시작하면은 아, 초등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있고 담임선생님들이 한국학교처럼 무슨 과목, 무슨 과목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또는 컴퓨터실 가서 프로그래밍같이 장난스럽게 노는 거 이런 걸 많이 했구요. 5학년 때 되면은 마지막 마칠 때 exhibition이란 걸 해요. 그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어떤 topic을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멋진 포스터를 만들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presentation을 해야 돼요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은,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면은 수업을 학생들이 옮겨 다니면서 해요. DDD (다른 국제 학교 이름)라는 학교가 있고 저희 학교처럼 000(도시이름) city international 학교가 있었는데 DDD 같은 경우는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정해가지고

한대요. 영국계 학교거든요.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하고 수준별 수업을 하는데 저희학교는 그것까진 아니고 그건 고등학교 들어가서 choice 할 수 있게 되고 저희학교는 중학교 땐 이제 저희가 단순히 선생님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다른 반에 가서 다른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구자: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어떤 수업이 있었어요?

명우: Science, Humanity, Vietnamese, English, Music, Drama, P.E., Enrichment, French.

연구자: French도 했어요?

명우: 네. 근데 French는 EAL 과정을 습득한 애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연구자: EAL이라고 하면은 ESL 같은?

명우: 네.

연구자: 명우학생은 EAL과정을 얼마나 했어요?

명우: 제가 많이 한 편이에요. 한 3년?

연구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좀 하고?

명우: 네. 근데 EAL 과정을 나오라고 했는데 French과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애들이 이미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수준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EAL 수업을 듣긴 했어요.

연구자: 애들이 English, French, Vietnamese 까지 하면은... 이건 선택 과목이었어요?

명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선택과목은 Enrichment 있는데 그건 클럽활동같이 하루에 2 교시를 하는데 클럽 활동처럼 자신이 정해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반에 지정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요가 있고 cooking있고 Vietnamese drum있고 Scottish dance 있고 끌고루 있어요.

연구자: 방과 후 활동 비슷한 그런 거군요? 이렇게 많은 걸 할려면 학교가 몇 시에 시작했어요?

명우: 베트남은 아침이 되게 빨라요. 빠르다는 게 사람들이 아침부터 활동하는 게 많아요. 대략 7시? 7시 4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서..

연구자: 몇 시에 끝나요?

명우: 3시.

연구자: 학교에서 선생님은 주로 어떤 분이셨어요?

명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요 대부분 다. 베트남어 선생님 빼고는 전부 다 해외에서 오신 선생님들이예요.

연구자: 유럽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나…?

명우: 다 유럽. 유럽 쪽 많고, 미국 있고. 저희 학교가 Australia 학교거든요. Australian이 제일 많았어요.

연구자: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어땠던 걸로 기억해요? 한국선생님들과 비교했을 때?

명우: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한국선생님들처럼 딱딱함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두루두루 있죠. 선생님마다 다 다르니까.

연구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어요? 나에게 참 잘해준 선생님이라든가?

명우: 음…. 딱힌 없는데

연구자: 그럼 친구들에 대한 걸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여기 지내면서 많이 사귀었을텐데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은 누구였어요?

명우: 한국 애였죠.

연구자: 거기 한국 애들이 많았으니까 한국 애들을 사귀었어요?

명우: 네.

연구자: 가장 가까웠던 사람 한 두 사람만 얘기해볼까요?

명우: 신욱이 있고, 재욱이 있고, 한국 애들 몇 명 있고, 외국 애들은 베트남 애랑 많이 친했어요 제가. 많이 친했던 편이에요 한국 애들에 비해서.

연구자: 왜 그랬을까요?

명우: 제가 밴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밴드하고 노래들은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랑 친해졌어요. 굳이 뭐 밴드해서 친해진건 아닌데 그 밴드를 목적으로 가끔씩 만나고 이러다 보니

까 친해졌어요.

연구자: 베트남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어느 언어로?

명우: 영어요. 저희학교가 3교시를 연속으로 들어요 쉬는 시간 없이. 그 대신 3교시하고 recess가 30분 장시간으로 있고, 또 4교시하고 점심 먹고 2교시 하는 건데, recess 때 시간이 많으니까 밴드연습도 하고 그런거죠. 한국은 10분씩 있으니까 별로 시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한국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명우학생이 한국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영어도 열심히 했지만 처음에 가서는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명우: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영어를 되게 못했어요. a,b,c,d 외울 정도 밖에 안됐어요. 근데 가니까 금세 습득은 하더라고요. 듣는 부분에서는 금세 습득을 하고, 가서 힘들었던 점은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가끔씩 못알아 들을 때도 있고 과제가 4학년이다 보니까 뭘 하고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reflect하는 게 많았어요.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어려웠죠.

연구자: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는데...

명우: 네. 쓰기. 느낀 점을 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웠던 거 같아요.

연구자: 학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어요?

명우: 거기가 한국학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학원을 가기도 했고. 제가 수영반이었어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구자: 한국학원은 어떤 학원을 다녔어요?

명우: 논술 있고 영어 있고 한국수학 있는데 수학은 과외로도 했고. 논술 이랑 영어를 많이 했죠. 토플 주로.

연구자: 명우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올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계속 공부를 시키셨어요?

명우: 네. 저희는 파견으로 온 거니까 회사에서 언제 돌아오라고 할지 모

르니까 준비를 많이 해놔야했죠.

연구자: 거기 있던 명우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명우: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생활하고 그랬어요.
근데 파견 온 분들 주로 빨리 나가고 외교관이 그 다음으로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나가죠. 사업에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시면 한
국 돌아오시고 이러시는데, 대체로 네...

연구자: 그럼 토요일 날 같은 때 이런 때는 한국학교를 다니거나 그랬어
요?

명우: 제가 중 1때까지는 한국학교를 다녔어요. 토요일학교라고 한국학교
가 있는데 토요일마다 외국학교 다니는 애들을 위해 운영을 해줘
요. 그래서 그 때 한국어 과정을 했고 한국어 학교가 별로 효율적
이란 생각이 안 들어서 나중에 그냥 안 듣고 말았죠.

연구자: 거기에 한국학교도 있는 모양이네요.

명우: 네. 한국학교 있어요.

연구자: 초등학교 과정만 있어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과정도?

명우: 다 있어요. 한 학교에 다 있어요?

연구자: 커요?

명우: 막 크진 않아요. 규모는 저희학교 정도 될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죠.

연구자: 그럼 부모님이 국제학교도 보낼 수 있고 한국학교도 보낼 수 있
고 그랬을텐데?

명우: 저희는 국제학교를 목적으로 왔어요. 주로 국제학교 못 가는 애들은
한국학교 가죠. 국제학교가 한국 애들이 많해보니까 한국 애들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한국학교를 다니던가 다른 국제
학교들을 많이 찾아보고 이러는데.

연구자: 입학과정이 많이 까다롭고.

명우: 네. 한국 애들이 많이 까다로워요 국제학교는. 그건 제가 오고
1~2년 후였구요, 제가 갔을 때 4년 전에는 많이 쉬웠어요. 한국

애들이 적다 보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야 보내주고.

연구자: 그렇게 학생을 선별해서 하는 데가 명우가 다니는 학교 말고 또 있었어요?

명우: 대부분 다 국제학교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학교 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DDD (다른 국제학교 이름)가 훨씬 더 나 았던 거 같아요. 그 학교는 선생님들도 조금 더 교육을 받으시고 학교도 더 좋고 한국 애들도 한 학급에 네 명, 다섯 명 밖에 없어요. 한국 애들도 많이 적어서 교육받기에는 좋았던 거 같아요 환경이.

연구자: 동생도 다 같은 학교 다녔죠?

명우: 네.

연구자: 거기에서 명우학생이 베트남 애들이랑 친했다고 했는데 다른 한 국학생들은 그렇게 베트남 학생들과 잘 안 친한 편이었어요?

명우: 막 안 친하고 이런 건 아닌데 잘 안 놀죠.

연구자: 베트남 학생들이랑 친하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한국학생들과 같은 점이나 다른 점을 느껴본 적 있어요?

명우: 네. 많이 느끼죠. 한국 애들은 모여서 뭉쳐가지고 뭘 하는 걸 좋아 하는데 외국 애들이랑 같이 놀면 조금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조용 조용한 그런 일. 느낌이 다르긴 달랐는데 정확히 뭐가 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구자: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명우: 힘들었던 건 한국에 오면 학원 다니고 그래야 하니까 당연히 힘들 었죠.

연구자: 여기 와서 다녔던 학원이 거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바빠요 더?

명우: 더 바빠죠.

연구자: 어떤 학원 다녀요?

명우: 영어 다니고, 수학.

연구자: 영어는 지금 상당히 잘 하는 편 아니예요?

명우: 아직 많이 부족해요.

연구자: 와서 국어나 사회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았어요?

명우: 제가 사회를 좋아해요. 특히 역사부분을 좋아해서 까다롭게 어려운
부분 없고 과학이 특별하게 국제학교랑 한국 학교랑 진도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서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걸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배웠던 걸 여기 다시 나오기도
하니까. 과학부분은 어려운 게 없었죠.

연구자: 수학이 좀 어려웠던 거고, 영어를 계속 해야 하고?

명우: 네.

연구자: 그럼 그쪽에서 친했던 한국친구들이나 베트남 친구들하고 연락
해요?

명우: 네. 아직도 연락해요.

연구자: 어떻게 연락해요?

명우: 메신저하기도 하고 싸이월드 하기도 하고. 한국에 이미 온 애들도
있으니까 개네들은 전화로 연락하고.

연구자: 한국 애들은 싸이월드로 해도 되고 그럼 베트남 애들은 어떻게
연락해요?

명우: facebook이요. 그리고 msn하죠.

연구자: 무슨 얘기해요?

명우: 어떻게 지내나 뭐 이런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선 연락을 안해요.

연구자: 힘들죠 그렇게 계속 stay connected 하는게.

명우: 네.

연구자: 여기와선 곧바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명우: 저희 학교가 귀국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그다지 특별하게
본다는 그런 게 없어서 친구들은 먼저 사귀었어요.

연구자: 지금 반에 몇 명이나 있어요?

명우: 저희 반은 많이 작은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른... 오늘 또
세 명이 전학을 오는데 개네들도 다 외국에서 오는데 개네들까지
합하면 서른 여섯 명 정도.

연구자: 서른 여섯 명이면 친구를 사귄 기회는 충분히 있겠네요.

명우: 네. 그중 반이 외국에서 온 애들이예요.

연구자: 외국에서 안 온 애들도 이 반에 있어요?

명우: 단순히 똑같은 반인데 외국에서 온 애들을 그 반에 다 몰아서 넣는 거예요. 특별히 뭐 다른 교육을 받아주는 건 없는데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지금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점심시간 활용해서 애들 국어 보충수업을 해준다던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많이 특별하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오히려 더 잘한다고 그래요. 평균이 더 높다 그래요 점수들도.

연구자: 혹시 외국에서 있다 온 애들하고 더 친해요?

명우: 똑같이 친해요 똑같이.

연구자: 그냥 한국에 있던 애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명우: 네.

연구자: 뭐 특별히 한국에 있었던 애들이 뭐 외국에 있었던 애들을 등한시 한다던가 이런 건?

명우: 그런 거 없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가끔씩 농담으로 “재 한국말 못해”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친구들끼리 근데 그런 건 농담으로 하는 거지 특별히 차별하고 이런 건 없어요.

연구자: 명우학생은 한국말을 그렇게 뭐 무리 없이....

명우: 저는 한국말을 하면서 네.

연구자: 그렇게 외국에서 온 학생들 중엔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죠?

명우: 네. 아까 온 대현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어요. 최근에 왔는데 개가 약간 한국말이 발음 이런 면에서는 살짝 부족해요.

연구자: 그런 애들도 다 어울리고 지내고?

명우: 네. 다 어울려요.

연구자: 중요한 질문 물어볼게요. 친구들이 외국에서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있었고 이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 명우가 생각하기에 나하고 참 비슷하다 생각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나랑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하는 것도 비슷하고.

명우: 어느 나라 있는거요?

연구자: 어디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누굴 거 같아요? 꼭 친하지 않은 친구여도 돼요. 나랑 비슷한.

명우: 희준이?

연구자: 현강이에 대해 말해볼 수 있어요?

명우: 개도 외국에서 온 앤데, 일본에서 2년 반 살고 캐나다에서 2년 반 살고 온 애예요. 개랑 가장 비슷한 거 같아요.

연구자: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명우: 부모님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래야 한다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것 같아요. 개는 오늘 인터뷰 안해요.

연구자: 재는 자기하고 굉장히 달랐다 싶은 학생은? 여기 친구들도 괜찮고 그 international school도 괜찮고 거기서 뭐 친했던 안 친했던 상관없고

명우: 전 특히 그런 애들은 없어요. 제가 뭐 다른 애들을 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특별히 싫고 좀 달랐다 생각한 애들은 없는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이렇게 두 학교를 다녀봤는데 international 학교의 좋은 점하고 나쁜 점 그리고 한국학교의 좋은 점 하고 나쁜 점 한번 말해볼까요?

명우: 학생 관계 이런걸 보면은 외국학교에서는 수업할 때는 되게 조용해요. 놀 때는 되게 시끄럽고 이런데, 수업할 때는 조용해요international school은. 근데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가끔씩 수업분위기가 망가질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대체로 보면 애들은 밖에선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학교에 들어오면 애들이랑 막 놀고 이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시끌벅적하고 이런 거 같아요.

연구자: 그게 좋은 점인가요?

명우: 외국 학교에서는 좋은 점이고 한국 학교에서는 나쁜 점.

연구자: 그 반대는 어떨까요?

명우: 외국학교는 약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느 면에선 조금씩 있어요.

연구자: 어떤 차별이 있었어요?

명우: 인종차별이요. 그렇다고 백인 흑인이 아니라 파로 나뉘져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끼리 논다 그랬잖아요? 서양 애들은 서양 애들끼리 놀아요. 베트남 애들은 베트남 애들끼리 놀고. 이렇게 나뉘져 버려서 그 부분에서 약간 보완이 되어 할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학교 같은 경우의 좋은 점은 한국 학생들이 대체로 공부를 할 땐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서는 아니더라도 할 땐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연구자: 명우학생이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 거 같아요?

명우: 제가 되고 싶은 거요? 외교관이요.

연구자: 왜 외교관이 되고 싶을까요?

명우: 가장 최근에 알았는데 일단 지금 시대가 global화 되고 있잖아요. 외교관이 좋을 거 같고. 만약에 제 2세대 아들·딸이 있으면은 개네들한테도 내가 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베트남에 갔다 온 건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아들 딸 한테 좋은 경험을 해 주고 싶어요. 외교관은 외국을 많이 돌아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화를 배우고 하면 훨씬 좋은 거 같아서.

연구자: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이 아직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에 갈려고 해요, 다음 달에. 그래서 명우한테 와서 내가 네가 있었던 그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잘 적응하고 이럴 수 있을까 충고 좀 해줘봐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명우: 일단 한국에 학교를 올리면 조용조용하다가 점점 친해져야 하잖아요. 거기 애들은 적극적이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식으로 보면 대부분 수줍어 하는 사람들 보다는 적극적이고 active 하고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적인 그런 학생들을 좋아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연구자: 그 반대로 그 쪽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 한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명우가 한국 학교에 적응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명우야 내가 한국학교에 가서 어떡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땐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명우: 일단은 외국학교랑 반대로 좀 수줍고 애들한테 좀... 잘 보여야 돼요. 되게 착해 보이고...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겸손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겸손해 보여야 되고, 친해질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애네들이랑 연락도 자주 하면서 같이 다니고 되게 친해져야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애들은 조심하고.

연구자: 어떤 애들을 조심해야 돼요?

명우: 담배피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노는 애들. 개네들을 조심해야 돼요.

3) 정아영 (중학생)

연구자: 아영이가 자기소개를 좀 해볼래요?

아영: 저는 6살 때 처음 해외를 나갔는데요. 싱가포르에 갔었어요. 거기서 3년 반 살고 한국에 다시 와서 3학년 11월 달에 갔다가 5학년 1학기 마치고 또 베트남으로 갔다가 작년 8월 달에 왔어요.

연구자: 그럼 처음에 싱가포르에 가서 3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아영: 3년을 살았어요.

연구자: 3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아영: 네.

연구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나 하기 좋아하는 거 두 개만 얘기 해 봐요.

아영: 그냥 집에서 잠자기?

연구자: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아영: 수영하는 거.

연구자: 아영이가 가장 싫어하는 거? 하기도 싫고 보기만 해도 괴로운 거.

아영: 춤추는 거.

연구자: 누가 춤추라고 해요?

아영: 학교에서 dance party 하잖아요. 해외에서는요. 그 때, 정말 가기 싫어서 안가다가 한 번 끌려갔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연구자: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특별히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영: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

연구자: 선생님들이 여기서 때려요?

아영: 네.

연구자: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한 번 맞아봤어요?

아영: 네.

연구자: 어느 수업에서?

아영: 기술수업에서.

연구자: 아영이가 이렇게 외국에 두 번이나 나갔다 온 거 보면 부모님이
외국에서 일하시던 분이셨나봐요?

아영: 아빠가 신한은행에서 해외점포로 나가시다보니까.

연구자: 그럼 처음에 싱가포르에 간 것도 파견근무셨고?

아영: 그 때는 조흥은행.

연구자: 아빠는 은행에서 일 하시고 엄마는 직장이 있으세요?

아영: 집에 계세요.

연구자: 아영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 계셨어요?

아영: 네.

연구자: 아영이는 어디서 살았어요?

아영: 고양시. 근데 많이 이사 잤었어요. 고양시 살다가 일산 갔다가 싱가포르에 살았어요.

연구자: 그럼 그 잠깐 들어왔을 땐 어디서 살았어요?

아영: 서울 강동구.

연구자: 그리고 나서 와서는 지금은 어디에서 살아요?

아영: 강남구 대치동.

연구자: 그럼 초등학교는 서울 강동구에서 다녔겠네요?

아영: 네.

연구자: 강동구에 어느 초등학교 다녔어요?

아영: 동촌초등학교.

연구자: 아영이는 형제가 있어요?

아영: 네. 오빠 있어요.

연구자: 몇 학년이에요?

아영: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요.

연구자: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아영: 오빠요.

연구자: 오빠하고는 고민도 툭툭 털어놓고 그래요?

아영: 네.

연구자: 왜 그런 거 같아요?

아영: 모르겠어요.

연구자: 베트남에서 다닌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베트남 먼저 간 거죠?

아영: 아니, 싱가포르 먼저 갔다가.

연구자: 싱가포르 가기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아영: 아니요.

연구자: 싱가포르 어느 학교 다녔어요? 선생님도 싱가포르에 2년 있었는데...

아영: Dover Court International School 아세요?

연구자: 네, 알아요. 그게 어디 있었더라?

아영: UWC아세요? 그 바로 옆에.

연구자: 재단이 어디재단이었는지 혹시 알아요?

아영: 모르겠어요.

연구자: 이게 International school이면은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다녔어요?

아영: 그냥 세계 각지에서.

연구자: 왜 우리나라는 다 한국인 학생들이지만은 싱가폴은 특히 이런 International school엔 여러 인종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인종 분포도는 어땠어요 학교에?

아영: 동양이 제일 많고.

연구자: Chinese나 Japanese 이런?

아영: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던 거 같아요.

연구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반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반이 전체 몇 명이었어요?

아영: 열 일곱 명 정도 됐을거예요.

연구자: 한 학년에 반이 몇 개 있었어요?

아영: 많은 데는 네 반? 적은 데는 두 반. 제가 다녔을 때는 1학년 때는 세 반이었던 거 같고요 2학년 때는 네 반 됐다가 3학년 땐 세 반?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나요.

연구자: 그럼 이 중에 한국학생들이 얼마나 됐어요? 가장 많았다면은?

아영: 처음에 가면 ESL반 이라고 못하는 애들 모아 놓는 데가 있는데요.
그 반가면 거의 반 이상이 한국사람 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
잘 해가지고 mainstream 반에 가면 거기는 거의 없어요. 한 한
명? 두 명?

연구자: ESL반은 아영이는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보통 학생들은 얼마
나 있었어요?

아영: 아마 다들 일년 반 쯤? 저도 1년 반이었고요.

연구자: 그럼 ESL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로 있었어요?

아영: 네.

연구자: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 배웠어요?

아영: 보통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 다 배웠는데요.

연구자: English 배웠을 거고, English가 교수학습언어로 사용 되었죠?

아영: 네? 교습학습언어?

연구자: 가르칠 때 사용되는 언어가.

아영: 네.

연구자: 과학했어요?

아영: 아니요. 과학은 안했어요. 과학은 3학년 때 부터 했어요.

연구자: 수학하고 영어를 했을 거고, 과학은 3학년 때 부터 했고, 사회는
어느 나라 사회를 배웠어요?

아영: 그것도 3학년 때 부터 했던 거 같은데요, 그냥 세계사였던 거 같
은데요?

연구자: 음악이나 체육, 미술 같은 건 했었어요?

아영: 네. 다 했었어요.

연구자: 중국어는 혹시 했었어요?

아영: 그거는 방과 후 활동 같은 거였었는데 한번 한 적 있어요.

연구자: 그 이외에 한국에 없던 것들이 있었어요?

아영: 없는 거 같은데요.

연구자: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영: 인종 같은 거요?

연구자: 응. 인종.

아영: 다양 했어요. 다 원어민 선생님들이고, 싱가포르 사람도 있었어요.

연구자: 원어민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온 거 같아요?

아영: 영국, 미국, 캐나다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연구자: 거기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여기랑 비슷해요 아니면 훨씬 더 친구같이 대해주세요?

아영: 더 친근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누구였어요?

아영: 뭐라고 해야 되요?

연구자: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영: 네.

연구자: 어떤 친구들이랑 가까이 지냈어요?

아영: 다양했는데. 처음엔 ESL 한국 애들이 많으니까 한국 애들이랑 친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니까 mainstream반은 거의 없잖아요. 아마 저 혼자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애들이랑 다...

연구자: 학교가 보통 몇 시경에 끝났어요?

아영: 기억 안나요.

연구자: 그 때 친구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아영: 네. 인도 애였는데요. 개가 음식 먹는 게, 그 인도 음식 있잖아요. 그걸 맨 날 싸왔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한 번 먹어보고 했는데 저한테 입맛이 안 맞아서 먹다 버리고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때니까 많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두 번 째 학교를 물어 볼게요.

연구자: 그 전에 잠깐 한국 왔을 때 어땠어요?

아영: 그 때는 되게 좀 신기했어요.

연구자: 어떤 점이 신기했어요?

아영: 일단 한 반에 그렇게 많잖아요 학생들이. 40명 좀 됐었던 거 같은

데...

연구자: 또 공부하는 건 어땠어요?

아영: 공부하는 것도 싱가포르에선 그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유롭게 여기저기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많았는데, 여기선 다 교과서를 갖고 하는 게 되게 신기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공부하는 내용은 싱가포르에 있을 때보다 힘들었어요?

아영: 네. 수학 같은 게 특히 그렇고요. 그냥 배운 내용이 좀 달랐던 거 같아요. 과학 같은 것도 그렇고...

연구자: 싱가포르에 어렸을 때 있을 때 한글을 엄마가 가르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 돌아오니깐.

아영: 한글 떼서 왔던 거 같은데.

연구자: 거기에 있을 때 한글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아영: 네. 그 토요일마다 한인학교가 있었어요.

연구자: 그 과정을 3년 내내 했어요?

아영: 네.

연구자: 싫어하지 않았어요 가는 걸 주말에?

아영: 거의 저는 가서 단짝친구가 있었는데 맨 뒤에 앉아서 둘이서 매일 떠들기만 했어요.

연구자: 그래도 거기에 다녀서 한국에 와서 도움이 좀 된 거 같아요?

아영: 네.

연구자: 그럼 그렇게 1년 반 있다가 베트남으로 갔는데 베트남에서는 기억이 많이 날 거예요 최근까지 있었으니까. 어느 학교에 있었어요?

아영: UNIS.

연구자: UNIS? 그게 뭐가?

아영: UN에서 만든 거예요.

연구자: 이 학교도 International 학교예요?

아영: 네.

연구자: 학교 크기는 얼마나 됐어요?

아영: 많이 컸어요.

연구자: 얼마나 컸어요?

아영: 운동장만 이 학교 넓이 될걸요? 아니, 넘을 거 같은데..

연구자: 한 학급에 몇 명 있었고 몇 반이 있었는지?

아영: 한 학년에 세 반 있었고요, 한 반에 한 이십 명 씩? 점점 늘어났어요.

연구자: 그럼 이 학교는 당연히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있잖아요
그쵸?

아영: 네.

연구자: 그럼 한 천명 가까이 되겠네요. 왜 아영이를 부모님이 이 학교에
보냈는지 혹시 알아요?

아영: 근데 그 학교가 제일 좋았어요. 그 때 처음 갔을 땐 HIS 하고
UNIS가 있었는데 HIS는 거의 70%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 안
에서 한국어를 못쓰 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영어 쓸 기회가 별로
없을 거 같고. 저도 UNIS 가고 싶었어요.

연구자: HIS라는 학교도 International school이었어요?

아영: 네.

연구자: 호치민에 있었어요?

아영: 아니요. 하노이요.

연구자: 얼마나 있었어요 한국인이 UNIS에는?

아영: 한 학년에 한 열 명.

연구자: 한 학년에 한 서너 명 꼴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영: 네. 근데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건지 전 저 혼자였어요.

연구자: 반에서 혼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영: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연구자: 다른 반에 한국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영: 네.

연구자: 다른 반에 있는 한국학생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아영: 네. 거기서도 한인학교를 다녀가지고 거기서도 만나고..

연구자: 한인학교에서는 뭘 배웠어요? 이것도 토요학교라서 한국교육과

정도 배우고 한글도 계속 하고 이러는 거였어요?

아영: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국사 이렇게 세 가지만.

연구자: UNIS에 있는 동안에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하고 중학교 과정을
했겠네요 그렇죠?

아영: 네.

연구자: 3년이나 있었으면 오래 있었던 건데, 과목은 기억나요?

아영: 네.

연구자: 예전의 학교랑 비교하면은 과학도 있었을 거고, 역사는 어떻게
배웠어요?

아영: 역사는 지리랑 그런 걸 다 합쳐서 배웠어요. 이집트나 로마 그런
것도 배우고.

연구자: 그 학교에서 더 특별히 배운 과목이 있어요?

아영: 한국어도 있었어요. Mother town language도 배워야 된다 그래
서. 그 때 따로 한국 애들 모아서 수업하고 그랬어요.

연구자: 몇 번 했어요 일주일에 한국어수업을?

아영: 두 번? 세 번?

연구자: 그럼 여기서 중학교를 다닌 건데, 가장 친했던 친구들 있지요?
아직도 기억나는... 어느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아영: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애가 있었는데요. 그 애랑 친했다가 그 애 친
구들이랑도 친해져서 베프(베스트 프렌드)됐는데요. 그 애가 신기
해요. Rebecca인데요, 국적이 세 개예요. 멕시코, 네덜란드, 브라
질인가?

개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멕시코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아영: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긴 건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자: 백인에 가까웠어요?

아영: 아니요. 백인이랑 남아메리카사람이랑 섞어놓은 거 같은 피부 색깔
이었어요.

연구자: 두 번 째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ESL에 들어갔어요?

아영: 거기선 ESL도 있고 mainstream도 있고 EAP가 또 따로 있어요.

둘 사이의 중간 반인데요. 거기 갔었어요.

연구자: EAP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아영: 1년?

연구자: 그 다음에 mainstream으로?

아영: 아, 2년 2년... 근데 여기서는 쉬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ESL반은 따로 모아서 수업했는데. 여기서는 쉬어가지고 그냥 English할 때만 나눠서...

연구자: 그럼 ESL도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아영: 네.

연구자: 이 두 번 째 학교 갔을 때는 학교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아영: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반가웠어요. 다시 국제학교 갔잖아요.

연구자: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데를 온 거 같고?

아영: 네.

연구자: 그 이외에 Rebecca 친구들도 다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아영: 한국친구 있었어요.

연구자: 근데 제일 친한 친구는 Rebecca였다.

아영: 그리고 한국친구들 두 명.

연구자: 그럼 한국친구들에 대해서 얘기 해 볼까요?

아영: 근데 한국친구 한명, Rebecca 한명 이렇게...

연구자: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국친구는 어떤 친구였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아니면?

아영: 처음에 학교에서 만났다가 한인 학교 가서 또 만나서 신기해서... 그리고 처음 갔을 때 저 말고 걔가 혼자였어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같이 되게 친해지고.

연구자: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영: 아직 거기 있어요.

연구자: 그 친구는 굉장히 오래있네요?

아영: 네.

연구자: 그 친구는 부모님이 아예 거기서 사시는 모양이죠?

아영: 네. 사업하세요.

연구자: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은 예전의 international school 선생님
이랑 비슷했어요?

아영: 네.

연구자: 선생님들 인종은 어땠어요?

아영: 여기선 베트남사람들은 없었구요. 호주, 영국, 미국.

연구자: 수업은 한국에서랑 비교했을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영: 수학은 정말 쉬웠구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제가 베트남에
살아서 한국공부를 잘 모르니까...

연구자: 한국 들어와서 3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한국공부를 해 봤잖아요.
요.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베트남학교는 공부가 어땠어요?

아영: 수학 같은 경우엔 쉬웠는데요, 과학같은 경우엔 lab report쓰고 쓸
게 많아서 좀 어려웠어요 그런 건.

연구자: 베트남에서 International 학교를 다닐 때 어려운 점이 있었어
요? 처음에 가서 적응할 때 어려웠던 점들...

아영: 별로 그건...

연구자: 한국친구라는 그 한명은 학교에서도 보고 한인학교에서도 보고
그럼 방과 후에도 볼 기회가 있었나요?

아영: 네, 한번 씩..

연구자: 어떻게 봤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영: 가까이 살았어요.

연구자: 그럼 거기도 한국 분들이 가까이 서로 사시나요?

아영: 네. 대호호텔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 대호아파트가 있어요 호텔
에 속한 건데. 그 대호랑 다른 한국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저희도
그 계약 때문에 거기서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
있어요.

연구자: 거기에 한국인 community가 딱 있군요.

아영: 네.

연구자: 아버지가 거기 계셨으니까 아버지가 다른 한국인 가정이랑 어울

리고 그랬어요?

아영: 네. 근데 다른 가족들이랑 한 번 썩만 만나서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연구자: 계속해서 만나서 친하게 지냈던 가정은 없었던 말이죠?

아영: 네.

연구자: 거기에선 학교가 몇 시에 끝났어요?

아영: 2시 55분이요.

연구자: 그럼 마치고 오면은 3시 반쯤 되나요? 그 다음엔 뭐했어요?

아영: 그냥 집에서 컴퓨터하고 놀다가 평소에 그러고 끝내요. 아, 베트남에 오기 전에 1년 전인가? 거기 한국학원이 생겼어요. 곧 한국갈 텐데 공부해야하니까 거기도 다녔어요.

연구자: 그 한국학원에서 뭐 배웠어요?

아영: 처음에는 수학, 국어, 영어 다 하다가 마지막엔 수학만 하다 왔어요.

연구자: 그럼 그 학원에서 월수금 네 시부터 여섯시까지 다녔어요?

아영: 여섯시부터 아홉시까지.

연구자: 힘들었겠네.

아영: 네.

연구자: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기분이 어때요?

아영: 전 별로...

연구자: 별로 재미없어요?

아영: 네.

연구자: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아영: 처음에 와서 친구 사귀는 게...

연구자: 왜 친구 사귀는 게... 아영이가 다른 international school가서 친구 사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 같았는데? 근데 왜 한국에 와서는 힘들었어요?

아영: 싱가포르에서 한국 왔을 때는 해외에서 왔다고 애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했는데 근데 여기선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는 거예요 전학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연구자: 지금 아영이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 반에 있죠?

아영: 네.

연구자: 그것이 좋아요 아니면 안 좋은 거 같애요?

아영: 좋은 거 같애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써주는 게...

연구자: 어떤 면에서 더 신경써주세요?

아영: 한국말엔 한자가 많잖아요. 국사 때는 나오면 한 번 씩 물어봐 주기도 해요 알아들었는지.

연구자: 여기 와서 친하게 지낸 친구가 혹시 있어요?

아영: 3학년 되서는 많이 사귀긴 사귀었는데, 2학년 때 이 학교 처음 와서 조금 힘들었어요.

연구자: 아영이는 작년에 왔어요 여기?

아영: 네. 작년 8월 달.

연구자: 그럼 3학년이 되서 친하게 지낸 친구는 누구예요?

아영: 어제 예린이... 그리고 현경이, 예원이, 주영이...

연구자: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외국에 있었던 애들인가요?

아영: 한 명 빼고 다요.

연구자: 아영이는 외국에 갔다 온 친구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아영: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연구자: 이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아영: 주영이.

연구자: 주영이는 성격이 어때요?

아영: 그냥... 모르겠어요.

연구자: 여기 와서도 엄마도 아영이가 빨리 한국학교에 적응을 해야하는 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예요? 그럼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아영: 한국학교에 적응하는거요?

연구자: 네. 뭐 학원에 간다던가.

아영: 네. 학원에 다녔어요. 지금도 다녀요.

연구자: 얼마나 다녀요?

아영: 수학, 영어.

연구자: 그럼 날마다 학교 끝나면 학원가요?

아영: 네.

연구자: 그럼 여기 와서 학원을 더 많이 다니는 거네요?

아영: 네.

연구자: 좋아요?

아영: 아니요.

연구자: 베트남에서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랑 연락해요?

아영: 베트남요? 싱가포르요?

연구자: 베트남. 그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해요?

아영: 두 명.

연구자: 뭐로 연락해요?

아영: 이메일요. msn.

연구자: 여기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영이가 그 친구들 가운데서 나
랑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누굴까요?

아영: 여기 잠시 한국 와서 사귀 친구.

연구자: 누구?

아영: 수연인데 다른 학교. 여기 없는데.

연구자: 어떻게 여기 없는데 그 친구가 가장 비슷한 거 같애요?

아영: 그 때 딱 한국 왔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모르
겠어요 어떻게 친해졌지?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수연이가 생각하는 게 되게 깊게 생각해
요. 우리 나이 또래와는 다르게. 존경스럽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연구자: 수연이는 싱가포르에서 만난 친구?

아영: 아니요, 한국에서. 싱가포르 갔다가 한국 와서.

연구자: 그럼 수연이란 친구는 동춘초등학교에서 친했겠네요?

아영: 네.

연구자: 아직도 연락해요?

아영: 네.

연구자: 수연학생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죠?

아영: 네.

연구자: 외국에서 다녔던 학교 두 군데는 그런대로 비슷했잖아요? International school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씩만 얘기 해보고 한국학교의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씩만 얘기 해볼까요?

아영: 국제학교는 일단 자유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자유롭잖아요. 포스터를 만든다든가 훨씬 재미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숙제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

연구자: 한국은 숙제가 별로 재미가 없고?

아영: 네.

연구자: 국제학교의 나쁜 점은? 한국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좋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아영: 제가 11월 생이예요. 그래서 한 학년이 내려갔어요 다른 애들보다. 그게 좀 속상했어요.

연구자: 한국학교의 또 다른 좋지 않은 점은?

아영: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 선생님들도 감정적으로 때릴 때가 있어요.

연구자: 친구들은 어떤 거 같아요? 친구들도 국제학교가 더 친절한 거 같아요?

아영: 애들마다 다른 거 아니예요?

연구자: 장래에 뭐가 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뭘 하고 싶어요?

아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심리학 전공 하고 싶어요.

연구자: 특별히 어디에서 살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영: 저는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만약에 아영이가 또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가겠어요?

아영: 네.

연구자: 좋아하면서 갈 거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없이 갈 거 같아요? 만약에 아빠가 또 외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뭐 이러면..

아영: 그건 제가 그 상황에서 한국이 싫으면 좋아할 거 같구요. 한국 사

는 게 되게 만족스럽고 하면 안 좋을 거 같아요.

연구자: 지금은 어때요?

아영: 지금? 망설여지는데요.

연구자: 왜 그래요?

아영: 친구들도 좋고, 옛날에 수연이 다시 만나서 좋았는데 또 헤어지면….

연구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한 번도 안 나가본 학생이 베트남에 있는 international 학교에 갈려고 해요. 그 친구가 와서 아영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무슨 애길 해주고 싶어요?

아영: 글썽요… 그냥 가서 어찌다 보면 다 잘되게 되있는데…

연구자: 그럼 반대로 그 international 학교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학생이 있어요. 아영이가 그랬던 것처럼. 개가 아영아, 나 뭘해야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주겠어요?

아영: 그냥 공부 좀 하고 올래?

4) 이주현 (중학생)

연구자: 처음만나는 사람한테 자기소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소개를 해볼래요? 어떻게 소개해요?

주현: 일단 이름부터 한 다음에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같은 거 밝히고 그 다음에는 좀 상세적인 거, 좀 더 개인적인 걸 얘기하죠.

연구자: 주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 얘기 해볼까요? 하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주현: 좋아하는 것은 음악 듣는 거나 음악에 관련된 걸 다 좋아하고요,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수들 노래 듣는 것도 되게 즐거워하고요. 개인적으로 바이올린 할 줄 알고요. 책 읽는 거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싫어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건 안 좋아해요.

연구자: 그런 것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나보죠?

주현: 네. 근데 그런 걸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하다보면 친구들 사이가 안 좋아지고 좋았던 사이도 하루아침에 어색해 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거 같아요.

연구자: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나 스타 있어요?

주현: 한국가수 중에서는 신화를 좋아해요. 좀 오래된 가수지만. 그리고 요즘엔 외국 가수 많이 좋아하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Michael Jackson도 되게 좋아했고 rock 쪽으로 Beatles 좋아하고 Bon Jovi 좋아하고 네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연구자: 독서도 좋아한다 그랬는데 최근에 아니면 예전에라도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현: 요즘에는 아무래도 Twilight series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건 Harry Potter이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언제 읽었어요?

주현: 한 7-8살 때부터 읽어서 그 일곱 권을.

연구자: 그럼 처음에 읽을 때는 영어로 읽었겠네요?

주현: 네.

연구자: 그럼 지금은 뭐로 읽어요?

주현: 영어로 읽어요.

연구자: 번역이 되서 나왔을 텐데 그래도 영어로 읽어요?

주현: 네. 한국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연구자: 만약에 영어로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그 형용사들 중에 자기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다면 뭘까요?

주현: 글썄요 Passionate? 아무래도.

연구자: 또? 두어개 더 얘기해볼래요?

주현: Reserved 도 될 거 같아요. 음 또... 특별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형용사요?

연구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주현: 전 색깔 같은 거나 동물 같은 걸로 절 비유하는데.

연구자: 얘기해봐요.

주현: 어..... 그러니까 동물로 비유하자면 암사자랑 비슷한 거 같고. 색깔 같은 건 빨간색 그런 거?

연구자: 암사자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암사자랑 비슷한 거 같아요?

주현: 어떨 때는 aggressive하게 되게 공격적이게도 되고 열정적이게도 되는데 막 암사자도 자기 얘기들 앞에서는 약해지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약한 면도 많은. 약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는 모습도 많은데 두 가지 모습을 공존하는 게 비슷한 거 같아요.

연구자: 빨간색은 당연히 정열이 많이 있다고.

주현: 네.

연구자: 가족에 대해 물어볼게요. 가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볼래요?

주현: 아버지는 일단 OOOO공사라고 준공원이시죠. 공무원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고. 아버지는 굉장히 뭐랄까 한국적인 분이세요. 열정적이시고 머리가 좋으세요. 어머니는 반대로 되게 여성적이시고

그냥 주부세요. 굉장히 깔끔하시고 소심한 면도 계시고 꼼꼼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동생이 남동생이 한명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굉장히 평범한 애인데요, 그 또래 남자애이면 보통 누나하고는 좀 멀어질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되게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온순한 애예요.

연구자: 아빠가 되게 머리가 좋고 한국적이다라고 했는데, 머리가 좋으신 건 어떻게 알았어요?

주현: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학교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도중에 그만 두셨어요. 그런데 혼자서 공부해서 OO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아, 되게 머리가 좋으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닌데요. 한번 하실 땐 진짜... 언제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엄마가 가구들을 좀 바꾸셨대요, 그럼 소리가 날텐데 아빠가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변해있냐고 하셨대요. 집중력이 강하신 분이고 암기력도 좋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편은 아닌데 한번 할 때는 깊이 파고드는? 그래서 한국적이기도 하신 거 같았어요.

연구자: 그게 한국적인 거예요?

주현: 한국사람 물론 여러가지 면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평가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있더라구요. 의지 같은 게. 약간 성급한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 할 땐 깊이 파고 드는 면도 있다고.

연구자: 가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구예요?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주현: 어머니.

가족이 외국에 나가서 살았던 이유가 뭐였죠?

주현: 아빠가 회사가 거기로 발령이 되셔서 잠시. 3년 동안.

연구자: 어느 나라였어요?

주현: 프랑스.

연구자: 프랑스 파리에 있었어요?

주현: 네.

연구자: 물가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주현: 어려서 그건 잘 몰랐는데 그냥 그랬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여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겠네요?

주현: 유치원 다녔는데.

연구자: 프랑스에 가자마자 학교에 다녔어요?

주현: 프랑스 유치원 1년 동안 다녔는데 나머지 2년은 프랑스에 있는 미국
국제학교에 다녔어요.

연구자: 그럼 이 유치원은 프랑스 local에 있는 유치원이었어요?

주현: 네. 프랑스 유치원이었어요.

연구자: 그런 불어를 썼겠네요?

주현: 네.

연구자: 왜냐하면 국제학교는 영어를 썼을 것이고.

주현: 네.

연구자: 기억나요?

주현: 불어요?

연구자: 아니. 갔다니 사람들이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거?

주현: 네. 좀 그랬어요.

연구자: 그럼 그 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주현: 그 당시 한국에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요. 영어는 조금 아
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프랑스어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영어는 그
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일단 유치원을 다니니까 사람이 생긴 거부
터 다르니까. 5년 동안 한국사람 검정색 머리랑 눈동자 검정색이
고. 근데 되게 어색했던 거 같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맨 날 긴
장해서 갈 때마다 배가 아팠어요 아침마다. 그게 남아있어서 지금
도 배가 아파요 아침마다. 안 좋은 기억?

연구자: 그럼 처음에 갔을 때 Asian이라던가 전혀 없었어요?

주현: 네. 국제학교엔 있었는데 유치원에는 한명도 없었어요.

연구자: 본인도 자기가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주현: 네. 되게 이상했어요. 똑같은 사람만 보다가 혼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래도 좋았던 게 거기서 잘 해주셨고 같은 프랑스인인 것처럼 대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Asian은 없었지만 아프리카 중에 프랑스 지배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 많이 오나봐요.

연구자: 맞아요.

주현: 네. 흑인들도 있더라고요. 외국인인데 프랑스어 못하는 반이 또 있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연구자: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중에 국적이 프랑스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됐던 걸로 기억해요?

주현: 굉장히 작았어요.

연구자: 프랑스어를 배우는 기본 과정은 그 애들이나 주현이 학생한테 있었군요. 선생님들은 전반적으로 친절했죠.

주현: 네.

연구자: 직접적으로 친구들이 놀리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주현: 네. 어려서 그런지 더 잘 해줬던 거 같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어떤 애가 맨 처음에 갔었을 땐데 어떤 애가 자꾸 제 머리를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개가 근데 계속 만지더라고요 못 알아 들으니까 영어를. 곤란했지만 생활하는 데는 그래도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친구들도 잘 해줬고 좋았어요.

연구자: 그리고 나서 국제학교로 옮겼죠? 왜 옮겼다고 생각해요?

주현: 부모님이 프랑스 학교로 안 보내시고 그냥 그러니까 유치원 졸업하고 다른 애들은 다 프랑스학교로 가는데 엄마가 그래도 저랑 비슷한 애들도 많고 영어실력을 더 늘릴 수 있는 곳으로 하신 거 같아요.

연구자: 영어학교를 갔을 때 그 크기는 어땠어요?

주현: 음. 초·중·고가 다 있는 학교라서 좀 컸어요.

연구자: 한 1200명 학생 수가 됐겠네요?

주현: 네.

연구자: 처음에는 유치원은 얼마나? 작았겠네요?

주현: 네. 유치원은 작았어요.

연구자: 유치원은 집에서 가까운데 있었겠네요?

주현: 네.

연구자: 살던 곳인 프랑스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도심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라고 하나요 그런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에?

주현: 저는 외곽지역.

연구자: 그럼 이 국제학교는 어디에 있었어요?

주현: 000 (외곽 도시이름)라고 거기도 외곽이었는데 그래도 도심 쪽에 좀 더 가까운.

연구자: 엄마가 아침마다 태워줬어요 아니면?

주현: 가까웠어요. 걸어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빠가 회사가시면서 데려다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연구자: 국제학교 갔으니까 어땠어요?

주현: 한국 애들도 있어서 반가운 점도 있었고 이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적응이 된 상태라서 아주 어색하진 않았고요. 국제학교라서 어려웠던 점은 선생님들이 자기 문화랑 잘 안 맞잖아요. 미국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미국이나 영국. 한국인이니까 문화가 잘 안 맞아서 문화의 충격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근데 외국 선생님들 같은 경우엔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거나 이상한 짓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났던 기억이 나요. 국제학교도 역시 영어 배우는 코스는 잘 되있었고 그래서 좀 영어권 국가에서 안 자란 애들하고 같이 영어를 배우는 덕분에 2년을 다녔는데 거기. 1년을 그 코스를 하고 마지막 1년은 영어를 좀 더 많이 잘 하니까 그 때는 다른 애들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런 과정 안 밟고 그냥 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처음에는 ESL에 있었고 다음 1년은 정규과정을 하는데 미국어를 native로 쓰는 애들하고 같은 반에 있었다는 말이죠?

주현: ESL 하면서도 정규수업은 듣는데.

연구자: 이 국제학교에 한국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주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중국, 일본 애들보다는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비율을 따져 봅시다.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주현: 한반이 20명 정도? 20명 좀 안됐을 수도 있고.

연구자: 한 학년에 몇 반 정도 있었어요?

주현: 2반.

연구자: 한 학년에 40명 정도 있었던 애긴데 그 중에 한인학생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주현: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달랐는데 저까지 합하면 4-5정도. 꽤 많았죠.

연구자: 그럼 Asian은 몇 명 정도? 한국 사람도 다 합해서.

주현: 네. 한 10명 있었던 거 같아요. 1학년만 2반이었고 다른 학년은 한 3-4반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백인학생이 한 25-30명 정도 있었나요?

주현: 네. Asian이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 외에 흑인이라던가?

주현: 네, 있었어요.

연구자: 몇 명 정도? 한 서넛?

주현: 네.

연구자: 미국인 학교였다면 미국교육과정을 따랐겠네요?

주현: 네.

연구자: 학교 선생님은 거의 미국 선생님이 대부분이셨을거고, 친구들은 세계각지에서 온 애들이죠? 미국 애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주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국인보다는 많았죠 그래도. 7-8명? 그

래도 꽤 됐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 학교를 다닐 때 특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어요? 좋았거나 나빴거나?

주현: Thanksgiving day 때 되게 재미있었고 Halloween때도 재밌고. 1-2학년들이니까 고학년보다도 더 그런 파티가 많았던 거 같아요. 특히 Halloween. 즐겁게 퍼레이드도 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거기가 돌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철봉을 잡고 도는 그런 놀이를 자주 했어요. 저도 해보고 싶어서 언제 하다가 됐는데 어느 날 그거 하다가 넘어져서 얼굴 박았었어요. 그래서 양호실가서 꼬매진 않았는데 엄청 부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양호실에 자주 갔던거 같아요.

연구자: 굉장히 활달했나보다.

주현: 그건 아니었는데. 운동을 못했는데 하고 싶었어요. 다른 애들 따라 할려다 많이 다친 거 같아요.

연구자: 그 학교를 다닐 때 힘들었던 점 있었어요? 다쳤던 거 말고.

주현: 몇 명 애들이 ESL 다닌다고 차별하는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누가 차별했어요?

주현: 미국 애들은 차별 안하는데 다른 영어권 국가가 아닌 데에서 왔는데 영어를 좀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더 놀렸던 거 같아요. 좀 무시하고 영어못한다고. 근데 또 괜찮은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연구자: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은 누구까요?

주현: 일단 한국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이집트 친구가 같은 반이었는데 또 같은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교류가 많았어요. 아파트 정원에서 같이 놀고 그랬어요.

연구자: 그 아이하고는 마음이 맞는 거 같았어요?

주현: 남자애였는데 되게 잘 해줬어요. 착하고.

연구자: 지금도 연락해요?

주현: 아니요 지금은 안하고.

연구자: 거기에 있었을 때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었던 거 같아요?

주현: 지금은 아니지만 그 때는 되게 조용했었어요. 조용하고 소심하고 많이 울고. 그렇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밝아지고 많이 떠들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바뀐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언어에도 좀 못하니까 조용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주현: 2004년이에요.

연구자: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기억이 날 거 같아요.

주현: 네.

연구자: 한국에서 프랑스 갈 때 아빠가 와서 우린 프랑스 간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주현: 아….

연구자: 아무생각이 없었어요?

주현: 네. 그땐 아무생각이 없었어요.

연구자: 어렸으니까.

주현: 전혀 몰랐어요. 프랑스가 외국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그런 건 알겠는데. 외국의 다른 점, 느낌 그런 건 전혀 몰랐으니까.

연구자: 한국에 올 때는 알았으니까 어땠어요?

주현: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가족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가고 싶은데 친구들 하고 헤어지는 건 많이 아쉬웠죠.

연구자: 한국에 처음이 돌아왔을 때 한국에 돌아오니깐 어땠어요? 몇 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주현: 2학년 2학기. 거기선 2학년 마치고 왔는데 여기는 2학년 2학기였어요.

연구자: 어땠어요?

주현: 한국 애들이 좀 뭐랄까…… 한국 애들이 외국 애들하고 다른 점도 많더라고요.

연구자: 어떤 점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주현: 외국에서는 다른 반인데도 되게 잘 지내고 여자랑 남자랑 서로 성이 다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되게 친하게. 근데 한국은 여자애들

이랑 남자애들이랑 서로 그게 크더라고요 벽이. 그리고 좀 그건 좀 가슴이 아팠고요. 남자애들이랑 놀 수가 없었던 게. 그래도 한국어는 잘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 잘 했던 거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 같고. 비교적 잘 적응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한국어를 계속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부를 한 게 있었어요?

주현: 집에서는 한국어 하고 한국 1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연구자: 다른 거 또 다르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던 게 더 있을까요? 선생님은 괜찮았어요?

주현: 선생님들은 좋으셨어요.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었어요. 프랑스 문화랑 한국 문화랑. 국제적인 그런 거. 그래도 선생님들 잘 해주셨고 여자애들도 좋았는데 남자애들이 괴롭히는 건 좀 이상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괴롭히는 문화.

주현: 네. 심할 때는 험한 상스러운 말들도 쓰고 2학년인데. 그것도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연구자: 주현이는 많은 친구들을 봐왔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채는 참 나랑 닮았다, 비슷해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누굴까요?

주현: 국적은 상관없죠?

연구자: 네. 나랑 잘 통해왔다 이런 친구.

주현: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음... 외국 살다 온 애들이 말이 잘 통하는 거 같아요. 국제중을 온 이유가 실력 있는 애들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실력도 있으면서 좀 국제적인 문화에 대한 감각이, 의식이 있는. 외국 살다온 애들, 미국에 살다온 애들한테는 한국에서 살아온 애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더 한국 애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험한 말들을 잘 해요. 여자랑 남자랑 벽이 크고 그리고 공부 말고 다른 것도 세상에 대해 많이 잘 아는 그런게 있었는데. 미국 살다온 친구들은 남자 애들이랑도 잘 지내

고 싶어 하고 험한 말도 안 쓰고요. 착하요. 애들이 마음이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온 친구들이 마음이 잘 맞는 거 같애요.

연구자: 혹시 주변에 친구들 중에 내가 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주현: 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1년 살다온 친구였는데 보스톤에 있는 무슨 private school로 갔어요. 그 친구가 1년만 갔다온 애였는데도 영어를 아주 잘하고 한국 문화랑 국제 문화를 모두 많이 느끼는 애였어요. 한국 애들하고도 죽이 잘 맞고 외국 애들하고도 잘 맞는 거 보면 애는 되게 애가 뭐가 잘 모든 사람들을 하고 어울릴 줄 아는구나. 그 친구를 부러워했던 거 같애요.

연구자: 주현이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닮고 싶어요? 주현이는 그 두 가지 중에 못하는 게 있는 거 같애요?

주현: 어...국제적 문화와 한국적 문화 중에서도요?

응.

주현: 물론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에 와서도 거기서 살았던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가끔씩 이해를 못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좀 아닌 거 같애요.

연구자: 이렇게 두 가지 나라에 두 가지 학교를 다녀봤으니깐 그 학교의 나쁜 점과 좋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프랑스 유치원은 어릴 때니까 제외하고 프랑스에서 다닌 국제학교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한 두 가지 만 얘기해보세요.

주현: 일단 좋은 점은요, 예체능부분을 되게 잘 살려줬어요.

연구자: 국제학교에서요?

주현: 네.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 사립학교라서 그런지 오케스트라도 잘 되었고, 미술전시회 같은 것도 잘하고, 숙제는 별로 없었고요.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가장 좋은 건 역시 여러 애들이 있었으니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ESL 프로그램이 제일 감사했던 거 같애요.

연구자: 거기서 영어를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주현: 네. 그리고 국제학교에서는요, Easter나 Christmas나 Halloween, Thanksgiving이나 이런 행사적인 날들? 이런 날들에서 좀 즐길 수 있게 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추석 때나 이럴 때도 안 설 때가 많잖아요, 학원 이런 거. 명절 때도 추석이나 설날은 아니더라도 그런 명절 그런 거 잘 안 살리고. 학교에서도 Halloween 같은 건 미국문화지만 한국적인 그런 것들 그런 걸 지키면 좋을텐데. Christmas 그런 국제적인 날 들 맞이해서 학생들 즐겁게.

연구자: 파티도 하고.

주현: 네, 파티도 하고, 공부만 하지 않고 그런 여러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랬어요. 좀 삭막한 것도 있었고.

연구자: 그 반대점은 생각 해 본적 있어요? 국제학교의 어려웠던 점이나 나뉘었던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현: 국제학교에서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글썄요 한국학교에서 좋다고 느꼈던 건 시험이 자주 있었던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시험이 그래도 좀 더 있는 게. 국제학교에서는 어려서 그런지 시험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한국 와서는 시험이 자주 봐서 잘 보면 기분 좋고 못 보면 더 잘해야 되겠다.

연구자: 그런 생각이 들고...

주현: 네.

연구자: 주현이는 지금 영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해요?

주현: 한국어를 안 쓸 땐 영어가 더 편한데 요즘은 한국어가 더 편하죠. 영어로 생활해도 문제는 없어요.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주현: 영어로 대답하고요?

연구자: 네.

연구자: Can you tell me about your hero? Somebody who you

admire most?

주현: Uh... the person I admire the most... right now? Person-

연구자: Mm-hm. Right now.

주현: Right now is my classroom teacher because um...although he's not a teacher of major... subjects like Korean, or... math. Or, and maybe his knowledge of the world or other thing is maybe... um, less sophisticated than... than other teachers, he's very... he- I still... he's very good at understanding students. Maybe that's because he has a lot of history of being a teacher. But, he's very good at understanding students. How they (students) feel in this situation. And well, he- he exchanges a lot of... talks with students. Yeah. So... that's I tell him some secrets that I couldn't tell even to my best friends...nor my parents. It feels like so... fresh. And... so, yeah. I think that's a good thing. He tries to co- cooperate with our other students.

연구자: Okay. Then, uh what subject does he teach?

주현: Uh... OOO...

(일부 생략)

연구자: So, do you think um, most other students feel... the same way as you do?

주현: No...

연구자: About the teacher?

주현: He's not very popular among students. But, personally I... very admire him. I mean, he's being, a very... like, um... (he) helps me when I'm in a bad situation and having a bad time. Well, he's... He's not very popular among students.

연구자: Mm, but he has been very kind and supportive?

주현: Um, helpful for... me. Very.

연구자: Okay. All right. Then do you have anybody else except the teacher that um... you admire?

주현: Uh... well... well, of course my parents. And, I don't... I don't admire my friends yet.

연구자: (laugh)

주현: But...

연구자: Not many people do that.

주현: Oh, yeah. But...I, I admire a lot of people like Hanbia. Like, she's the person who...She's the person who visits other countries to ... get emergency calls.

연구자: Ooh.

주현: Yeah. She helps people in the emergency situations. And, I really admire people like her. And more famously, Mother Theresa. Because rather than to care for their personal happiness, and [to] get what they want and do what they want, they... selected a way to help others, rather than themselves. So, I think that's... those sacrifices... I think that's very admirable.

연구자: Mm-hm. Then, what is your dream?

주현: Uh... I have a lot of dreams...

연구자: Okay. Let's talk about the first and...

주현: Well, my first dream is to become the president of Korea.

연구자: Ah...good one. Yes. Excellent.

주현: And, because...but, uh... like for- to become a president... I want to become the Minister of Education, 교육부 장관. And, then...first of all, change some factors in Korean schools. And, then become the president.

연구자: Okay. All right. Let me ask you something. Then, what will you change in Korean schools?

주현: Um...

연구자: It looks like you have some ideas about policy change, right?

주현: Yeah.

연구자: Yes.

주현: Yes.

연구자: Tell me.

주현: I want to decrease... yeah...private education, first. Because, I see a lot of friends like, suffering from those private education. And, I've always felt bad for that. And-

연구자: I will vote for you. (laugh)

주현: Thank you. And, I'm- I myself was frustrated from private education. And, I- anyway, I want to change Korean students and their (behaviors) because, like students, some students tend to be (unkind to others). I saw a lot of... well, isolation, 왕따..

연구자: Yeah.

주현: And, I realized, I thought I wouldn't...I thought that was the big thing in Korea. Bad, big... scar in Korean students. I mean, Koreans, in middle school society. Because they don't really understand how that target feels. And, one of those targets was my friend. And, I really felt sorry for her. And, I wanted... really, I wanted to change that.

연구자: Okay. And... your next dream?

주현: Oh, my next dream? Um... archeologist, 고고학자.

연구자: Mm-hm.

주현: Yeah, it's quite not related with the president dream, but I also want to be the archeologist. And because I like music, I also have a dream to become a music star, a singer. But,

maybe I've got- I have to think about that dream more. And I also want to... do things like Mother Theresa and just forget everything of my personal life and just go to other poor countries and help people. I think that would be very... self-satisfactory. Yeah.

연구자: Can you imagine yourself in ten years?

주현: Uh... ten years? Uh... I'll be... I think I'll be in college after University (대학원).

연구자: Okay. Where? Can you envision where...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Or, what kind of subject you are studying at the time?

주현: Uh... I- I've thought a lot of that, about that. But, my parents want me to go to a University in Korea. Well, so if I attend a Korean University, I will want to go to OOO University. But, I personally really want to go to a foreign University. Because, I want to be stretched out universally. So if I could, I would like to be in one of those Ivy League Universities. But, I really don't care which University, because if I'm happy and learning a lot from that University, it doesn't matter. Yeah.

연구자: How about your parents? Do they have any specific hope for you?

주현: They want me to become a professor. University professor. Well... just study and everything. But, I prefer to be universal and like, interacting with others internationally... interact with other people.

연구자: Internationally, you know... So, you want to have a career traveling different places, and-

주현: Other countries. Yeah. That's why I'm not sure about the

president dream. Because, I- that way I can- I can't go to other countries. But, I really enjoyed my experience in France. So, I would like to visit other countries, foreign countries more.

연구자: So, you may think about some career that requires a lot of traveling?

주현: Yeah. Mm-hm.

연구자: Then, let me ask one question. If you have an opportunity to go back to France, or some other country like United States, or anywhere like China, right now, will you take that opportunity?

주현: Right now? Um...

연구자: Mm-hm. With your family. If your parents come in one time and say, "You know, we have to go to this country" . And, will you like it? Or?

주현: I would like it. Because it has been long since I came here. And, I spent my time in Korea since like second grade, so I think it's time to experience other culture once more.

연구자: Where do you want to go?

주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연구자: Okay. Then...if you have to go on your own, will you do that?

주현: Um...no. My parents- first of all, my parents were very... will be very negative about it. And, I think in middle school ages, you've got to spend time with your family at least. Because, in the future, I dream to travel around the world. Well, to do that and, when I'm young at least, I should spend some time with my parents- family.

연구자: Mm-hm. Will you expect that you won't be able to spend

a lot of time with your family (in the future)?

주현: Yeah.

연구자: Once you grow up, that's what you expect.

주현: Yes.

연구자: 주현이 학생이 이렇게 여러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지금 만약에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주현이한테 주현아, 한국에 들어오는 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잘 할 수 있을까,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물어 보면은 팁을 주잖아요? 어떤 팁을 주겠어요?

주현: 일단 좀 더 음.. 융통성을 가지라고 해주고 싶어요. 너무 고지식하게 정의로운 걸 추구하지 말고. 한국사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착한 애들도 있지만 영악한 애들도 있고 영악한 애들을 무조건 나쁜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 애들도 어른이 되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좀 안 좋은 애들한테 무조건 안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좋은 거 같고.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International school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나 부모님이 우리한테 팁을 좀 달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주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잘 받아들이고. 본질은 한국인이니까 한국... 영어를 쓰고 다른 말을 쓰더라도 한국어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연구자: 한국인들이 폐쇄적인 느낌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현: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외국인을 보면 많이 피하더라고요. 아니, 피하거나 막 보고 웃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백

인 우월주의가 있는 거 같아요. 흑인들을 특히 더 욕하고 그런 기억도 있었어요.

연구자: 어디에서요?

주현: 학원에서요. 영어학원.

연구자: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

주현: 네.

5) 안세준 (초등학생)

연구자: 자기소개를 좀 해보세요.

세준: 제 이름은 안세준입니다. 제 생일은 00월 00일이고, 중국에서 3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연구자: 중국에서는 큰 도시에 살았어요? 아니면 조그만 도시에서 살았어요?

세준: 조그만 도시에서 살았어요.

연구자: 도시이름이 뭐였어요?

세준: 00 (거주 도시 이름)

연구자: 서울보다 작은 도시였어요?

세준: 네.

연구자: 세준이가 제일 하기 좋아하는 것 한 두어 가지만 얘기 해보고 싫어하는 것 두 가지만 얘기 해봐요.

세준: 제일로 좋아하는 건 컴퓨터 게임하는 거,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거. 제일로 싫어하는 건 공부하는 거, 심부름 시키는 거.

연구자: 누가 심부름 많이 시켜요?

세준: 아빠가요. 아빠나 누나.

연구자: 누나는 몇 살이에요?

세준: 중2요.

연구자: 동생은 있어요?

세준: 아니요, 없어요.

연구자: 중국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있었어요?

세준: 아니요. 아빠하고 나하고 누나 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한국에 회사가 있어서 중국에 못 왔어요.

연구자: 그럼 세 사람만 중국에 가서 3년간 살다 왔어요?

세준: 네. 잠깐 할머니랑 엄마가 중국에 왔다가 돌아갔어요.

연구자: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산 이유가 뭐예요?

세준: 아빠 직장이 중국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중국어 공부하라고...

연구자: 그럼 어떤 게 먼저였어요? 아빠가 직장이 중국에 먼저 되서 가게 됐어요?

세준: 직장이 먼저.

연구자: 직장이 먼저 되서 가셨는데 세준이랑 누나가 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세준: 네. 누나가 먼저 가고 1년 후에 내가 가고.

연구자: 그럼 누나는 거기 4년 있었어요?

세준: 3년 반.

연구자: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겠네요, 그렇죠?

세준: 네. 2학년까지 다니다가 간 거니까. 2학년 12월 달에.

연구자: 한글을 다 깨우치고 갔겠네요, 그렇죠?

세준: 네.

연구자: 아빠가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혹시?

세준: 아니요, 잘….

연구자: 세준이가 중국에 있을 때 아빠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면 회사에 다니셨어요?

세준: 회사에 나가셨어요.

연구자: 그럼 세준이하고 누나는 누가 돌보아줬어요?

세준: 가정부 아줌마가 오셔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연구자: 아빠가 중국에서 일이 끝나셔서 아빠가 돌아오신 거예요?

세준: 아니요. 아빠는 아직 중국에 계세요.

연구자: 누나하고 세준이만 들어온 거예요?

세준: 네.

연구자: 왜 돌아왔어요?

세준: 중국에서 배우는 게 한국보다 더 기초적이니까 수준이 안 맞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중국어 배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연구자: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어디 학교 다녔어요?

세준: AA초등학교하고 BB초등학교 이렇게 이사다니면서…

연구자: 그 때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어요?

세준: 친구들과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연구자: 세준이 중국학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중국학교는 국제학교가 있고 또 중국의 공립학교, 우리나라 공립학교 같은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 다녔어요?

세준: 공립학교 다녔어요.

연구자: 공립학교 다녔어요?

세준: 그러니까 전국에 깔린 그런 공립학교 2년 다니고, 국제학교 1년 다니고.

연구자: 중국 공립학교는 세준이 같은 어린이가 거의 없지 않나요?

세준: 좀 있어요. 한 학년에 한 5명 정도.

연구자: 모든 걸 다 중국어로 가르치지 않나요?

세준: 네.

연구자: 어땠어요? 처음에 중국말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세준: 못 알아들었죠.

연구자: 힘들지 않았어요?

세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다 알아 듣고 그랬어요.

연구자: 언제쯤 됐을 때 선생님이 하는 걸 다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준: 한 가서 일 년 정도 지났을 때.

연구자: 그럼 공립학교에서도 잘 적응을 한 거 같은데 왜 국제학교로 옮겼을까요?

세준: 그냥 거기가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연구자: 어떤 환경이 안 좋았어요?

세준: 더러워서... 교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냥 영어도 잘 안돼요. 영어나 수학 같은 것도 좀 안 좋아서...

연구자: 세준이가 먼저 학교 옮겨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먼저?

세준: 부모님이 먼저 학교 선택하라고 그래서. 하나는 가까운 공립학교였고 하나는 좀 멀리 떨어진 국제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학교

했어요.

연구자: 그럼 세준이 어린이가 국제학교를 택한 거였어요?

세준: 네. 그냥 다니고 싶어서 찍었더니 그렇게 됐어요.

연구자: 그럼 국제학교를 5학년을 다니고 왔겠네요?

세준: 5학년 마치고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연구자: 국제학교는 어땠어요?

세준: 국제학교는 좋은 점은..., 단점은 거기서 영어만 써야 된다는 거 뿐
이었고...

연구자: 그럼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했어요?

세준: 네.

연구자: 그럼 중국어는?

세준: 중국어 수업은 따로 있어요.

연구자: 전혀 언어가 다른 학교로 들어갔는데 다시 좀 힘들었겠네요 그
렇죠?

세준: 네. 익숙해지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외국인인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따로 반이 있거든요. 거기 다니면서 영어 실력 늘리
고 그랬어요.

연구자: ESL반이라고 하는데 다녔죠?

세준: 네.

연구자: 그러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 계속 ESL반에 있었겠네요?

세준: 네.

연구자: 그럼 이 중국인 공립학교하고 국제학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를 들어 수학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다른 거 배우는 건 어디가 더
나았어요?

세준: 국제학교가 더 수준이 높은 거 같아요. 그리고 중국학교에서는 과
학을 안 하고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애들이 과학을 못하고 시험 볼
때마다 과학책 보면서 하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연구자: 중국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세준: 중국학교의 선생님은 좀 괴팍하고 그랬어요.

연구자: 친절하시진 않으셨어요?

세준: 네. 숙제 많이 내주시고..

연구자: 어린이 수가 얼마나 됐어요?

세준: 한국 애들은 거의 없었고 중국인 애들이 거의 다였어요.

연구자: 전체 중국 애들 숫자는 얼마나 됐어요? 이 학교보다 더 컸어요?

세준: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붙어있는 학교였어요.

연구자: 한 학년의 학생 수는 얼마나 됐어요?

세준: 100명 정도 됐어요.

연구자: 한 학년에 100명 정도 됐어요?

세준: 한 학년에서 반 세 개 있고 한 반에 40명 정도.

연구자: 그 중에 한국인 학생 수는 한 반에 한 두 명?

세준: 많으면 세 명이고, 없으면 한 명이고.

연구자: 국제학교는 어땠어요? 더 컸어요?

세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붙어서 그것 보단 작았고요.

연구자: 전체가 한 300명 정도 됐어요?

세준: 거기는 반이 한 학년에 10개있고, 한 반에 19명씩.

연구자: 2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국제학교네요.

세준: 네. 그 40%가 한국인이었어요. 한 반의 40%가.

연구자: 선생님은?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중국인이셨을거고, 국제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세준: 다 호주나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한 20% 정도가 중국어 가르치는 중국선생님.

연구자: 학교의 40%가 한국사람이었으면 학교에서 가끔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있겠네요?

세준: 네. 거의 쉬는 시간마다 한국말을 쓰죠.

연구자: 한국친구들도 많았겠네요?

세준: 그렇죠.

연구자: 나머지 60%는 어떤 학생들이었어요?

세준: 영어하는 서양 나라나 타이완 같은 나라에서 온 애들이었고요.

연구자: 혹시 인도학생들도 있었어요?

세준: 아니요. 흑인학생 한 두 명을 있었지만.

연구자: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는 걸 싫어하시진 않으셨어요?

세준: 아니요, 별로.

연구자: 중국에 사는 동안에 친했던 친구. 가장 친했던 친구는 누굴까요?

세준: 가장 친했던 친구 지금 미국으로 이사 가서, 미국으로 이민 갔고요. 맨 날 저랑 놀아주고 제일로 친한 친구였어요.

연구자: 한국인이었어요?

세준: 네.

연구자: 어디에서 만났어요?

세준: 학교 다니다가 만났는데.

연구자: ESL에서 만났어요?

세준: 네.

연구자: 그 이외에 또 친했던 친구.

세준: 내가 4학년 때 거기 갔을 때 만났던 친구였고요, 처음엔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친해졌어요.

연구자: 그 애도 한국인이고?

세준: 네. 친구는 다 한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연구자: 그럼 혹시 한국인 아닌 친구들 가운데서 좀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세준: 네.

연구자: 누구였어요?

세준: 어느 나라에서 온지는 모르겠는데 흑인 이었는데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옆 반에 있던 애예요.

연구자: 그럼 이런 친구들 가운데서 세준이가 저 친구는 정말 나랑 비슷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을까요?

세준: 없어요. 비슷한 건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친했던 거 밖에.

연구자: 세준이가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서 다른 어린이들 가운데서 재는 나하고 굉장히 다르다 나하고 같은 점이 전혀 없는 거 같애 이런 생각이 들었던 친구가 있다면 누굴까요?

세준: 많았죠.

연구자: 가장 다른 하나만 얘기 해봐요.

세준: 안경 끼고 키 큰 그 애가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생각이 많이 달랐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누구? 어디 있었던? 중국인 친구?

세준: 한국인.

연구자: 어떤 점에서 달랐어요?

세준: 그냥 완전 생각부터 끝까지.

어떤 생각이 달랐어요?

세준: 그냥 생각이 또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 그냥 달랐어요.

연구자: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어요?

세준: 어려웠던 점은 사회하고 국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연구자: 왜 어려웠어요?

세준: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안 살아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국어는 중국 가서 거의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책 같은 걸로 배워서 수준이 3-4학년정도밖에 안 되서.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48점. 32점.

연구자: 그 이외에 다른 공부 말고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세준: 애들이 다 여자라서 체육에 가면 같이 노는 애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여자가 4명이고 남자가 2명이어서.

연구자: 지금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세준: 1반 애들인데 남자애들 거의 다 같이 축구해요.

연구자: 귀국자반 바깥에서 친구를 좀 사귀어봤어요?

세준: 3반에 친한 애 한 명 있고요 그게 끝이에요.

연구자: 친구 사귀기가 여기가 더 힘든 거 같아요? 국제학교 있을 때보다?

세준: 똑같아요.

연구자: 세준이는 세 학교를 다른 학교를 다녀봤네요.

세준: 네.

연구자: 그럼 이 학교들을 다녀보니까 각 학교에서 좋았던 점 한가지씩

들 하고 나뻐던 점 한가지씩들 하고 얘기해보요.

세준: 그냥 중국학교에서는 좋았던 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중국인들이랑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중국어 실력도 늘었고. 국제학교에서는 영어만 쓰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준이 매우 높아가지고 성적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나쁜 점은 중국학교에서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았고, 국제학교에서는 급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차별을 많이 했어요.

연구자: 어떻게 차별했어요?

세준: 차별 많이 했어요. 국제학교 교장 아들이 중학교에 있다고.

연구자: 한국 분이었어요?

세준: 아니요, 싱가포르. 한국학교에서는 나쁜 점이 애들이 다 여자라서.

연구자: 혹시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반에 있는 학생들이 세준이를 좀 이상하게 대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세준: 그런 적 없어요. 똑같이 다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연구자: 학교 밖에서는?

세준: 학교 밖에서요?

연구자: 예를 들어 세준이가 아파트 단지 살아요?

세준: 네.

연구자: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그럴 때 세준이가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 왔다고 친구들이 따돌리거나.

세준: 그런 일은 없어요. 약간 그랬다가 금방 없어져요.

연구자: 특별히 여기 와서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세준: 네.

연구자: 세준이 어린이는 자기가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세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생물학자.

연구자: 왜 생물학자가 되고 싶은지?

세준: 어렸을 때부터 생물을 좋아해서 제가 생물을 연구하고 싶어서. 생물학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헛수고 되지 않게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연구자: 과학책도 많이 읽었겠네요?

세준: 네. 많이 읽었어요.

연구자: 어느 글자로 된 책이 제일 읽기 쉬워요?

세준: 한국어로 된 거.

연구자: 과학자가 되서 어디에서 살게 될 거 같아요?

세준: 네?

연구자: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나중엔?

세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연구자: 왜 그럴까요?

세준: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 제 조국이니깐.

연구자: 혹시 세준이 어린이가 커서 20살, 30살 이렇게 과학자가 되서
외국에 살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막 즐거워서 갈 거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없이 갈 거 같아요 아니면 안 갈 거 같아요?

세준: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연구자: 하지만 나중엔 오래 오래 한국에 살거죠?

세준: 네.

연구자: 지금 여기에 세준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중국으로
가는데 아빠랑 같이 중국 공립학교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될 해야 거기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세준아 얘기 좀 해봐 그럼
무슨 얘기를 해 줄 거 같아요?

세준: 아무 말 안 해요.

연구자: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 가서 잘 할 수 있지? 그렇게 물어보면?

세준: 옛날에 했던 걸 되돌리면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연구자: 세준이가 가는 게 아니라 세준이가 그 공립학교를 알잖아요. 내
가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중국 학교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준: 맨 처음엔 계속 중국어 공부하면서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거
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한국 애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친해져서 도움 주면 같이 생활하면 편할 거라고.

연구자: 어떤 친구가 이번엔 국제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세준아 나 국제학교에 가서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면 될까?

세준: 거긴 한국 애들 많으니까 영어를 많이 배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걔네들한테 물어보고 한국어로 물어보기도 편하니까 애들이랑 같이 협동해서 생활하면 괜찮을 거라고.

연구자: 지금 중국에 있다가 세준이 어린이처럼 한국으로 막 들어올려고 해요. 그 학생이 세준아 내가 여기서 뭘 준비해가면 가서 내가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세준: 처음엔 수준이 높으니까 일단 맨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서 천천히 성적을 높이는 게 좋을 거라고.

연구자: 세준이 어린이는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었다고 생각되요?

세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활발했어요?

세준: 활발했죠.

연구자: 여기에서는?

세준: 여기에서는 활발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옛날처럼 체력이 별로 좋진 않아요.

연구자: 중국에 있을 때 학교 끝나고 나서 학교가 한 두 세시쯤 끝났을 거 아니예요?

세준: 아니요. 6시에 끝났어요. 국제학교는 세 시 네 시에 끝났어요.

연구자: 그럼 중국 학교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세준: 아침 9시가 아니라 7시 30분에 시작해서.

연구자: 그럼 학교 갔다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했겠네요?

세준: 아빠가 과외 시키셔서 그래도 9시에 자야했어요.

연구자: 국제학교 다닐 땐 학교 끝나고 나서 과외 같은 거 했어요?

세준: 네.

연구자: 무슨 과외 했어요?

세준: 영어나 중국어. 내가 중국학교 다녔을 때 중국어나 이런 거 했고요.

국제학교 다닐 땐 내가 영어가 불리하니까 영어 과외를 했어요.
연구자: 지금은 학교 끝나고 나면 한 두시쯤 될텐데 다른 거 과외를 하
거나 학원에 가는 게 있어요?
세준: 월수금은 수학하고 화목은 수영학원에 다녀요.
연구자: 세준이 어린이는 어디에 있었을 때가 제일 바빴어요?
세준: 중국에 다녔을 때가 제일 바빴었죠. 맨 날 숙제하고 그랬으니까.
연구자: 국제학교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세준: 중국학교보다는 나았죠. 많이 도움을 주고.
연구자: 중국학교 선생님들, 국제학교 선생님들, 여기 한국선생님들 비교
해 봤을 때 누가 제일 친절한 거 같아요?
세준: 국제학교 한국학교 똑같아요.

6) 홍명진 (초등학생)

연구자: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How do you introduce yourself when you meet a new person? (중략)

명진: My name is 명진. And, I was born in OOO. AAA state, OOO. My family goes to Korea for vacation. And, that's pretty much it.

연구자: Mm-hm. Then, where you born in OOO?

명진: Mm-hm.

연구자: Yeah. I live in BBB (another state). So, it's pretty close. Is it the only state that you lived in the United States?

명진: No, I was born at OOO. Then, I moved to XXX (another state).

연구자: Okay. So, in which city did you live?

명진: OXO (name of city in XXX state).

연구자: Oh, okay. Do you know why your family lived in the United States?

명진: My mom and dad wanted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my dad wanted to learn Theology. So, he worked in OOO. But, he thought that Theology was... My dad worked in OOO. He thought Theology was not good enough to help him. So, he moved to XXX.

연구자: Okay. So, your dad was a kind of student in a Theology school?

명진: Mm-hm.

연구자: So now, is your dad a minister?

명진: He graduated. Yeah, he's a minister.

연구자: Minister, okay. In Korea or did he have church in United States?

명진: He had a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when he graduated, that's when we moved to Korea.

연구자: Oh, I see. Then, you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명진: Mm-hm.

연구자: So, it took him pretty long time to complete?

명진: Yes.

연구자: How about your mother?

명진: My mom. She was born in Korea like my dad. And, then my mom didn't have a job, so she would just like work in the house. But, in the year 2005, she had two babies, and that's when my twin brothers came out.

연구자: Oh, yes. So, you have two little brothers?

명진: Yes, they're twins.

연구자: Twins. Yeah. You are big brother, kind of?

명진: Yes.

연구자: Good. Tell me two things that you like and two things that you don't like.

명진: I like soccer and I like um... like homework.

연구자: You like homework?

명진: Yeah, I like homework.

연구자: Good.

명진: And I don't like corny and mushy stuff.

연구자: What?

명진: Like, love stuff.

연구자: Oh, love stuff. Who's talking about those stuffs? (laugh)

명진: English teacher.

연구자: Really? I didn't know that. Like girlfriend, boyfriend kind of stuff. Okay. What else don't you like?

명진: I also don't like people who are like bragging about stuff.

연구자: Where did you see those people? You know, people bragging about something?

명진: In America. I lived in an apartment. And, there were like kids that were like bragging. They have like lots of money and they [say] “I’m so strong”, like… “I can like beat you guys up”.

연구자: (laugh) Yeah, there are always some strange folks like that. All right. When did you come back to Korea?

명진: I came back to Korea, last year on December twenty ninth.

연구자: Oh, so it’s been less than six months, right?

명진: Yes.

연구자: So, this is your first time to be in Seoul. Or have you been to Seoul?

명진: I’ve been in Korea, but I lived in… I went to my family in Daejeon.

연구자: Okay. So, maybe during summer you had your vacation in Daejeon.

명진: Yes, in Korea.

연구자: Every year?

명진: No, not every year. Just like every…

연구자: Other year?

명진: No, every like three years.

연구자: Three years. So, actually it’s been a while.

명진: But I think it’s been less… like, one year since—

연구자: One year? Okay. So, you came here last summer?

명진: No…

연구자: No, not really? Maybe before the—

명진: I think I came here on second grade.

연구자: Okay. I see. I know that you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You don't have any memory about Korea prior to that. Then who lived in Daejeon?

명진: My grandpa and grandma.

연구자: So, you stayed with your grandma and grandpa when you had a vacation in Daejeon?

명진: Mm-hm.

연구자: Okay. Then, how long did you stay with them?

명진: Like one or two weeks.

연구자: One or two weeks? Very short.

명진: Mm-hm.

연구자: Okay. All right. We will talk a little bit about the school that you went to in the United States. Do you remember most of your schools um, in XXX, right?

명진: Yeah.

연구자: And, you didn't go to school in OOO?

명진: I went to pre-school in OOO, so...

연구자: Okay.

명진: But, I don't really have a memory about that.

연구자: Okay. That's fine. All right. Let's talk about the school in XXX. How was it like?

명진: I start going there since I was kindergarten. And I went there until I was a forth grade. Then,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had a lot of friends. And, those friends like came with me until forth grade. And, we like... I never like [feel] lost 'cause they're all in the same class every year.

연구자: Really?

명진: Every year.

연구자: Then, was your school small, or?

명진: It was only like... It had more than people in this school.

연구자: Hm...

명진: It had two forth grader classes. Two kindergarten classes. Three first grade classes. And, I think one second grader class?

연구자: Oh, okay.

명진: Two third graders, and two forth graders, and two fifth grader classes.

연구자: So, this elementary school is kind of small.

명진: Yeah.

연구자: Compared to other, you know, ordinary elementary schools.

명진: Yeah. It was.

연구자: Where was it located? Was it private school or public school?

명진: It's a public school.

연구자: Public school. And, it was it close to the University or college?

명진: I think it was close to college because there was a high school right next to our school called "St. John."

연구자: Okay. But, this elementary school was a public school?

명진: Yes.

연구자: Okay. Hm...

명진: And, it was like very little kids. So, it almost shut down. Almost.

연구자: In Korea, in Seoul, you have all the children who look very similar to you, right? But, in the United States, you have friends who look quite different from you, right?

명진: Well, I had some Korean kids— Korean friends, too. Because, my dad had friends in America. Like, in Theology. So, they're Korean. But, mostly they were girls. And, I had a third grader

friend there. And, whenever I was like done with my homework and stuff, I would always play with them.

연구자: Okay. Then, how about in your classroom? In the school, did you have some Korean friends or children in your classroom?

명진: No. I was the only um...

연구자: Korean in the school?

명진: No, In the fourth grade.

연구자: In the fourth grade. So, there were a couple of more Korean students in the school. But—

명진: Yeah.

연구자: You were the only one in forth grade?

명진: Yeah, there were two fifth grade Koreans and three second graders.

연구자: Were you close to them?

명진: I was like— The classrooms are like right next to me.

연구자: So that mean that sometimes did you play with them?

명진: No, I don't play with them. They're girls.

연구자: Okay. I see. They are all girls? Then those children were from the families who's dad were also studying at the college?

명진: Theology. Yeah.

연구자: Theology. Okay. So their dads knew your dad? Kind of?

명진: Yes.

연구자: Okay. But, since they were girls, you couldn't really play with them?

명진: Yeah. Well, I had like some boy friends. And... well, like they were like really mean. So, I didn't play with them. So, I only played with that third grade boy.

연구자: What do you mean that? About saying that they were mean?

명진: They, they always fight. And, they like try to always like beat me up and stuff.

연구자: Oh... That's not very good. Okay. They are older than you?

명진: No. One's the same age as me and five are younger than me.

연구자: Okay. Why do you think they had such bad manners?

명진: Because they are um...they had friends that were like ... They are like always bragging. And, they like stole stuff, too. They were their friends.

연구자: Oh...

명진: That's why they started to like copy what they were doing. But, they cannot like steal. They started to like instead, beat up.

연구자: Hm, that's not really good. Let's talk about your school. What did you learn in the school?

명진: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started my ABC's. And, when I was in first grade, I started adding and sub- subtraction. And when I was in third grade, I did my time table. And, when I was in fourth grade I learned like graphing. Like, what meters and kilometers.

연구자: Mm-hm. Which subject did you like best?

명진: I liked science the best because we had a lot of cool things. We got to like open owl pellets and...

연구자: Ooh...

명진: We got to see like in vinegar and water, we put a penny in each. And, which gets cleaner in the two liquids. And, I learned in second grade I learned the solids, liquids, and gas.

연구자: Mm-hm. So, you love the science? Okay. Which was your least favorite subject?

명진: My least um... I didn't really like doing English because it was like really hard for me. But, math was a little hard. But, since I went in an academy, I got better at math. First, I didn't like... I was like, "Oh my goodness. Why is math so hard"? But, when I got, when I kept on like doing it, I got used to it. So, I pretty much now like it.

연구자: Mm-hm. You said about an academy? What is the academy?

명진: Uh... Kumon.

연구자: Kumon. So, you're... parents sent you to Kumon school?

명진: Uh-huh.

연구자: Was there a Kumon school in your city?

명진: No, it's not a school. It's an academy.

연구자: Okay. It's an academy. It's a kind of after school program, isn't it?

명진: Yes.

연구자: Yeah. So, did you go there every day? Or?

명진: Um... every week.

연구자: Every week. And, was there a teacher?

명진: Yes. I had a teacher there.

연구자: Mm-hm. I see. But, you found English was the hardest subject?

명진: Yes.

연구자: Yeah, because you already you know, liked math.

명진: Uh-huh.

연구자: All right. How about your teachers?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 teachers.

명진: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didn't really know a lot of stuff, because...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just learned Korean from my mom and dad. But, when I got older and older, I started to speak English and I forgot a lot of Korean.

연구자: That's true. Yeah.

명진: So, I would like talk to my friends, like pretty much all the time.

연구자: In English, or...in Korean?

명진: In English.

연구자: Yeah.

명진: So I had a lot of friends there. And my teachers from first to kindergarten till fourth grade, they were nice. But, since I didn't really know a lot of things to do, I couldn't like read at first. So, I'm like... "Teacher, I don't know what that says". She's like, "Oh my goodness, you should be knowing to read". So, she taught me like how this letter sounds and how to pronounce this word. So, when I was in second grade, I got to the highest reading level.

연구자: Oh, that's great. Do you think the teacher really helped you?

명진: Yeah. The teachers helped me a lot.

연구자: Great. You said you like sciences. That means you must have read some books about science, right?

명진: In America, they don't like, let you read science books. They just um...in my place, they would just teach you and then... It's like we just do like we... They tell you how to do the um, experiment. And, then we do the experiment. And, then we have a test called the CATS test. It's pretty

much like the test in Korea. We got it and if you wanted to be... It started from third grade. So, if we wanted to go to a fourth or fifth grade, we had to do- take the test. And, if we got like zero percent on everything, we had to fall a level. Fall a grade.

연구자: So, you must have taken the test in the third grade?

명진: Yes.

연구자: So, you passed everything, right?

명진: Uh-huh.

연구자: Okay. Do you remember which level you were? In each of the subjects?

명진: I was in the hardest level in each except English. Because, English there's not really... we just do that for fun.

연구자: Hm?

명진: English, Why we do it for fun is because in my school, is pretty much- they want to take it very easy on kids. So they don't really like teach English a lot.

연구자: Really? Mm...

명진: No, I mean like the English books.

연구자: Oh, okay. I see. So you said you were in the hardest level in all subjects except in English?

명진: Yes.

연구자: Okay. I see. Were there many minority students in your school? I means that in America, people say white students and some blacks students and Hispanic students.

명진: Um, they were all mixed up.

연구자: Mixed. Okay.

명진: And I had some black friends and white friends, too. They were all nice. Nobody was mean.

연구자: To you? Except those Korean guys?

명진: Yeah.

연구자: (laugh) Then, who is the largest group in your school?

명진: In my school? I had a friend named Jacob. And, I had a friend named Tyler. They are always like sticking up to me. They would like to help me with everything. Like if I didn't know something, they would help me with that. And if like, they didn't know something, I would like help them.

연구자: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ose two friends. Were they white students? Or African American?

명진: One was African American. One was white. And, one really likes soccer, but... he—

연구자: Who? Who liked soccer?

명진: Um, Jacob likes soccer.

연구자: Jacob. Mm—hm.

명진: But, he couldn't really do soccer well. So, he practiced everyday with me. And, Tyler liked soccer, so he made the team. And, I liked soccer, too. So, I made the team, too. So, Since Jacob couldn't get in the team, we would like help him everyday in soccer. So, next year he could get into the team. But I really miss him now.

연구자: Okay. That means that there are only kids who were good a soccer could get into the team?

명진: Yes, there were like three teams.

연구자: Oh. In the school?

명진: Yes.

연구자: Okay. So, many children wanted to be on the team?

명진: Yes. Um, like—

연구자: So, there were a kind of test? A skill test?

명진: Yes. There were like sixty five kids trying to get in. But, they could only take I think... thirty six kids.

연구자: Oh, I see. Yeah.

명진: So, they would all try their best. And, when I was in third grade I tried to try out. And I wasn't really good at soccer. But, I tried my best. I follow the rules. And, so when I tried and tried, and then I got into the team.

연구자: Okay.

명진: That was my first time getting into the team. And, in fourth grade I went into the team, too. But, since I had to move to Korea, I had to quit the team.

연구자: Mm... Actually, that's what you are missing a lot?

명진: Yes.

연구자: Actually, yeah. All right.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your Korean school. I know that you came here last December. So, it must be in January. No, in February or in March... you started this school?

명진: Um, yes. I think it was in March.

연구자: March. Okay. Tell me about the first day of school here.

명진: The first day of school? I was like nervous. Because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e kids. Since, it's my first day at this school. And, they all came from different countries. But, on the tests of the day, I met two friends. Yoonsoo and Jeehun. But, Jeehun, he needed to move to his grandpa-father's house. Because, his family didn't have a lot of money. He moved to his grandfather's house.

연구자: Okay.

명진: Yoonsoo's still with me. On the test, I kind of like... I couldn't really concentrate on the test. I was just like

talking to him a lot. And, he's still my friend. And he still goes to this school. And he lives right over— right behind the school.

연구자: Okay. then, then is your home close to this school?

명진: No, it's pretty far. It takes four subways.

연구자: Four subway stops. So you live in 000? Or, the other way?

명진: I live in @@@.

연구자: Ah, @@@. Okay. Does your mom give you a ride every morning? Or, do you take a train?

명진: I take a— there is a school bus. And, it takes me to school every morning.

연구자: Ah... I see.

명진: But, every afternoon. There are like first and second graders. They finish early. So, they— the bus can't take me home. So, sometimes my mom picks me up. Sometimes she rides a car, sometimes she rides the subway.

연구자: Okay. When you first came to this school, what was the hardest thing to do?

명진: The hardest thing was understanding Korean.

연구자: Mm—hm.

명진: Because, I lived in America so I... I was born there, so I didn't really know a lot of Korean. I expected that the Korean would be easy and all the other subjects. But, you can't— you can't just think. You have to know. That's what I learned.

연구자: Then what did you do to improve your Korean here?

명진: Since we had a teacher with us. She would help us like what words that we didn't know. And she would always

like be by us if we needed a lot of help. So, since I've been here... Since after the first test, I got better at Korean. So, I pretty much know.. got better. So, I got a better grade on this test than the last one.

연구자: But, 명진, your Korean is very good considering that you were born there and lived there for long time. How did you have such good Korean when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for such a long time?

명진: First, my mom and dad, they were Koreans. So they taught me like... 'This is this, this is that'. And,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sometimes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then came to our house. So, they would give me presents. Korean notebooks and... workbooks.

연구자: Ooh. Your grandparents gave you some Korean notebooks. So, you practiced Korean with that.

명진: Yes.

연구자: So, did you go to any Saturday school? Korean school?

명진: No. I was about to, but my mom and dad said it's like... it's too far. And, they would— and, it's too much money. So, we couldn't— so, they couldn't get me to the Korean Saturday school. Since I couldn't go to Korean school, I just kept on like working on the books.

연구자: Ooh... your Korean is very good.

명진: Thank you.

연구자: So, Korean language was the hardest part since you came over here?

명진: Yes.

연구자: Um, how about other subjects?

명진: Since I was the smartest in America in the entire fourth

grade, math and science was pretty easy. But, Social Studies and Korean was pretty hard.

연구자: Then, did your parents or, somebody help you since you came over here? To catch up the school work?

명진: Yes. My grandma and grandpa got me a math book like where kids like work on math. And I first started from pre-school age. And, then I could only go to first grade because it was like so hard for me. So, when I took the test, I was like...I didn't really understand. So, I was thinking... um... Could I really like going to this school? But, I just thought of the pre-school and the first grade stuff. I just thought. So, I just kept on thinking. And, then I got the test done. And, then that's pretty much it.

연구자: 명진, you've been to two different schools. On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other in Korea. So, you may know what's good or what seems to be better in one school than the other. So, let me ask those questions. Can you tell me about one or two good things in American schools? And, one or two good things in Korean schools.

명진: In America, there... the good things are the kids are nice. And, they like... um... the teachers are also nice, too. But, in the Korean schools... the teachers are also nice, too. But, they think of your health and so they like... since they think of your health, they help you like 'What's good to eat', and 'What's not good to eat'. And what are the good things... I forgot...

연구자: Yeah, Anything that you think is bad in American school. Bad in American school and bad in Korean school.

명진: A thing that's bad in America is they like... teach very

easily. So, like kids are like, just like doing nothing. But, in Korea they would do a lot of work. So, they're really smart. That's the good thing about Korean schools. But, the bad thing in Korean school is... like, the kids curse to other kids a lot. But, in America, if you curse then you get in—you get kicked out of the school. So that's what good about American schools.

연구자: Mm-hm. So, you think in Korean schools, there are lots of things to learn. But it's good because in American schools, sometimes kids have just too easy stuff.

명진: Yes.

연구자: But, sometimes in Korean schools, children say things um, bad things.

명진: Yes.

연구자: And, that are not usually being said in American schools?

명진: Yes.

연구자: Oh. that's what happen in your own classroom, too?

명진: Um...

연구자: Cursing and... kind of thing?

명진: Not— not in this Korean class— school or the school in America. But, I think when I like go into the real classes in Korea, I think that's gonna pretty much happen.

연구자: Real— what do you mean “real classes”? Other classes in this school?

명진: No. We're— since we're in returnee's class. We're not really like the other kids. We're like from different countries, so we don't know a lot of stuff. So, if we take a test, and if we pass, we go to the other classes. But, if we don't [pass], we still have to stay in the returnee's class.

연구자: Mm-hm. Then do you feel a little bit uncomfortable going to other classes?

명진: No, I think it's kind of like a nervous test. Since in Korea, they like teach hard and stuff.

연구자: Mm-hm. It's because the things that you'll learn is hard? Or are you afraid if other children will treat you differently?

명진: Pretty much both.

연구자: Both? Okay. Um...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명진: There's a lot of things, like... I want to be. Like, a person who teaches kids how to dance and sing. And, I also want to be a detective. Also, a vet. And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I want to do.

연구자: Okay. So, you have lots of dreams.

명진: Yes.

연구자: If there is an opportunity, do you want to... Sometimes do you dream go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명진: Yes. Because, I really miss my friends. And, I really miss my teachers, too.

연구자: Mm-hm. Then, do you communicate with them? Do you e-mail or do you talk to them?

명진: No, I e-mail like one or two, but I don't really e-mail the rest.

연구자: Who do you e-mail to?

명진: That third grade boy. And there's another kid. I don't really know what grade he's in.

연구자: But, he is Korean. Another Korean boy?

명진: Yes.

연구자: Okay. If there is a student who are in your school-American school in XXX and coming to this school, and

asks you about what he needs to do to ...

명진: Get better?

연구자: Get better here. Then, what would you say?

명진: I would say... work hard and just listen to the teacher. And, then you'll be good at Korean in the future.

연구자: How about the other way? There is a Korean student who were born here and raised here and will go back to the Kentucky school, where you were. And, what will you say to him do well in the school?

명진: I would say just like... just like in Korean school, you work hard. But, in America, it's not that hard. So, it would be just easy. Just. work on English. And, then you will be good. I would say that.

연구자: Then, among many of your friends, was there... Do you have anybody who you believe, 'Oh, he is very similar to me'. Or, 'Very like me'.

명진: I have a friend in America.

연구자: Okay.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at friend.

명진: He also likes soccer, like, Jacob and Tyler.

연구자: His name is?

명진: Warren Doerr. He was from England. He came to the school late. But, he really works like me. So, he would help me... like what to do. Jacob and Tyler is same to me. But, I can like really trust him (Warren) because he's good at work. And, I learned a lot of things from him.

연구자: Mm... So, you also find he is pretty much do things like you do?

명진: Yes.

연구자: Okay. Was there any friend or any classmate you believe

is very different from you?

명진: Very different?

연구자: Mm-hm.

명진: There was um, no one else like very different from me.

연구자: Mm-hm. How about here?

명진: Here?

연구자: Mm-hm. Very different.

명진: I don't think there's- oh, in...Like, in the real classes...
they like curse. I don't really- I don't curse.

연구자: Mm-hm. So, you think some strange children who curse
in regular classes...

명진: Yes.

연구자: They are most different from you? All right. Then, I think
I did everything. All right.

7) 유현수 (초등학생)

연구자: Hyunsoo, will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this little machine?

현수: Hi.

연구자: Yep. And, 'My name is...'

현수: My name is Hyunsoo Ryu. But, in Korea it's Ryu Hyunsoo. And?

연구자: And, tell it a little bit about you.

현수: Let's see... Hm...

연구자: Like you introduce yourself to a new friend.

현수: Let's see... hm... like, introducing.

연구자: Yeah.

현수: So, what should I talk about?

연구자: What you like. And, what you don't like, that kind of.

현수: In schooling?

연구자: Yeah, in schooling.

현수: Let's see. In the United States school they give a lot of, lot of homework. But, the teachers are nice. And, here... the teachers are nice as well, and they give less homework. But, they yell a lot at you. And, they make you work in school a lot more.

연구자: (laugh) All right. Hyunsoo,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like doing? At home or with your friends?

현수: I like playing games. I like watching TV. I like playing outside.

연구자: What kind of games do you mean? Sports or computer games?

현수: Both.

연구자: Both. Okay. Then, what kind of sports games do you play? Do you like to play...

현수: Um... soccer.

연구자: Soccer and?

현수: I like... well, oh yeah. I want to play it— oh, yeah. I'm practicing on tennis.

연구자: Mm—hm. Tennis.

현수: Yeah. I take Tennis lessons.

연구자: Here or?

현수: Here.

연구자: Okay. So, you like it? (yes) Good. And tell me about a few things that you hate doing.

현수: I don't like to do homework.

연구자: You don't want to do your homework?

현수: Yeah.

연구자: Especially in which subjects? And, if there's anything you hate most? You don't like most?

현수: Mm... math.

연구자: Math?

현수: I'm good at it, but I don't like to do it.

연구자: Why?

현수: I don't know. I just don't like it.

연구자: That's interesting. Because, when people are good at it and usually they want to do it, right?

현수: Mm—hm.

연구자: Not really for you? All right.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for how many years?

현수: Three years.

연구자: Three years. So when did you come back?

현수: In 2008.

연구자: 2008.

현수: December.

연구자: December.

현수: I don't remember the day.

연구자: Then you stayed there only for three years. That means
that you went to the United States in 2005?

현수: Yes.

연구자: And, then you must have been in an elementary school in
Korea, weren't you? Before you left.

현수: Yes.

연구자: Which grade did you finish when you left?

현수: I can't remember. Wait. First grade. Like, but I didn't finish
first grade. So, I started again in the United States.

연구자: Then, which grade did you finish when you came back to
Korea?

현수: Fourth grade.

연구자: Fourth grade. Are you in fifth grade this at- at this
school?

현수: Yes.

연구자: Okay. That's why. Then, what made you... Did you go to
the United States with your family?

현수: Yes. My mom, my dad, and my little brother.

연구자: Okay. Then, do you know why your family moved to the
United States?

현수: To teach me English.

연구자: To teach you English?

현수: Yeah.

연구자: Then, was there anybody working or having a job in the

United States?

현수: My dad has a job here(Korea). But, the person he works for continued to pay him even though he didn't work. But, I don't know why. But, he kept, he paid us even though we weren't working for in the United States. So, for three years, he kept paying us. Even without working. Now, he (her father) came back, he went back to work.

연구자: Oh. Then, what did you dad do in the United States? Did he go to a school or did he do something over there?

현수: He tried to learn English as well.

연구자: So, did he go to school or he just tried to learn English in everyday life?

현수: I think he went to school. Yeah, he did.

연구자: Okay. Did your mom work?

현수: No.

연구자: Okay. She didn't really work and she's not working now either?

현수: Yeah.

연구자: So, she is taking care of you and your little brother?

현수: Yes.

연구자: Okay. How old is your little brother?

현수: Right... well, he was born in 2001. So, I'd say he's eight years old.

연구자: So, he is in the same school as you now?

현수: Yes.

연구자: Okay.

현수: He's in... well... in the... the- not OO class, No, not OO, What is it? XX class?

연구자: Yeah. XX class.

현수: Yeah.

연구자: Do you remember the Korean school that you used to go before you went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you finished your first grade in Korea.

현수: I can't remember much.

연구자: Okay. Then—

현수: Except that there was a lot of yelling.

연구자: All right. So, you don't really remember your first grade in Korean school?

현수: Nope. I don't remember it.

연구자: Then, do you remember if you learned Korean in the first grade?

현수: Yeah, I kind of did.

연구자: Okay.

현수: So, I remembered it and I still used it sometimes in the United States.

연구자: I see. Tell me about your American school. Did you attend only one school? Or, did you move to...

현수: One school.

연구자: One school.

현수: East Hill Elementary.

연구자: Okay. Exactly where did you live in the United States? It's a big country, so...

현수: I lived in the New York state in OOO (name of city), in XXX (area in the city), and YYY (area in the city).

연구자: Okay. OOO is a city in New York State.

현수: I lived in XXX.

연구자: I don't know how to spell that...

현수: In YYY.

연구자: Okay. Then, it wasn't a big city like Seoul? It was small city, right?

현수: Yeah. Lots of trees. Lots of deers.

연구자: Lots of deers. What's the size of your school there? Do you remember?

현수: Yes. It was about as big as this school.

연구자: Okay. Do you remember how many children in each classroom?

현수: Let's see... yeah. There was about twenty.

연구자: Twenty students.

현수: But, there might have been less in my class. And, sometimes more. I don't know. They're all- they're all different. The numbers.

연구자: Okay. Then do you know how many classes in each grade at your school there?

현수: No.

연구자: No. In American schools, sometimes they have a program called ESL.

현수: Yeah. I went there.

연구자: Okay. In your first grade?

현수: Mrs. Parsons was there.

연구자: You still remember the name of the teacher. Wow! Brilliant. Okay. Then, how long did you stay in the ESL program?

현수: Hm... let me see. For at least two years, I think.

연구자: Two years. And, that means you were in the ESL program when you were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

현수: Yep.

연구자: And, then-

현수: And, the third.

연구자: And, third. A little bit of third.

현수: Yeah, a little bit.

연구자: Okay. And, then...

현수: And, after that I passed.

연구자: You passed the test. And, from the fourth grade you didn't really go to ESL program.

현수: Mm-hm. Mm-hm.

연구자: Did you enjoy the ESL program there?

현수: Yeah.

연구자: Okay. It looks like you still remember the teacher's name. So that means that you liked it very much.

현수: Yes.

연구자: Were there other Korean students in your school?

현수: No, but there was a Chinese student, there was an Indian student... and, I had a best friend.

연구자: Who was your best friend?

현수: Joseph.

연구자: Joseph.

현수: And, Jeremiah. He's from India.

연구자: Okay. And, Joseph is from where?

현수: He's from the United States.

연구자: Okay. So... he was not in the ESL program, right?

현수: Yeah.

연구자: And, Jeremiah was in ESL program?

현수: I never asked.

I No. Okay. But, they are kind of your friends in your classroom?

현수: Yep. My best friends.

연구자: How did you become good friends with them?

현수: I don't know. Well, I can't remember much. But, I do remember

that we played with each other a lot. I even visited his house like one time. And, well... I can't remember after that, but we were friends.

연구자: How did you spend time when you were together?

현수: Let's see... we played. Sometimes, he brought you know, toys to school. And, when I once went to his house, we played some games. We even went outside into the woods, which is behind. And, we played with his pets. He has a guinea pig. Uh, let me see... a turtle... lots of fishes. Beetles and more. He has lots of pets.

연구자: Okay. It looks like there was very few Koreans at your school, right?

현수: Yep.

연구자: And, that means... were there any Korean families in your community? In your town?

현수: Of course.

연구자: Of course.

현수: There was Hyesue.

연구자: Hyesue.

현수: Yep. Exactly as my name.

연구자: Yeah. And, who is he or she?

현수: He.

연구자: He. Okay. Is it a name of child? Or, is it the name of a grown up?

현수: He's exactly my age except... yeah. He's exactly my age.

연구자: Okay. So, he must be a son from another Korean family over there, right?

현수: Mm-hm.

연구자: Then, were your family...

현수: There was another. Another Korean family. There was two kids there, both younger than me. I can't— there a boy and girl. I can't remember the boy's name. But, I remember the girl's name, because she was a troublemaker.

연구자: Uh-huh.

현수: We argued a lot. Especially with his brother. The brother and her.

연구자: Okay. Then, was your family getting along with those Korean families?

현수: Yep.

연구자: Spend lots of time together?

현수: Yes.

연구자: Okay.

현수: Mm-hm.

연구자: So, you had a chance to play with Hyesue? Right?

현수: Yep. And, the other kids.

연구자: Other Korean kids.

현수: But, yeah. And, the other kid. But, not Rina.

연구자: Not... Rina?

현수: The girl.

연구자: The girl who was a trouble maker.

현수: Yep.

연구자: Okay. I see. Why?

현수: She once threw her socks down the toilet.

연구자: Oh no. That's not really good. And, she was about the same age as you?

현수: Nope. A bit younger.

연구자: Okay.

현수: Six years old.

연구자: So, that's young. I don't know. Maybe she's just mischievous.

But, your best friend was from your school.

현수: Yep.

연구자: Jeremiah and Joseph.

현수: Joseph.

연구자: Okay. Do you still e-mail them? Do you still talk to them?

현수: Of course.

연구자: Okay. On the phone or...?

현수: E-mail.

연구자: E-mail. Okay. Do you miss your days in OOO?.

현수: Yes.

연구자: Okay. What do you miss most?

현수: Let's see... my friends, the school, and the... trees.

연구자: The school and trees. Okay.

현수: And, my friends.

연구자: Your friends. When you first went to the American school, you didn't speak English at all, right?

현수: Yep.

연구자: So, do you remember how you felt? Or, was there any kind-

현수: Yes. It was very confusing. I didn't understand what they were saying.

연구자: Okay. And, were you feeling scared or... did you feel a little bit scared or...

현수: A little bit shy. But, scared, no. Okay, maybe a little. But, very little.

연구자: But, it turned out to be okay?

현수: Yep.

연구자: Okay. Then, how about when you came back to here,
Korean school?

현수: Yes.

연구자: Were you afraid of coming back to Korea?

현수: No.

연구자: Okay.

현수: But, I didn't want to go [come] back.

연구자: Want to go back to your school in OOO?

현수: Yep.

연구자: Okay.

현수: I plan to go back. Really.

연구자: You have a plan to go back? When?

현수: Uh, yeah. My mom...

연구자: Your mom? Do you know when?

현수: I don't know.

연구자: But, sometime later?

현수: Yep. In 2009.

연구자: In 2009?

현수: Yep.

연구자: That means this year?

현수: I'm certain. I think so.

연구자: Ooh...

현수: I'm not so sure.

연구자: Then, it's gonna be only you and your mom or...?

현수: And, my brother.

연구자: Your brother.

현수: Yep.

연구자: Not your dad?

현수: Yeah. He has to continue working. But, if we go to [OOO]...

he may need to look for a job there, and then he can you know... quit his current job here. And, he can come to the United States.

연구자: Okay. So, that's what your mom and dad are talking about these days?

현수: Yep.

연구자: All right. You've been to two different schools. One in the United States and one in Korea.

현수: Yes.

연구자: So, I will ask these questions.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thing about American school that you've been to. And, what could be the best thing in...

현수: In the Korean school?

연구자: In Korean school. And, later I will ask about what is the worst thing about each of those schools, okay?

현수: Let's see... In the American school, I had lots and lots of friends. Like, okay. I have friends here. But, I have more friends in the American [school]. The teachers are nice. And, oh, and for the bad thing, they gave a lot of homework. But, they did. And, they sometimes showed us movies. But, they gave a lot of homework. And, in the Korean school... I still have friends like ,준영, 재욱. But, it... I don't know anything. Oh, yeah. They don't give as much homework. And, I get to watch movies sometimes in my class. Uh... but, and the bad thing. They make us do a lot of work here, and they yell a lot more.

연구자: Who yells?

현수: What?

연구자: Who yells?

현수: The teachers.

연구자: The teachers. Okay.

현수: Mi- My brother, Moongyu's teacher yells a lot. And, they make us eat a lot more.

연구자: (laugh) You need that.

현수: It's so much. It's piled up like this.

연구자: Okay. So, tell me about your Korean friends here.

현수: Let's see... There's... 준영 and 재욱. There was 상진 and 주희, but 상진 and 주희 moved away. But, I still play with 준영 and 재욱. But, not as commonly.

연구자: These friends are from your own classroom?

현수: Yes.

연구자: Okay. Have you made any friends outside of your classroom?

현수: Yes.

연구자: Okay. Did you find it difficult to make good friends outside of your classroom?

현수: No.

연구자: So, tell me about one or two friends that you made outside of the classroom--your class.

현수: Hm... we- outside the classroom... Does it count as current classroom or- because, when I was in-

연구자: Ooh.

현수: Because, when I was in OOO class, I had four friends. 준영, 상진, 재욱, and 주희. The four ones I told you about. But, they moved to other classes.

연구자: Okay.

현수: Two of them. And, the other two moved to different schools.

연구자: Okay. I see. Yeah. When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the schools ends about two o'clock? You know, two thirty?
Right?

현수: Yes.

연구자: And, what did you do after school?

현수: Let's see. I went home... I sometimes played with David.
He's Moongi's friend. He- Moongi's best friend. Or, Tyler.
He's bigger than me. And, Dane. He's bigger than me. And,
we would play together. Then I watched TV and stuff. I did
my homework. And, then I could do whatever I wanted.

연구자: Okay. Then, that means you didn't really have any tutor
or kind of sports lessons like that?

현수: Yeah. But, in the summer there was a pool outside. So, we
swam in the pool. And, sometimes there was a big house,
so we held parties there. Yeah.

연구자: Okay. I see. How about here? After school... I know
Korean schools end around two, two thirty. And, what do
you do after school?

현수: The normal thing. I go home, I do my homework, I do whatever
I want to.

연구자: So, you don't- you are not going to any 학원, because
many children go to academies.

현수: Oh, academies.

연구자: Mm-hm. After school academies, you know. Learning English,
math, and other things. Do you do that?

현수: I already know English. Yeah. But, I take tennis lessons...
and, I'm going to take swimming lessons. Yep.

연구자: Mm-hm. But, you are not-

현수: I don't think I can do tennis lessons today.

연구자: I see.

현수: The rain.

연구자: So... after school, you usually have some sports...lessons?

현수: Yep.

연구자: What is your dream? Hyunsoo, what do you want to be?

현수: It keeps changing.

연구자: Oh, I know that.

현수: Well, first I wanted to become president.

연구자: Ooh.

현수: But, that's a lot of work.

연구자: President of where?

현수: President of somewhere.

연구자: Okay.

현수: Maybe the United Sta- no, no. Korea. Next, I wanted to be
a Marine Biologist. Next, I wanted to be a Scientist. And,
that's what I want to be right now.

연구자: Why do want to be a Scientist?

현수: Because, I get to research a lot.

연구자: What kind of research did you do?

현수: Like, bugs.

연구자: Bugs.

현수: And, insects.

연구자: Insects.

현수: And, 'cause of mutations. Oh, yeah. And, I still want to be a
Marine Biologist.

연구자: Marine Biologist? Do you know what Marine Biologists do?

현수: Yeah. They research the ocean.

연구자: How did you know that?

현수: I know.

연구자: How?

현수: I just know.

연구자: Know?

현수: Yeah, I know that biologist is a scientist. And, Marine means ocean.

연구자: Ooh. Do you like reading books?

현수: Yes.

연구자: And, why type of books do you read?

현수: Let's see... I read all kinds of books.

연구자: What— what is your favorite kind of books?

현수: Let's see... fiction.

연구자: Fiction. Which type of fiction?

현수: Let's see... well, when I was younger, I liked to read... well, younger books. And, now that I'm older, I read older books.

연구자: Okay. Tell me about the books that you are reading these days.

현수: These days I read something like Aragon, Harry Potter, and others. Like, Twilight.

연구자: Twilight. Yeah. Hm. So, you are looking forward to go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현수: Yes.

연구자: All right. When it comes to the subjects, school subjects that you are learning, did you find any difference between your American and your Korean school here?

현수: Hm... a little difference.

연구자: What did you find?

현수: Let's see... They teach us differently. Like, right now I'm learning what I already learned. Like, in the United States, I was learning— I learned divisions, and multiplications. And, I was ready to move onto something like... square roots.

But, then as I came here, now we do something like multiplication grade numeral thingys... Something that I already learned. And, we... yeah. Like, that. But, 국어. Yeah, that's a bit more difficult.

연구자: Okay. So, you think math here is not really hard as compared to math that you learned there?

현수: Sometimes it's a bit hard. But, yeah. Most of the times, it's easy.

연구자: Okay. Hyunsoo, I know that sometimes American schools have a special math program for those who are moving faster than others...

현수: I took Science thingys. Yeah. Those, those math things that you were talking about and stuff is the math I took [from] Science. Yeah. Those.

연구자: I see. All right. If you have a friend who is about to go to American school—where you used to go—and asks you about some suggestions about what she or he could do to do better at the school, what will you say?

현수: I will tell him that he has to learn— learn English. And, that he'll probably make lots of friends there. And, there's lots of trees there. Because, they plant a lot of trees. And, then the teachers are nice there. And, there's a big library there. And, if you can't speak English perfectly, there's the ESL. Yeah, those.

연구자: Mm-hm. Then the other way. If there's a student like you, from an American school is coming to this school, and he wants to do well in this school. And, he asks you what he needs to do to do well in Korean school, what will you say to the person?

현수: I'll say that Korea is... Well, this Korean school is... has... this room. The teachers are most— most of the time nice. They don't get a lot— much homework. And, there's lots of other good things. And, it's very wet.

연구자: (laugh) Oh, today is very wet. It's true.

현수: Yep.

연구자: The American school that you attended was a private school or public school?

현수: Public.

연구자: Public school. Okay. And, if there is a parent—a mom and dad, who wants to send the kids to a school in the United States, what will you tell them? They want to know how to support their children to do well in school.

현수: They'll have to... they'll learn English much better there. The teachers are nice there, so they won't get yelled a lot. There isn't... they're okay with... My school didn't have any bullies. None at all. Oh, yeah. So, they don't give us much homeworks, but that's a good thing for them. But, they'll study a lot in school.

연구자: Mm—hm. Do you—

현수: There's lots of educational things there.

연구자: It's a little bit confusing. You said American schools give you a lot of homework. Or, not?

현수: Nope, the Korean school— yeah, the American schools do.

연구자: And, Korean schools don't?

현수: Yeah. A little.

연구자: Little homework. Okay. All right. I finished everything. Was there any friend, among all of your friends, was there any friend that you feel... 'He is pretty much like me, we

share lots of uh, things in common'. Who could it be?

현수: My best, best, best friend Joseph. Yeah.

연구자: And, you think you share lots of things with him?

현수: Yep.

연구자: Yep. And—

현수: And, he and he... but, I never told him. But, he did. He told me.

연구자: He feels he's very similar to you, kind of?

현수: Mm—hm.

연구자: Okay. You— do you feel the same way?

현수: Yep.

연구자: All right. I see. If there's any friend that you felt you are very different from that person... who the person could be?

현수: Let's see... I can't think of anyone. Mm... wait. There is one. The teachers.

연구자: Teachers?

현수: Yep.

연구자: Where? Which teacher?

현수: Like, Mrs. Fraier. Yeah. She was a bit fat, but she was the nicest teacher. And... there's Mr. Rea. Yep.

연구자: You think the teacher was very different from you because she was a little bit fat?

현수: Yep.

연구자: And—

현수: And, Mr. Rea wasn't fat, but he... but, he look— he yelled a lot. But, he was still nice.

연구자: Okay. Then, you think you are not nice? Because, you say they are different from you. But, they are [nice]

현수: Nope.

연구자: Okay.

현수: They're older than me.

연구자: Okay. So—

현수: That's a big difference.

연구자: Big difference. They are older than you. Right. That's true. Who do you feel... most close to in— in your family? Mom or dad or your little brother?

현수: My mom, my dad, and my brother.

연구자: You feel very close to all of them?

현수: Mm—hm.

연구자: Okay. All right. I finished all the questions. And, thank you so much Hyunsoo. And, you are such a great participant and I really enjoyed talking with you.

8) 박미희 (초등학생)

연구자: This is Meehee interviewed by Jae Hoon. Where were you born? In which country and where did you attend school?

미희: In Korea, I was born. At five I went to America.

연구자: Okay. You went to America when you were five?

미희: Yes.

연구자: Okay. And, then when did you come back to Korea?

미희: When I was nine.

연구자: Nine. Okay. And, now you are... how old are you?

미희: Ten.

연구자: Ten. Ooh, you are very tall! Right?

미희: When I was young I was big and my...dad told me that I was same as my grandpa.

연구자: Mm-hm. That means your grandpa... is very tall? So, that means you spent about five years- four years in the United States?

미희: Yes.

연구자: Okay. Then why don't you introduce yourself to this little guy here (a digital recorder)?

미희: Hello. My name is Meehee. I was born in Korea. And, when I was five, I went to America. And when I was nine I went [came] back to Korea.

연구자: Mm-hm. You came back to Korea. Meehee, will you please- will you tell me a few things that you like doing most and a few things you like least doing?

미희: Uh... I don't have any.

연구자: You don't have any hobbies and things that you like...

미희: Wait, hobbies? I used to do Tai Kwon Do.

연구자: Oh... okay.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at?

미희: About... three years.

연구자: Three years. Okay. You are still doing it?

미희: No.

연구자: Okay. Why did you quit?

미희: Uh, my dad said to.

연구자: Oh. Your dad said you should stop doing it? Anything that you don't like doing?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hate doing that stuff?

미희: Yes.

연구자: Yea- tell me what they are.

미희: When we were smaller, this little kids...like they're reversing and I do... like, kick them easily. But, they're too small, and I had to kick them a ball, and I gets trouble by the... master.

연구자: Oh. When you were exercising at Tai Kwon Do place or?

미희: Tai Kwon Do place.

연구자: Tai Kwon Do place, right? Okay. Anything... Which type of books do you like? Do you like watching TV or movie or music or reading books?

미희: I like to watch TV.

연구자: Okay. What kind of TV programs do you usually watch?

미희: I usually watch Jamie Fox and... SBS and KBS.

연구자: Okay. So, do you watch Dramas and kind of show programs?

미희: Well, I don't watch dramas, because when I first time I saw dramas, I cried. And, my mom thought I got hurt.

연구자: (laugh) That's interesting. All right.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your family. You went to the United States uh, at the age of five. That means somebody in your family must have

worked in the United States. Am I correct?

미희: Yes.

연구자: Okay. Who was the person?

미희: Aunt and then my uncle.

연구자: You uncle and your aunt. And, did you go to the United States with your mom or on your own?

미희: Mom and dad.

연구자: Your mom and dad. And, did your parents work in the United States?

미희: No. They worked in Korea, but they decided to go to the United States.

연구자: Okay. And, they didn't really work when they were in the United States?

미희: They did work.

연구자: Okay. In the United States?

미희: Yes.

연구자: Okay. Exactly which city did you live?

미희: I lived in OO (name of a particular city area).

연구자: OO (name of a particular city area)...

미희: OOOO (name of a large city).

연구자: OOOO. Oh, you were in a big city. Okay. Then, do you know what kind of work your dad or mom did in OOOO?

미희: My dad worked in a newspaper, and my mom worked on a baby clothes shop. Clothes.

연구자: Mm-hm. What newspaper was it?

미희: OOOO신문.

연구자: So, he worked there for five years?

미희: Yes.

연구자: Okay. And, do you have any sister or brother?

미희: No.

연구자: No. You are the only kid?

미희: Yes.

연구자: Do you like it?

미희: Yes.

연구자: (중략) Who do you feel most close to among your family members.

미희: My dad.

연구자: Your dad. Rather than your mom?

미희: My mom and my dad got separated and my mom decided... me to live with my dad and my grandma.

연구자: Okay. When did it happen?

미희: When I was six in America, they... like, fight and I just woke up. And, they yelled. And my neighbors heard the whole thing.

연구자: Mm-hm. So, since then, you lived with your dad and grandma in OOOO. Am I correct?

미희: No, I used to live with my dad in OOOO. In Korea, I live with my grandma and my dad.

연구자: Oh, I see. Okay. So in OOOO, you lived with your dad?

미희: Yes.

연구자: Here you live with you dad and... grandma?

미희: Yes.

연구자: Okay. Is your home close to this school?

미희: No, kind of far.

연구자: Kind of far. Then, how do you come to school in the morning?

미희: I take the bus.

연구자: Take a bus. How long does it take?

미희: About five or six minutes.

연구자: Oh, that's not... That's still okay. All right. I will ask questions about your school in- in OOOO. I know the OOOO is a big city like Seoul. Do you remember anything about the school? And, was it a big school?

미희: Yes, it was a big school. But... it's kind of diff- messy.

연구자: Messy? Okay. So, it was a kind of city school, right? In the middle of city.

미희: Yes.

연구자: Okay.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school?

미희: City Elementary School. I'm wearing the shirt.

연구자: Oh, yeah. I see. Then, was it the elementary school? Or, was it a school that has all the grades up to twelfth grade?

미희: Only fifth grade to first grade.

연구자: Okay. Then, did you like the school?

미희: Yes.

연구자: Okay. How many students were you in your own classroom?

미희: About twenty one or twenty... or, thirty.

연구자: Thirty in each classroom. And then, do you know how many classes were in each grade?

미희: Uh... I think there were three classes in each grade.

연구자: Okay. Were you in ESL program? Or, ESOL, English as second language program when you first um, went to school there?

미희: Uh, I went to ESL.

연구자: You went to ESL. How many years? Up to which grade?

미희: Up to fifth grade.

연구자: Up to fifth grade.

미희: I'm still having trouble with spelling and kind of saying hard

words.

연구자: Mm-hm. I have the same problem. (laugh) So then, your school was not really big. It's kind of medium size. Tell me about how the school looked like. Did it have a playground?

미희: Yes.

연구자: Yes. Was it a big building? Or it was kind of one story house type of?

미희: It's like this school, but kind of medium. Like, double the size the school of this school.

연구자: Okay. Of this one?

미희: Yes.

연구자: Okay. Do you remember what kinds of groups of students your school had over there? Like, in Korea, we have all students who look pretty much the same, right? But in United States, there are different groups of students like black students or Mexican students, Korean students, Asian students like that. How was your school in terms of different groups of students?

미희: Well, they are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nd Spanish and Americans.

연구자: Okay. American. When you say "Americans"? That means uh... white students? Or, black students, too?

미희: Uh... white and black students.

연구자: Okay. Um...what is the percentage of each group of students?

미희: Uh...

연구자: You said you had about twenty to thirty students in your class. Then, let's say like five American students and five Asian students, like that.

미희: Okay. There is about five or three persons that are Korean

in my classroom. And, there is two Chinese kids in my classroom. And, there is four black students in my classroom. And the rest of them are Americans. White kids.

연구자: Did you have any Mexican students?

미희: No. In the other class they did.

연구자: In other classes?

미희: Yes.

연구자: Oh, okay. You said you were in an ESL program all through the years. Then, was the ESL program kind of... Sometimes schools have ESL students learning all the subjects at the same time. But, sometimes they have a special ESL program so sometimes you spent time over here, and went to regular classes for other subjects. How was your ESL program?

미희: ESL. Like, for example, when we go— when we started the teacher calls us. So, we have to go down and work there for (some time). If the times are over we go back to (our regular) class.

연구자: Okay. So, you had a kind of individual lesson or small group lesson with ESL teacher in the middle of regular classes? Okay. I see. So, you studied all the subjects in the regular classroom with other kids?

미희: Yes.

연구자: Okay. Then, do you remember ... Was it you and only ESL teacher together when you had a ESL instruction?

미희: No. Other kids come, too.

연구자: Okay. Then, who were they? All Korean students or some Chinese students?

미희: Chinese, Japanese, and Koreans.

연구자: Oh, mostly Asian students? Mostly. Okay. From your thought,

what type of student do you think you were in that American school?

미희: Uh...

연구자: Were you quiet or were you very active or kind of funny, or... shy?

미희: I was kind of shy in the first time, and I was funny at the second time.

연구자: Okay. Did you have many good friends when you were in that American school?

미희: Yes.

연구자: Okay. Tell me about your close friends.

미희: My close friends are Korean people, and a lot of friends are Americans. But, some American kids like... make fun of me or just... just make faces at me, and like that.

연구자: So, you found some American kids made fun of you at that school?

미희: Yes.

연구자: Why? Do you know why?

미희: Uh, I don't know why but they just... talked about me like... uh, "She's weird or something". And they did like that.

연구자: Mm-hm. So, your most close friends were Koreans?

미희: Yes.

연구자: Then, did you talk with your friends in Korean or in English most of the time?

미희: In English in most of the time.

연구자: Okay. Then tell me about those friends. Tell me about one or two friends of yours.

미희: One of my friend is named Casey and he's a boy. And, we always make fun of him because his name's like a girl. He

goes with me in the same church, and he's nice to me.

연구자: Mm-hm. But, did other children also make fun of him because of his name?

미희: Yes.

연구자: Hm... That's pretty mean. But, he is a boy?

미희: Yes.

연구자: You went to same church with him. That means the church that you went to was a Korean church?

미희: It was Korean... half Korean and half English.

연구자: Half English means they are Koreans, but they had a worship in English?

미희: Yes, they are all Koreans. And, Engli- but, they talk in English.

연구자: Mm-hm. Okay. I see. Because, some of them might be Korean-Americans. Then, did you learn Korean when you were in that American school in OOOO?

미희: No, I don't... I didn't study Korean, but I studied other things.

연구자: Okay. So, tell me about the school subjects that you learned at that school.

미희: Gym, math and...social studies and science. And what is it that? And other things.

연구자: Okay. Did you learn arts and music as well over there?

미희: (No). But, we used to learn music when we were first graders. But, we didn't learn music when we were fifth graders.

연구자: So, it depends on which grade you were in. Then, did you finish fifth grade in your school in OOOO?

미희: No, I just went to Korea when I was... When it was ten days when I came to fifth grade.

연구자: Okay. So, you spent just ten days in fifth grade over

there. And, then transferred. If there is any student, any friend of yours that you feel very similar to yourself, who would it be? Like, “he or she is pretty much like me”, in the way of thinking or doing things.

미희: Well, there is one girl who was like same as me. Her name is Miranda and she’s from Chinese— China. She kind of like friend of me and she has long hair. And when I was young I used to have long hair. And, she didn’t know much of the things, and I— she was like the same.

연구자: Mm—hm. So, you feel very… You find she is very similar to you?

미희: Yes.

연구자: Okay. Was she new to the school as well? Or, she has been a student there for long time?

미희: Like, she was in a school when she was third grader. And, she went back to China in first— fourth grade and she went (came) back when she was fifth grader.

연구자: Mm—hm. Then, did you make a good friend with her?

미희: Yes.

연구자: Okay. Then, if there was a person that you felt very different from you in the school over there, who would it be?

미희: Uh, there’s a bunch of them.

연구자: Okay. Tell me about the person.

미희: This person named uh… what was it? Oh, Steven.

연구자: Steven.

미희: Uh, he’s kind of small and kind of different.

연구자: In what way?

미희: The way… He’s quiet and I’m kind of noisy.

연구자: Oh, he was quiet. And, you were kind of noisy?

미희: And, everyone like... Everyone thought that he's strong and I... And everyone thought that I was weak. But, I was strong and he was strong, too. But, everyone think that I'm weak and he's strong.

연구자: Why did everyone think you were weak at that school?

미희: Uh, because that time, I was skinny.

연구자: Okay. First, when you came here, Korea, is this your first school here? Or, did you attend any other school before you came to this school?

미희: Only pre-schools.

연구자: Pre-school. Okay. Then, what was the hardest part to adjust when you came to Korean school?

미희: Uh... Could you repeat that?

연구자: Yeah. What was the hardest- the most difficult thing to do when you first came to Korean school?

미희: Trying to understand the...

연구자: Trying to understand... the teacher's instruction?

미희: Yes.

연구자: Okay. And what else?

미희: Uh... and I was kind of shy there.

연구자: Mm-hm. Did you find it was hard to make friends here?

미희: Yes, but when my friend Nick was there, I became friends with him.

연구자: Mm-hm. And was he nice to you?

미희: Yes.

연구자: Okay. How about other students in other classes beyond this classroom?

미희: Uh...

연구자: How do you feel about them?

미희: I have no feelings at that time.

연구자: But, do you have some classes with the students outside this class, right? Then, were you able to make any friends with some of those children there?

미희: Uh... from that class or this class?

연구자: No, beyond this class.

미희: Oh. Yes, I did and her name is Hyoeun. She was nice to me.

연구자: Okay. How is she nice to you?

미희: Uh... like, somebody made me cry and she cheered me up.

연구자: Mm-hm. Okay. That means somebody made you cry here at this school?

미희: Yes.

연구자: Okay. How?

미희: Uh, somebody made me fall and I just kind of got hurt and Hyoeun came and cheer me up.

연구자: Okay. Then, do you sometimes meet with your friends and play with them after school?

미희: Yes.

연구자: Who are those friends that you usually play after school?

미희: My friend Nick, and my friend Jungjin, and my friend Jeesu.

연구자: Are they all from this class?

미희: Yes.

연구자: Okay. So, you feel more close to your friends in this classroom?

미희: Yes.

연구자: Than others outside. Do you have any friends who live close to your house? Because, sometimes in- if you live in

an apartment or something like that, there might be some other kids living around your house.

미희: Well, there is in my art school, but in this school, no one lives in my apartment except our schools.

연구자: Okay. So, it was hard for you to make friends in your own apartment complex?

미희: No, it was easy.

연구자: It was easy?

미희: Yes.

연구자: Okay. Then, tell me about those friends. Not the friends from this school, but living close to your apartment.

미희: I saw them when I first came to my art school and I just got surprised when I saw them living in my apartment. And, they said, “Hi”, and I said, “Hello”. And, I become friends with the kids.

연구자: Okay. Do you know any of their names? The names of any of those children?

미희: I forgot the names.

연구자: Okay.

미희: Because, I never went (back) to the art school.

연구자: Okay. well, Meehee. You’ve been to two different schools at least and in two different countries. So, I will ask these questions. If you see anything that American schools are doing a better job or nicer than what you see in Korean school here, what would that be?

미희: Uh, usually, usually help the others picking up the heavy things and other... And they let us like, if we forget our supplies, they let us borrow it.

연구자: In American school?

미희: Yes.

연구자: Okay. So, you think that was good thing in American school?

미희: Yes.

연구자: Then, was there anything that you find not really good in the American school as compared to this Korean school here?

미희: Well, in American school they do kickball, but if they cheat or if they lose, they usually cursed. They curse and they fight a lot.

연구자: So, you think that's not really good in the American school?

미희: Yes.

연구자: Okay. Then, do you see that kind of cursing and fighting in Korean school?

미희: I see that only a little.

연구자: Okay. So, as compared to American school, you think such incidents are less in Korean school?

미희: (yes, nodded)

연구자: Okay. Then, where do you think the Korean schools are better than American schools?

미희: Uh. I don't know.

연구자: Mm... you don't really know. Okay. Then, where do you think Korean schools are not as good as American schools?

미희: I think America schools... they... uh, study better but. Usually, they leave late in America school. But, in Korean (school) they leave, leave early.

연구자: Early. Okay. So you think American students learn more than Korean students do?

미희: Uh, but I don't think that's right. Maybe... Because in Korea

they study more than America, but... In America, they usually study the easiest. The easy way.

연구자: Oh. That means that students in American schools stay longer at the school, but learn easier stuff?

미희: Yes.

연구자: Okay. That means in Korean schools, you think Korean students stay shorter but, they learn harder stuff?

미희: Yes.

연구자: Mm-hm. Then, did you find the things that you are learning here are harder than you're used to learn in your American school?

미희: But, between Korean and America, the math is...ea-. America is easier, and Korean's kind of hard.

연구자: Mm-hm. How about other subjects?

미희: Well, in America in gym, they- you could just play whatever you want. But in Korea you just have to learn in gym.

연구자: Mm-hm. Learn different skills, right? If you miss anything-- being in American school, what could it be? Do you miss anything?

미희: I miss my friends.

연구자: You miss your friends. So all you miss... is your friends?

미희: Yes.

연구자: Anything that you did at the school. Was there anything that you are missing?

미희: Uh, miss-

연구자: About the things that you did at the school. Not the friends. I know that you are missing your friends.

미희: Uh...

연구자: Not really? Okay.

미희: Okay.

연구자: Meehee, what is your dream?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미희: I just... I want to be an archeologist.

연구자: Archeologist. Okay. How did you have that dream? Why?

미희: Because, my friends also want to be archeologist. But, I like things about dinosaurs and animals.

연구자: Who is that friend? Who wants to be an archeologist?

미희: The one I told you that ... is same as in my church. Casey.

연구자: Casey. Oh. Okay, So do you still e-mail with him? Or, do you still contact with him?

미희: I send e-mails.

연구자: Mm-hm. Did he respond to you? (Meehee nodded)

미희: Yes. Okay. So, you are still very close friend with him? Meehee, what will you say if a student here is about to go to the American school, where you just came from and wanted to know how to do well at the school. What will you say to that student?

미희: Uh, study well.

연구자: Study well? And, how?

미희: And... remember ... If the American words like English is harder than Korean words.

연구자: Mm-hm. Learning English is harder than learning Korea. Anything else?

미희: I think that's the only thing.

연구자: That's the only thing. Then, how about the other way? If there is a student , like Casey, he is about to come to this school, like you did. And, he asks what... He wants to know how to get prepared to do well at this school. What will

you say to him?

미희: I'll probably say study well and good luck on the Korean words.

연구자: (laugh) Good luck with your Korean words. Okay. Anything else?

미희: No.

연구자: Then, how about if there is a kind of parent who wants to send their kid... like, about your age to the United States, to a school in America, and asks you what he or she could do for their children, what will you say to the person?

미희: Uh... uh... I do not know what to say.

연구자: How do you think the parents can really support the child? What do you think the parents should be doing?

미희: Uh... uh... if I was a parents, I would say the same thing as before.

연구자: Study hard... Study well? Okay. Meehee,, I went through all the questions that I have. Do you have any question for me?

미희: When did you come to America?

연구자: Oh, I went to...the United States when I was about twenty nine.

미희: Was it hard to learn English?

연구자: Oh, yes. Of course. It was very hard. Was it hard for you?

미희: It was easy.

연구자: It was easy? It was hard for me because I started learning English when I was pretty old. But, it was fun. I liked learning languages, so I liked it. I still have my accent as you see, but yeah, I can talk. (laugh) Thank you so much, Meehee.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전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홍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
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운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운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인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운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아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앤디(주)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98-7(93330)

978-89-7816-796-3(세트)

